

# 어디보다 어떻게

2025년 나눔8기 단기사회사업 기록 | 소지현 한동걸 임성훈

## 차례

축하 글 .....	4	여행⑤ 고마워 언니야 .....	67
소지현 지원사 .....	5	여행⑥ 요트 .....	71
한동걸 지원사 .....	6	여행⑦ 재미있게 놀다 간다 .....	73
임성훈 지원사 .....	7	여행⑧ 젤리 두 봉지 주세요 .....	74
일정표 .....	8	사진 뽑을 수 있나요? .....	77
		사진 앨범 어디에 있어요? .....	79
<b>성옥자 씨 여행</b>		드려야지 .....	80
성옥자 씨와 여행 소개 .....	10	상담 선생님께 감사와 소식 .....	80
인사와 호칭 .....	11	김현옥 권사님께 감사와 소식 .....	81
둘레 사람 소개 .....	14	뜨개공방 선생님께 감사와 소식 .....	82
여행 의논① 바다! .....	16	감사편지 부탁 .....	85
1시 30분에 와요 .....	17	국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	86
집 초대 .....	19		
여행 의논② 해운대로 가요 .....	22	김재선 씨 취미 찾기	
가족 소개 .....	26	김재선 씨와 취미 찾기 소개 .....	90
뜨개공방 선생님께 인사와 소식 .....	29	집 소개 .....	91
김현옥 권사님께 인사와 소식 .....	30	어머니께 인사 .....	92
여행 의논③ 일정 정리 .....	31	머슬랙휘트니스 관장님께 인사 .....	93
한글학교 선생님께 인사와 소식 .....	33	상담 질문 정리 .....	94
성암교회 목사님께 인사와 소식 .....	37	나자 파일 .....	97
여행 의논④ 기차 오래 타는 게 좋지 .....	42	일정 의논 .....	98
여행 의논⑤ 국제시장 가자지 .....	43	어머니께 소식 .....	99
다이소부터 갈까? .....	49	어머니께 일정 소개 .....	100
시내버스 탈 만해요 .....	54	어머니와 나들이 의논 .....	101
여행 의논⑥ 여기 괜찮네 .....	55	머슬랙휘트니스 관장님께 소식 .....	103
동생이랑 통화했어 .....	58	학원 목록 작성 .....	106
설레요 .....	59	원데이클래스① 미미네 공방 .....	109
사진앨범이 괜찮아 .....	60	원데이클래스② 흥익뉴미술학원 .....	113
여행① 부산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	61	네 곳의 방문 상담 .....	115
여행② 다음에 같이 와도 좋겠어 .....	63	원데이클래스③ 쏘쓰네손공방 공방 .....	120
여행③ 관촬아 내가 끌고 갈게 .....	64	큐티헤어 원장님께 인사와 소식 .....	122
여행④ 지하철 재미있네 .....	65	어머니의 감기 .....	124

군산 나들이 의논	124	여수 여행 둘째 날	182
군산 나들이	126	감사인사 의논	185
원데이클래스 예약	131	감사편지 준비	186
원데이클래스④ 소금인형화실 공방	132	전영진 목사님께 감사	186
미술 나들이 의논	134	정은선 선생님께 감사	187
미술 나들이	135	나우현 씨께 감사	191
미술맥튀트니스 관장님께 감사	139		
큐티헤어 원장님께 감사	141	<b>나눔8기</b>	
소금인형화실 공방 선생님께 감사	142	면접 후기	194
어머니께 감사	143	합동연수	204
		중간 평가회	218
<b>나우현 씨 여행</b>		종결 평가회	220
나우현 씨와 여행 소개	147	시설 단기사회사업 합동수료회	223
나우현 씨와 인사	149	토요활동① 군산 은파호수공원	226
다시 여행	149	토요활동② 기관교류: 충북 괴산	228
오늘의디저트 선생님께 인사와 소식	150	토요활동③ 기관교류: 대전 추동	232
정은선 선생님과 여행 의논	151	소지현 수료사	238
공방 수업 예약	153	소지현 수료증(박선영 선생님)	242
나들이 의논	154	한동걸 수료사	245
다음 만남	155	한동걸 수료증(최길성 선생님)	249
돈가스 가게	156	임성훈 수료사	252
미용실 실장님께 인사와 소식	157	임성훈 수료증(김현승 선생님)	255
아버지께 인사와 소식	158	온라인 보고서	258
여행 숙소 예약	160		
공방 수업으로 나들이 간식	162		
나들이와 여행 소식	163		
목사님께 인사와 소식	166		
완주 나들이	169		
여행 일정 의논	172		
웃가게	174		
내일이에요?	175		
여수 여행 첫째 날	176		

## 축하 글

단기사회사업에 세 분의 당사자가 함께했습니다. 세 분은 각각 다른 집에 삽니다. 한 분은 미룡동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한 분은 내흥동 어느 아파트에 살고, 한 분은 옥구읍 어느 빌라에 삽니다. 사는 곳뿐인가요? 삶도 다릅니다. 단체생활이 아니라 각각 독립생활합니다. 여느 사람처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지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지원합니다.

전담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와 의논하여 여름에 하고 싶거나, 하면 좋을 과업을 정했습니다. 실습으로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고 싶다고 소지현, 한동걸, 임성훈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당사자가 직접 면접하셨고 세 학생 모두 합격했습니다. 당사자와 면접한다니 학생들이 적잖이 긴장했지만 그 유익이 컸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의 주인이, 나아가 단기사회사업으로 지원하려는 삶의 주인이 실습생이 아닌 당사자임을 몸소 느꼈을 겁니다. 합동연수에서 복지요결을 공부했고 사업워크숍을 통해 입주자와 전담 사회사업가가 미리 의논한 과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궁리하며 준비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모여 배움을 나누는 학생들을 보며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회사업 하겠다고 짐작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실천하고, 밤에는 성찰하고 기록하며 성실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수료식에서 흘린 세 학생의 눈물을 보며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시설 사회사업 참 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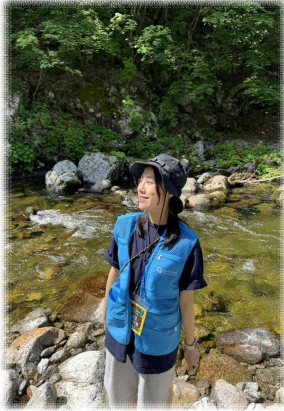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가답게, 사회사업으로 당사자를 지원한 소지현, 한동걸, 임성훈 학생에게 고맙습니다. 입주자의 삶이 그러하듯 꿈꾸고 희망한 대로 세 학생도 자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더숨99지원센터 직원 일동

## 소지현 지원사

이름: 소지현

소속: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난 2월에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주관한 장애인복지 지망생 복지순례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사업 현장을 두루 다니며 공부했는데 그때 더숨99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설 사회사업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의료, 식생활, 주거, 개인별 지원 등 선생님마다 역할은 달랐지만 ‘당사자의 삶’으로 지원하기 위해 궁리하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중한 노력이 느껴졌고 당사자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인상 깊었고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꿔왔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그런 삶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순례를 통해 저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이번 여름 더불어 사는 삶을 지원하며 실천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삶의 주인 되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더숨99지원센터 단기 사회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한동걸 지원사

이름: 한동걸

소속: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웃으며 행복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한동걸입니다.

1학년 때 수업에서 팀모임으로 현장 기관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인터뷰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과제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질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싶고, 사회복지사 한동걸의 실천 방향도 잘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실습지를 어디로 선정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는데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단기사회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찾다가 더숨99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사업이 무엇인지, 사회사업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고민하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임성훈 지원사

이름: 임성훈

소속: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사업을 이해하고 알고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좋아합니다. 지난 4월16일에 실습세미나를 마치고 실습 기관홍보 시간에 오광환 선생님께서 더숨 99지원센터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최길성 선생님께서 입주자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느 사람도 찾기 어려운 취미를 당사자가 찾으시게 지원하고, 각각 다른 환경에서도 주인 되어 살아가게 돕고, 무엇보다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의논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더숨99지원센터에서 사회사업을 알고가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당사자를 이해하고 싶고, 사회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배우며, 실제로 당사자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체감하고 싶어 더숨99지원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일정표

	6.30(월)	7.1(화)	7.2(수)	7.3(목)	7.4(금)
공통 일정	합동연수			오전 공부, 오후 특강	오전 공부, 오후 특강
성육자 씨				-당사자와 인사 -노래교실 선생님 인사	-가족과 연락 (여행 소식, 여행지 추천) -부산 여행 의논
김재선 씨				-둘레사람 인사 -취미 찾기 의논	-김재선 씨 본가 동행 -어머니에게 인사
나우현 씨				-여행 의논 -공방 선생님 인사, 여행 소식 전하기	-여행지 의논
	7.7(월)	7.8(화)	7.9(수)	7.10(목)	7.11(금)
공통 일정	오전 공부	오전 공부	오전 공부, 오후 특강	오전 공부	오전 공부
성육자 씨	-뜨개공방 선생님과 인사 -기차 예매	-한글학교 선생님 인사 -임정에 권사님 인사 -김현옥 권사님 인사	-목사님 인사 -여행 계획 의논 -속소 예약	-동생과 연락 -여행 준비(비용, 예약 등)	-여행 준비(소피) -시내버스 타기
김재선 씨	-헬스장 관장님 인사 -학원 의논	-미미네 공방 원데이클래스	-홍익뉴얼미술학원 원데이클래스	-이화애글드림 상담 -가우디미술학원 상담 -굿디자인미술학원 상담 -소금인형화실 상담	-소쓰네 손공방 원데이클래스
나우현 씨	-재활 상담 의논	-외식 -미용실 가기 -아버지와 연락 -속소 예약 및 입금	-오늘의디저트 공방 수업	-나들이 준비	-완주 나들이
	7.14(월)	7.15(화)	7.16(수)	7.17(목)	7.18(금)
공통 일정	중간평가회	오전 공부	오전 공부, 오후 특강	오전 공부	오전 공부
성육자 씨	-뜨개공방 선생님과 인사 -기차 예매	-한글학교 선생님 인사 -임정에 권사님 인사 -김현옥 권사님 인사	-목사님 인사 -여행 계획 의논 -속소 예약	-동생과 연락 -여행 준비(비용, 예약 등)	-여행 준비(소피) -시내버스 타기
김재선 씨	-큐티하여 미용실 -미술관 나들이 의논	-미술관 나들이	-학원 재방문	-학원 평가 -나들이 준비	-서천 나들이
나우현 씨	-둘레 사람에게 여행 소식 전하기	-재활센터 방문상담	-옷 사기 -여행 소식 전하기 -보조기기 방문 상담	여수 여행	
	7.21(월)	7.22(화)	7.23(수)	7.24(목)	7.25(금)
공통 일정	오전 공부	오전 공부	중결평가회	합동수료식 및 중결평가회	
성육자 씨	-당사자와 둘레 사람 감사인사	-당사자와 둘레 사람 감사인사	-		
김재선 씨	-	-	-		
나우현 씨	-	-	-		

\*토요일은 노는 날(나눔8기 참고), 일요일은 쉬는 날.

# 성옥자 씨 여행

소지현

## 성옥자 씨와 여행 소개

성옥자 씨는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힘이 있으십니다. 요리를 잘하시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취미로 공방, 노래교실,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은 성암교회에 예배하러 갑니다. 교회는 한글학교 회원의 소개로 등록하셔서 같이 다니고 계십니다. 성옥자 씨는 이렇게 본인만의 일상으로 둘째 사람과 어울리며 한 주를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에 성옥자 씨의 여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성옥자 씨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시지만 여러 이유로 여행 경험이 적으십니다. 성옥자 씨에게 ‘여행’을 여쭙보니 제일 먼저 바다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으면 1박 2일은 그곳에서 머물다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여행은 바람이자 꿈 같습니다.

성옥자 씨는 글과 숫자를 모르십니다. 택시는 종종 이용하셨지만 시내 버스를 이용해본 적은 없으십니다. 처음 가는 타지 여행만큼이나 처음 타보는 버스 경험도 설레실 것 같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여러 번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일상으로 이어지면 성옥자 씨의 삶이 더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성옥자 씨는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이 즐거울 겁니다. 뜨거운 여름도 옷어넘길 만큼 재미있을 겁니다. 유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성옥자 씨와의 여행을 함께할 열정 있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성옥자 씨 전담 사회사업가 박선영

## 인사와 호칭

면접 날에 성옥자 씨를 처음 만났고 오늘은 출근해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카페에서 성옥자 씨를 기다렸는데 멀리서 저를 보고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창가라서 덥진 않으세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저기로 앉을까? 음료도 한 잔 더 시켜요.”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는데 덥지는 않으셨어요?”

“겁나게 더워요.”

“더우셨죠? 오는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병원에서 검사받을 것도 있고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병원에 사람이 많았나 봐요.”

“사람 많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혼자 잘 지내요. 요리도 잘해 먹어요. 공방도 가고요.”

“오늘은 공방에서 어떤 수업 하셨어요?”

“도자기 만들었어. 안에 꽃도 붙여 봤어. 전에는 잘 못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어. 이제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선생님, 나중에 도자기 구워지면 저도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야지. 다음에 우리 집에 와. 다른 것도 보여줄게.”

“저 선생님 집에 가봐도 돼요?”

“당연하지. 놀러 와. 집 예쁘게 꾸며놨어. 화분도 있어요.”

“화분 몇 개 있으신 거예요?”

“10개 있어요.”

“집에서 요리도 하시고, 만드는 것도 하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 할 일이 많으시네요.”

“바빠요. 저녁에는 산책해요. 많이 걸어요. 오후에 4시쯤 나와서 저기 군산하굿둑까지 걸어요.”

“오와~ 하굿둑까지 걸어가세요?”

“가면 사람이 많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도 많이 걸어요. 마을에도 걷는 길이 있는데 저녁엔 하굿둑으로 걸어요. 아~ 참, 저번에 술빵은 잘 먹었어?”

“안 그래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복숭아랑 바나나랑 넣고 갈았어요. 갈아서 넣고 밀가루를 더 넣어야 해. 나도 텔레비전 보고 해봤어요.”

“선생님 정성이 가득 들어가서 더 맛있었나 봐요.”

면접 날에 성옥자 씨가 직접 만드신 술빵과 꿀물을 챙겨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면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옥자 씨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제 소개를 하기도 전에 일상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번 여름에 함께하게 된 소지현이라고 합니다.”

“소지현!”

“면접 때 선생님께서 국화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 드리면 좋을지 여쭙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불러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성옥자라고 불러요.”

“혹시 성옥자 씨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국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

“국화 선생님! 당연히 국화 선생님이 좋지.”

“익산에 있을 때도 ‘성옥자 씨’라고 하면 ‘국화 선생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했어.”

“그러면 앞으로 국화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려 좋지. 이것 좀 먹어.”

“네 먹을게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성옥자 씨가 케이크를 한 숟가락 떠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박선영 선생님께도 건네셨습니다. 국화 선생님과 인사하며 다양한 강점을 발견합니다. 앞으로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의 일정을 기억하고 여쭙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옥자 씨의 당당하고 기분 좋은 표정이 그려집니다. 성옥자 씨가 잘하시는 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릴 둘째 사람이 많아 바쁘겠어요. 힘내세요. 박선영  
성옥자 씨와 정식으로 인사했네요. 국화 선생님! 성옥자 씨와 호칭을 정리했다

니 고맙습니다. ‘국화 선생님’ 호칭이 주는 힘이 있을 겁니다. 소지현 선생님을  
대하는 성육자 씨의 태도가 그러하겠고, 성육자 씨를 대하는 소지현 학생의 태  
도가 그러하겠지요. 성육자 씨와 함께하는 단기사회사업을 응원합니다. 오광  
환

## 둘레 사람 소개

“선생님, 평소에 만나거나 연락하시거나 왕래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궁금한데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럼. 소개해줄게.”

“어떤 분들 있으세요?”

활동지원사 선생님 두 분의 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질문에 덧붙여  
박선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다니시죠. 그 두 분 말고도 공  
방 선생님, 목사님처럼 연락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소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지. 도자기공방 선생님, 뜨개공방 선생님, 한글학교 선생님,  
권사님도.”

“선생님, 둘레 사람이 많아서 한 번에 말씀하시려니깐 기억이 안 나시  
죠? 목사님, 노래교실 선생님도 계세요.”

“그렇지. 노래교실을 지금은 안 다니니까 생각이 안 났어.”

둘레 사람이 많아 손가락을 접으며 한 분씩 떠올리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분에게 저를 소개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럼 소개해줘야지.”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뜨개 공방 가고, 화요일에 한글학교 가고, 수요일에 교회 가실 때 저도 동행하고 싶은데 그때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인사드리면서 이번에 여행 가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그래 와요. 소개해줄게.”

“선생님, 그러면 일요일에 교회 가서서 목사님께 수요일에 시간 내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월요일에 한글학교 가실 때 화요일에 학생이 와서 인사해도 되는지 여쭙봐 주실 수 있으세요?”

“응. 내가 여쭙볼게요.”

“선생님,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삼례에 사는 언니랑 부산에 사는 흥남이! 남동생도 있는데 서울 살고.”

“국화 선생님 가족분들께도 전화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지.”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삼례에 사는 언니랑 부산 사는 여동생 말고 남동생분들도 전화로 소개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내가 번호 다 있으니깐 전화하면 돼. 남동생도 전화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누나니깐 지켜주겠다고.”

성옥자 씨가 가족 이야기를 하시니 말수도 늘고 잘 웃으셨습니다. 남동생이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신 걸 보니 우애가 느껴졌습니다. 둘레 사람 소개와 관련한 질문에 성옥자 씨는 본인이 소개해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실습생 소개를 성옥자 씨의 일로 여기셔서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소지현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지요. 돌레 사람에게 실습생을 소개하는 일을 성욱자 씨의 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부산 여행 가는 일을 두고 의논할 돌레 사람이 많네요. 군산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돌레 사람이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돌레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 생동 개선 강화 되길 기대합니다. 전유나

### 여행 의논① 바다!

“국화 선생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의논하려고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여줘요.”

“산과 바다예요. 산과 바다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바다!”

“왜 바다가 더 좋으세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밖에 안 가 봐서요.”

“바다에 가셨을 때 좋으셨어요?”

“좋았어.”

“저도 바다가 더 좋아요!”

“그렇지!”

성욱자 씨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바다’라는 말쑈에 저도 그렇다고 대답하니 기쁘신 듯했습니다.

“좋았는데 그때 무릎이 아팠어. 전주 갔을 때도 한복 입었는데 그때도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어. 근데 사진 많이 찍었어. 사진 보여줄게.”

“선생님, 사진 진짜 많이 찍으셨네요! 이때 좋으셨어요?”

“좋았어. 사람도 많았어. 외국인이 많았어. 다 한복 입고.”

“선생님, 제가 이번에 부산 여행하면서 사진 많이 찍어드릴게요.”

“같이 갔던 선생님이 나 천사래. 그래서 그랬나 무릎 아파도 말 안 하고 참았어.”

“선생님을 천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부산 여행 가서는 무릎이 아프시거나 피곤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할게요. 안 참고 얘기할게요.”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소지현

당사자와 의논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지요. 첫날인데 여행 의논을 앞두고 사진을 미리 준비했다니 고맙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을 뿐인데 성욱자 씨의 추억 이야기까지 이어졌네요. 준비한 만큼 당사자를 잘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영광

1시 30분에 와요

“선생님께서 집에 놀러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부산 여행 의논하면서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선생님 집으로 가도 될까요?”

“와요. 커요. 방이 하나인데 서랍장, 텔레비, 냉장고 다 있어.”

“선생님 그러면 내일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으세요?”

“점심쯤에.”

“점심에 몇 시가 좋으세요?”

“1시!”

박선영 선생님이 성옥자 씨의 일정을 확인하여 만나는 시간을 조정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전 일정 보내시고 점심도 드셔야 하니 1시 30분은 어떻게요?”

“그려. 그럼 1시 30분에 와요.”

내일 약속을 정하고 성옥자 씨가 휴대폰을 켜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을 소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께 전화하셨고 잘 들리게 스피커 기능을 켜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내일 다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선생님께 전화가 오면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국화 선생님, 내일 1시 30분에 집에서 백요!”

“그래요. 오늘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성옥자 씨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제게 먼저 안부도 여쭙보시고 다양한 일로 어른 노릇하셨습니다. 강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성옥자 씨가 여행의 주인 되게, 둘레 사람과 여행을 구실로 어울려 살게 잘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의 바쁜 일정을 살펴 미리 내일 만남을 준비하니 고맙습니다. 오광환

## 집 초대

성옥자 씨가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지만 긴장했습니다. 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잘 물을 수 있을지 궁리하며 성옥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서둘러 동호수를 찾아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학생이에요?”

“네!”

“초인종을 누르지 그랬어요. 그러면 열어줬을 텐데.”

“다음에 오게 되면 그때는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를게요!”

잘 반겨주고 싶으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옥자 씨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이부자리를 한 번 더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좌식 식탁을 꺼내며 편하게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가 냉장고에서 당근주스와 블루베리를 꺼내주셨습니다. 빵도 접시에 옮겨 담아 식탁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려. 학생 온다고 사 온 빵이에요.”

“저 온다고 사 오신 거예요?”

“응.”

“주스는 저번에 내가 빵 만든 거 가져다줬더니 고맙다고 음료수 준 것이고, 블루베리는 우리 선생님이 사 온 거고 빵은 내가 사 온 거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집 좋죠?”

“네!”

“집 크죠?”

“네. 선생님 집 크고 넓어요!”

“저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다 만들었어요.”

성옥자 씨가 만든 작품이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물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랑하셨습니다.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건 종이로 동그랗게 해서 꽃으로 만든 거고, 액자는 익산에서 만든 건데 직접 만든 거예요. 시계도 여기에 있어요. 이 건 조명 이렇게 켜서 거는 거예요. 이거 수세미는 선생님이 주신 거야. 이 액자는 목사님이예요. 짧어요. 착해요.”

서랍장 위에 물건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농도 내가 산 거예요. 서랍장이랑 침대랑 에어컨도.”

“행거는 이미정 선생님이 준 거야.”

“이거 청소기는 민수가 사준 거야. 며칠 전에 와서 자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청소하니깐 무릎 아프다고.”

“이거 이불은 윗집에 권사님이 준 거야. 자기 이불 많다고 나 덮으라고. 어서 빵 먹어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성욱자 씨가 포크로 빵 하나를 집어 주셨습니다. 저보다 어른이시니 먼저 드시라고 제안했으나 저부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을 잘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서 어른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족, 공방 등 둘레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 1시간 3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거 감자는 어때?”

“감자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땅콩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꼬슉고 맛있어.”

“평소에 밥도 다 해 먹어. 깻잎장아찌도 직접 담궜어. 반찬도 좀 먹어볼래?”

“좋아요!”

“이것 좀 먹어봐.”

“선생님, 깻잎장아찌가 정말 맛있어요. 양념이 달짝지근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 나 요리 잘해. 마늘쫑장아찌도 좀 먹어봐.”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내가 싱겁게 만들어서 딱 맛있어.”

“그러니깐요. 간이 기가 막혀요. 정말 맛있어요.”

“난 원래 요리해서 많이 나눠 줘요.”

제 답변을 들으시며 웃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요리하면 둘레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윗집에 사는 권사님과 식사도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성옥자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옥자 씨는 어른이기에 은근히 높여 간접 칭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직접 칭찬하는 모양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칭찬이 아닌 간접 칭찬으로 어른다움을 더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옥자 씨가 집 소개해주셨습니다. 집안에 성옥자 씨의 삶과 둘레 사람의 이야기가 풍성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어떤 이야깃거리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기대하며 잘 지원하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소지현

합동연수에서 공부했던 칭찬의 기술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실천했다니 멋집니다. 칭찬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요. 성옥자 씨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반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성옥자 씨가 집에 초대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집안이 둘레 사람과의 추억과 인정으로 가득하네요. 성옥자 씨가 때마다 소지현 선생님을 챙기고 살피주셨네요. 성옥자 씨의 말씀에 경청하며 세심하게 반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여행 의논② 해운대로 가요

“선생님, 오늘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그래. 해야지.”

성옥자 씨가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의논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저도, 성옥자 씨도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일에 의논해야 할 일을 서로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적은 메모를 보면서 의논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달에 미용실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지난 달에 갔다 왔어.”

“여행 전에 미용실에 한 번 더 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어. 흰머리 또 나면 가야지.”

“미용실에서 어떤 거 하셨어요?”

“파마했어. 2만원 주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저렴하네요?”

“원래 다른 데 갔는데 4만원 주라고 하는 거야. 다른 데도 3만원 주라고 하고. 근데 이 미용실을 어떤 분이 소개해준 거야. 그래서 갔지.”

“소개받아서 가셨군요. 좋은 미용실 소개 받으셨네요.”

“좋아.”

“선생님, 부산에서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찜질방. 익산에 살 때 가봤어. 그때 소금방 들어갔다가 이렇게 찬물 끼얹어.”

“그때 좋으셨어요?”

“좋았어!”

“찜질방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산 가서 찜질방 같이 가요. 선생님, 식

해도 좋아하세요?”

“식혜 좋아해요.”

“찜질방 가서 소금방 들어갔다가 식혜 먹는 거 어때요?”

“좋아.”

성옥자 씨는 찜질방이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익산에 살 때 찜질방에 갔던 추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 여행하며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여쭙었을 때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인터넷에 검색하며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좋다고 하시며 태블릿PC를 켜줍니다. 기기 다루는 걸 어려워하셔서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부산에 유명한 바다는 해운대와 광안리가 있어요.”

“다 좋아요.”

“광안리보다 해운대가 좀 더 유명하긴 해요. 어디가 좋으세요?”

“그러면 해운대로 가요.”

“요트도 탈 수 있대요. 근데 별로 안 비싸요. 인당 만 원 정도예요.”

“좋아요.”

“전망대도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성옥자 씨가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셨습니다. 사진을 보며 갈 곳을 정했습니다. 찜질방, 해운대, 용궁사, 국제시장까지 가기로 했고 둘레 사람에게도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부산 가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피자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잘 먹어요.”

“부산에 피자 유명한 곳도 있어요. 거기 가볼까요?”

“좋아요. 근데 피자 조금 좋아해요.”

“그러면 다른 거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밥 조금 좋아해요. 많이 안 좋아해요.”

“그러면 밀면도 있어요. 면은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깐.”

“그렇죠. 그러면 밥을 더 좋아하세요?”

“조금 좋아해요.”

여행지를 여쭙었을 때 모든 곳이 다 좋다고 하셔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조금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가고 싶은 곳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옥자 씨만의 표현 방법을 의논하면서 알아갑니다.

“부산 갈 때는 뭐 타고 갈까요?”

“기차 타고 가야지. 한 번 타봐서 기차가 나아요.”

“그러면 군산에서 언제 출발할까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으세요?  
점심쯤 출발하는 게 좋으세요?”

“안 더울 때 가는 게 좋지.”

“그래요. 오늘 의논할 건 다 끝났어요. 여행 가는 거 기대되세요?”

“기대돼요.”

“저거 캐리어 가방도 샀어.”

“여행 갈 때 쓰시려고 가방 사셨어요?”

“응. 화장품 가방도 담아가야지.”

“좋아요.”

의논하는 내내 성옥자 씨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대된다  
는 말씀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여행지  
도 추천받으며 성옥자 씨가 준비 잘하시도록 거두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가 여행지를 검색할 때도 직접 하시도록 세워드리니 고맙습니다. 계  
획이 즐겁게 진행되니 좋습니다. 여행지를 결정하기 전에 부산 동생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구실로 성옥자 씨가 자주하는 일  
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박선영

여쭙보면 본인이 경험하고 누렸던 이야기를 잘 나눠주시는 게 성옥자 씨의 강  
점이에요. 덕분에 계획이 수월합니다. 대화하며 ‘조금’이라는 단어가 성옥자  
씨에게 어떤 기준인지 찾으려고 궁리했다니 대단합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의  
주인 되게 세우려는 뜻이 분명하네요. 오광환

## 가족 소개

성옥자 씨가 삼례에 사는 언니, 부산 사는 여동생, 서울 사는 남동생에  
게 전화해서 저를 소개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국화 선생님, 오늘 가족에게 저를 소개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전  
화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그래. 근데 바빠서 받을까 모르겠네.”

성옥자 씨의 언니와 여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서울 사는 남동생  
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영식아. 누나야. 나 부산 여행 가잖아.”

“부산 여행은 언제 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제게 전화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부산 여행 같이 가기로 한 실습생 소지현입니다. 부산 여행 소식도 전하고 제 인사도 드리려고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네네.”

“부산은 다다음 주 15일에서 17일까지 2박 3일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부산 사는 동생한테도 전화해봤나요?”

“통화가 끝나면 다음으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날짜를 동생한테 전해 줄게요.”

“네! 혹시 부산 여행지 추천해줄 곳 있으세요?”

“추천? 그래도 동생이 부산에 사니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여행 가기 전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식아! 누나가 부산 여행 잘 갔다 올게.”

“누나. 흥남이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잘 갔다 와.”

“어.”

남동생과의 통화가 정겨웠습니다. 부산 여행을 구실로 소식 전하는 게 여느 남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다른 가족은 다음에 통화해봐요. 그때는 선생님께서 저를 소

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소개해줄게.”

“가족에게 부산 여행 가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는 건 어때요?”

“그럼. 보내 줘야지.”

“가족이 많으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카카오톡 있으세요?”

“있어.”

“나중에 다른 가족과 통화할 때 여쭙보고 단톡방 만들어서 저희 여행 계획도 알려드리는 거 어때요?”

“그래그래. 좋아.”

성옥자 씨가 부산 여행을 기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동생과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두 번째는 부산 여행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성옥자 씨의 기대하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 기대가 부산 여행을 준비하는데 큰 강점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소지현

매번 느끼지만 성옥자 씨의 7남매는 우애가 좋습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정겹습니다. 여행 계획에 가족 단체채팅방을 제안하며 의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소식 전할 수 있도록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지현 선생님과 성옥자 씨가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풍성하고 좋아요. 소지현 선생님이 잘 듣고, 여쭙는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부산 여행이 온 가족에게 연락하고 소식 전하기 좋은 구실이네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살피는 모습을 보니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네요. 부산 여행이 가족과

여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네요. 기대합니다. 오광환

## 뜨개공방 선생님께 인사와 소식

공방에 들어가는 성옥자 씨를 뜨개공방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뜨개공방 이야기를 나누시다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같이 부산 여행 가는 학생이에요.”

“그래? 반가워요.”

“선생님, 부산 가보셨어요? 어디가 좋아요?”

“가봤는데 나는 계획을 다 짜준 대로 갔었지!”

“바다에 가보셨어요? 물 담그셨어요?”

“바다는 안 가보고 다른 데만 갔던 것 같아.”

“그렇죠. 더운 건 저도 싫어요.”

“낮엔 바다에 가기 힘들 것 같고 밤에는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저녁에 걸어요. 강, 하굿둑.”

둘레 사람과 대화하니 자연스럽게 계획이 그려집니다. 뜨개공방 선생님이 부산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여행지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뜨고 있는 목도리를 동생에게 준다고 하니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여행을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도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가 여행을 구실로 둘레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선영

성옥자 씨가 뜨개공방 선생님께 소지현 학생을 소개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여행지 추천해주신 뜨개공방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여행이 이야기 나누기 좋은 구실이네요. 오광환

## 권사님께 인사와 소식

같은 아파트 7층에 권사님과 친하게 지낸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제 소개를 부탁드리며 여행 소식도 전하면 어떨지 여쭙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 전화하니 지금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앞장서서 권사님 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성옥자 | “같이 부산 여행 갈 학생이에요”

권사님 | “부산 여행은 언제 가?”

성옥자 |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요.”

권사님 | “이번 주?”

소지현 | “다음 주 15일부터 17까지 다녀와요!”

권사님 |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예배에 가겠네.”

성옥자 | “예배에 가요. 권사님은 부산 가보셨어요?”

권사님 | “난 부산 안 가봤어.”

성옥자 | “안 가 보셨어요?”

박선영 | “그러면 선생님께서 갔다 오셔서 얘기해주시면 되죠.”

성옥자 | “그러면 제가 부산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요.”

권사님 | “그래요.”

권사님께서 성옥자 씨에게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덕담해주시며 여행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편하게 여행 소식 전할 권사님, 이웃이 가까이 계시니 든든했습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가 여행을 구실로 둘레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불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선영

권사님 덕으로 함께 갔군요. 학생 인사 시킨다고, 여행 소식 전한다고 하니 집으로 초대해 주신 권사님께 고맙습니다. 권사님의 응원이 성옥자 씨가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오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광환

### 여행 의논③ 일정 정리

성옥자 씨와 의논했던 일정을 그림이 들어가 있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화 선생님, 저번에 둘레 사람 인사랑 부산 일정 의논했잖아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일정을 설명해 드리며 부산 동생에게 여행 계획을 보내드리는 건 어떤지 여쭙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산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전화했는데 일하시느라 통화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옥자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기회가 되면 제가 대신해서 만나는 일정을 조율해도 괜찮은지 여쭙니 동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에 쇼핑하러 갈 때 시내버스 타보면 어떨까요?”

“타 봐야지. 여행 가서 기차 타고 버스 타려면.”

“부산 여행하며 사진 찍고 가족에게 보내는 거 어때요?”

“보내 줘야지. 사진 보내주려고 했어. 궁금하잖아.”

성옥자 씨와 의논하여 가족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는데 부산 동생을 만나면 여쭙보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면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시고 여행지 추천해주신 둘째 사람에게 감사인사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래야지. 베지밀이라도.”

성옥자 씨는 권하지 않더라도 하려 했던 일이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평소에도 음식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받은 게 있으면 보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7월 일정은 끝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거 일정표 어디에 붙여 둘까요?”

“여기가 좋아요.”

성옥자 씨가 테이프와 가위를 꺼내주셨습니다. 테이프를 종이에 붙이는 건 거들어드렸고 냉장고에 붙이는 건 성옥자 씨가 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차 승차권 예매만 하는 거 어떠세요?”

“그래요.”

“선생님, 바로 집 옆에 있는 군산역에서 8시 22분에 출발해서 부산에 12시 40분쯤 도착하는 거 괜찮으세요?”

“그래요. 좋아요.”

“돌아오는 건 점심쯤 출발해서 오후 5시쯤 도착하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기차표 예매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준비의 반은 끝난 것 같습니다. 부산 여행이 성옥자 씨의 일이 되길 바라며 거들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시니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 덕분에 여행 준비에 걱정이 없습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소지현

여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습니다. 소지현 선생님이 애쓴 덕분입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 복지를 스스로 이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신이 나서 응대하시는 모습이 몽클하고 좋았습니다. 소지현 선생님이 성옥자 씨가 자주할 수 있도록 궁리하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주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성옥자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옥자 씨가 하시게 돕고, 같이 하거나 대신할 때도 성옥자 씨에게 이야기하여 동의하에 거들고 심부름하는 모양새에게 했네요. 여행 준비를 성옥자 씨의 일로 도우려는 뜻과 방법이 귀합니다. 오광환

## 한글학교 선생님께 인사와 소식

한글학교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한글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 | “실습하러 오신 거고, 집이 주변인가 봐요?”

소지현 | “네. 본가가 익산이에요.”

성옥자 | “학생이 익산에서 왔어요.”

성옥자 씨가 자연스레 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일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여쭙보셨습니다. 둘레 사람에게 인사드리고 여행 소식도 전하러 동행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 “여행은 언제 가세요?”

소지현 | “국화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옥자 | “다음 주에 부산 가요.”

선생님께서 달력을 보며 정확한 날짜를 여쭙보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기억하지 못하셔서 작은 목소리로 알려드렸습니다. 성옥자 씨가 선생님께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 “그러면 다음 주는 월요일만 오시고 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못 오시겠네요.”

성옥자 | “네.”

선생님 | “부산에는 누구랑 가요?”

성옥자 | “학생이랑 박선영 선생님이랑요.”

선생님 | “부산은 누가 가져가고 한 거예요? 박선영 선생님이요? 성옥자 씨가요?”

성옥자 | “박선영 선생님이랑 제가 정했어요.”

선생님 | “부산은 왜 가는 거예요?”

성옥자 | “가서 바다도 보고 부산에 여동생이 있어서. 학생이랑 같이 부산 여행 가요. 소지현 학생이요. 학생이랑 같이 정했어요. 부산에 유명한 시장도 갈 거예요.”

선생님 | “부산 여행 가려면 숙소도 예약해야 하고, 숙소에 가면 샴푸랑 린스 없는 곳도 있으니깐 그런 것도 준비해야겠네요?”

성옥자 | “준비해야죠. 집에서 가져갈 거예요.”

소지현 | “국화 선생님, 저희가 부산 여행 준비한 거 있잖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옥자 | “화장품은 제거 가져가고, 옷도 사야 해요. 안 비추는 검은색 티 사려고요. 학생이랑 이마트 가서 살 거예요.”

선생님 | “이마트 2층 가시는 거예요?”

성옥자 | “네. 2층에서요.”

선생님 | “여행은 준비하는 게 재미예요.”

성옥자 | “네.”

선생님 | “그러면 제가 부산에 가면 좋을 곳들 생각해 보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거 같이 노트에 써봐요.”

성옥자 | “네.”

여행 응원카드를 성옥자 씨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응원카드는 부산 여행에 왜 가는지, 왜 여행지를 추천받고, 둘레 사람에게 응원받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드입니다.

소지현 | “선생님이 언제 부산 여행 가시는지, 왜 부산 여행 가시는지, 둘레 사람들에게 여행지 추천과 응원받고 싶다고 함께 의논한 내용을 담은 카드를 준비해 왔어요. 이걸 선생님께 드리는 건 어떨까요?”

성옥자 | “괜찮아요.”

# 국화선생님이 부산 여행을 가요!



다음 주 7/15~17에 가요!  
부산 여행 잘 다녀 올게요~



안녕하세요. 국화선생님이 다음 주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부산 여행에 가기로 했어요.  
부산은 국화선생님께서 여름 여행 가실 겸 부산에 사시는 여동생분을 뵈러 가요.  
선생님들은 부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기대되는 여행인 만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곳 구경하고 싶어요.  
추천해 줄 곳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없으시더라도, 응원의 한마디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천하는 곳

좋았던 곳 있으세요?  
맛있었던 곳 있으세요?

씨라이프 야쿠아룸이라는 곳에  
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속의 신비로움이 놀라운 곳  
이에요.  
사진 찍을 곳도 많구요.  
다음 날 시원한 실개에서  
재밌게 보낼수 있을거예요.

## 응원의 한마디

여행을 간다는 건 항상  
설레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국화씨의 부산 여행을 설레임과  
즐거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같이 가는 선생님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 주세요. 다녀오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 한글학교 선생님이 써 주신 응원카드 >

선생님께 카드를 드렸습니다. 다음 수업할 때 성옥자 씨에게 건네주시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카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권사님께도 카드를 드리면서 여행 소식 전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 가져가시겠어요?”

“2개만 가져갈게.”

성옥자 씨는 무언가 제안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큰 강점입니다. 본인 일로 여기시는 게 고맙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직접 여행 소식 알리고 응원받는 기쁨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소지현

“박선영 선생님이란 제가 정했어요.” 성옥자 씨의 당당한 모습이 상상됩니다. 성옥자 씨의 일로 묻고 의논해주신 한글학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을 구실로 둘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소지현 선생님 덕분에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한글학교 수업하는 날에 동행해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여행도 의논하니 고맙습니다. 여행 소식을 전하니 선생님도 수업 일정을 확인하여 조정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주고받을 응원카드도 만들었군요. 여행지 추천과 응원 글을 쓸 수 있는 엽서라고 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 지원하니 고맙습니다. 영광환

## 성암교회 목사님께 인사와 소식

성옥자 씨가 다니는 성암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여행 소식을 전하기

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목사님께 인사드리자마자 카드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거 써 주세요.”

“성옥자 씨 부산 여행 가세요?”

“네. 목사님은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은 두 번 가봤어요.”

성옥자 씨가 여행 소식 전하니 목사님이 여행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해운대, 국제시장, 유명한 떡볶이집과 빵집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목사님 | “돈은?”

소지현 | “성옥자 씨가 여행 가길 원하셔서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서요.”

목사님 | “성옥자 씨 음식을 가리시잖아요.”

성옥자 | “안 가려요. 적게 먹는 것뿐이지.”

문해숙 | “선생님께서 소화가 어려우셔서요.”

목사님 | “그러면 맵고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추천해드려야겠네요?”

성옥자 | “네.”

목사님 | “저는 부산 가서 어묵 맛있게 먹었어요, 떡볶이도 먹고요. 군산에 유명한 잡채랑 비슷한 것도 먹었어요. 여행 가서 그 지역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뭐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소지현 |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목사님 | “지금 날씨가 더운데 택시 타고 가서 그 근처로 둘러보면 좋겠네요.”

목사님 | “그래도 성옥자 씨가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성옥자 | “좋아해요. 저녁에도 맨날 하긱둑 걸어요.”

목사님 | “거기 맨발로 걷는 곳도 있잖아요.”

성옥자 | “맞아요! 우리 문해숙 선생님이랑 해봤어요.”

목사님 | “안 아프셨어요?”

성옥자 | “안 아파요.”

목사님 | “여행 기대되세요?”

성옥자 | “기대되죠.”

목사님 | “학생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소지현 | “저는 실습으로 오게 됐어요. 국화 선생님이 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옥자 | “학생이에요. 소지현 학생이에요. 같이 부산 여행 가요.”

성옥자 씨가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제 둘레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습생 | “국화 선생님, 저희 부산 여행 일정으로 어디 가는지 목사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옥자 | “바다 구경하고, 카페 가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 | “오, 좋네요.”

문해숙 |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뜨끈한 곳.”

성옥자 | “아~ 찜질방 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 “여행은 기관에서 가시는 건가요?”

소지현 | “성옥자 씨가 원해서 가시는 여행이고, 성옥자 씨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산은 성옥자 씨 혼자서 가시는 거예요?”

소지현 | “저랑 성옥자 씨랑 같이 가요.”

성옥자 | “박선영 선생님을 빼먹으면 안 되지. 박선영 선생님한테 부산에 사는 여동생 소개해주려고요.”

목사님 | “아 그러시구나.”

성옥자 | “부산에 여동생이 살거든요. 여동생이 부산에서 마사지해요.”

목사님 | “그러면 부산 일정 중에 마사지하는 것도 넣으면 되겠네요.”

성옥자 | “다음에 같이 서울도 가요. 서울에 동생들이 살거든요.”

목사님 | “기억력이 좋으세요. 성옥자 씨 장점이에요. 앞으로 즐거운 인생만 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산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옥자 | “즐겁게 보내고 올게요.”

목사님 | “그러면 부산까지는 어떻게 가세요?”

성옥자 | “기차 타고 가요.”

목사님 | “부산까지 바로 가는 기차가 있나요?”

소지현 | “군산에서 천안아산역으로 가서 환승하고 부산으로 가요.”

목사님 |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 가야 하는 거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소지현 | “4시간 걸려요. 군산에는 KTX가 정차하지 않아서 천안아산역까지는 새마을호를 타야 해서요.”

목사님 | “그러면 제가 15일 아침에 익산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 익산역

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다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성옥자 | “좋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 “이런 게 제가 하는 일인걸요.”

목사님과 당일에 성옥자 씨 집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기차표 예매 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 “학생은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소지현 | “네! 제가 선생님 따라갈게요.”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둘레 사람을 만나며 부산에 대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니 성옥자 씨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사업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돕는 뜻과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을 성옥자 씨가 잘하셨습니다. 실습생이 도울 일이 적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성옥자 씨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소지현

이번 여행에 성옥자 씨의 몫이 많네요. 성옥자 씨의 삶이니 그래야지요. 때마다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살피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은 소지현 학생의 마음가짐이 성옥자 씨의 삶에 변화 발전으로 나타나네요. 고맙습니다. 박선영

목사님께서 익산역까지 데려다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여행 소식 전하길 잘했네요. 성옥자 씨가 교회 성도이니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로 잘 돕고 싶으셨겠지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의 실제, 성옥자 씨와 목사님이 이뤄가는 여행 복지가 그러하네요. 오광환

## 여행 의논④ 기차 오래 타는 게 좋지

“기차표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기차를 찾아보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기차를 갈아타는 동안 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다른 하나는 기차를 더 오래 타는 대신에 갈아타는 시간이 짧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기차 오래 타는 게 좋지.”

“역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기차에 계신 게 더 좋으신 거죠?”

“네. 그게 좋아요.”

성옥자 씨가 선택하신 대로 기차표를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예매할 때 필요한 카드를 부탁드렸습니다. 직접 예매가 어려우시니 대신 입력해도 되는지 여쭙고 예매했습니다.

“선생님, 숙소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좋겠는데 마우스로 넘기며 보여 드리는 건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넘겨봐요.”

성옥자 씨에게 화장실, 방, 로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크기, 위치, 침대 개수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도 괜찮네. 작은 침대에서 내가 잘게.”

“아니에요. 작은 침대는 제가 잘게요. 선생님은 큰 침대에서 주무세요.”

“여기 괜찮네. 여기 할까?”

성옥자 씨가 정하신 숙소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저렴한 가격, 바다 풍경, 침대 두 개.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성옥자 씨가 원하시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본인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 주셔서 예약이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산 여행은 이미 성옥자 씨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옥자 씨가 행복해 보이십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에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본 좋은 설렘이 되었네요. 그래서 가족 여행도 설레며 기대하고 계시겠고요. 성옥자 씨의 삶에 시선을 두고 의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미리 예매한 기차 시간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사회사업가의 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옥자 씨의 삶으로 지원하니 자연스레 계획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 성옥자 씨가 의논하면서 분명하게 표현하시니 숙소 선택도 편안하네요. 여행 준비도 성옥자 씨의 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여행 의논⑤ 국제시장 가야지

성옥자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한글학교 선생님, 한글학교 반장님, 권사님이 써 주신 응원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학생, 이거 봤어?”

“네! 뭐라고 써 주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너무 궁금했어.”

성옥자 씨는 글씨체만 보고도 어떤 분이 주셨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카

드름 소리 내어 읽어드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성옥자 씨가 웃으셨습니다. 기쁨, 고마움, 감동이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 안에 담긴 응원의 말씀이 부산 여행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둘레 사람이 추천해주신 여행지가 많습니다. 성옥자 씨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2박 3일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표를 직접 작성하고 싶으신지 제가 대신 작성할지 여쭙었고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적기만 할게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선생님, 둘레 사람들께서 추천해주신 곳이 많잖아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해운대, 용궁사, 짬짬방, 국제시장, 용두산 공원, 수족관.”

“좋아. 거기 다 가자. 근데 낮엔 더운 게 밤에 나와야지.”

“그러면 낮에는 실내 일정으로 짜볼까요?”

“그래그래.”

“그러면 첫날부터 천천히 일정을 넣어볼까요?”

“그래그래”

“저희 첫 날에 어디 역에서 출발하죠?”

“익산역.”

“익산역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면 12시 46분에 도착하네요.”

“그러면 도착해서 바로 점심을 먹을까?”

“좋아요. 뭐 먹을까요?”

“그러게, 뭘 먹을지 모르겠네.”

“선생님께서 저번에 피자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깐 부산역 근처에 유명한 피자집이 있더라고요. 피자는 어떠세요?”

“그래, 피자 먹자.”

“피자집이 인기 있어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자집에 가서 대기 번호를 받고 주변 국제시장을 구경하는 건 어때요? 국제시장은 목사님도, 뜨개공방 회원님도 추천해주신 곳이에요.”

“그래그래. 국제시장 가야지.”

“국제시장에서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떡볶이랑 어묵.”

“선생님, 근데 점심으로 피자 먹어야 해서 간식은 조금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피자도 남으면 포장해서 먹으면 되니깐 중간중간에 먹으면 되지.”

“그렇죠.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먹고 그럴까요?”

“그래그래.”

“점심 먹은 뒤에는 뭐할까요?”

“쉬어야지.”

“그러면 숙소 가서 설까요?”

“그래, 숙소 가서 쉬자.”

“꼭 쉬고 나서 뭐 할까요?”

“찜질방! 꼭 쉬었으니깐 찜질방 가야지.”

“그럴까요?”

“찜질방 갔다 와서는 어디 갈까요?”

“산책해야지.”

“그러면 바다 산책할까요?”

“좋아. 그러자. 그리고 돌아와서 10시에 잠잘 준비 하자.”

“좋아요.”

“선생님, 평소에 아침 드세요? 안 드세요?”

“아침은 먹어요.”

박선영 선생님이 성옥자 씨에게 아침으로 빵이 좋으신지, 밥이 좋으신지 여쭙었습니다. 성옥자 씨는 밥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은 숙소 주변에 식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는 쉬는 게 좋으세요? 오전 일정을 하는 게 좋으세요?”

“쉬어야지. 피곤하니깐. 점심에 동생 흥남이도 봐야 하고.”

“좋아요!”

“점심부터는 동생이랑 보내니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하게.”

“좋아요. 선생님 동생분이 일정 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저녁 이후 일정만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저번에 해운대 가서 요트 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녁에 요트 타는 거 어때요?”

“그래. 요트 타자.”

“선생님, 요트 타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낮에 타는 건 만원이 싸고, 밤에 타는 건 만원이 비싸요. 밤에 타면 야경을 볼 수 있

어서 더 예쁘고 볼꽃놀이도 볼 수 있어요. 만원 짝게 나오세요? 더 예쁘게 좋으세요?”

“더 예쁜 걸로 봐야지. 볼꽃놀이도 봐야지.”

“그러면 밤에 봐요. 저녁밥을 먹고 요트를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요트 타면 바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바다 싹 봐야지. 예쁘겠어.”

“마지막 날은 12시 51분에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야 해요. 오전에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좋으세요?”

“해야지. 어떤 거 할까?”

“한글학교 선생님이랑 뜨개공방 선생님께서 수족관이랑 아쿠아리움을 추천해주셨는데 거기 가는 건 어떠세요?”

“그러자.”

“그렇게 하고 점심 먹은 뒤에 군산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군산에는 5시쯤 도착해요.”

“그래그래.”

“선생님, 이제 부산 여행에서 드는 비용은.”

“비용이 뭐야?”

성옥자 씨가 비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박선영 선생님과 제가 의논하며 성옥자 씨에게 바로바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일정마다 필요한 비용은 얼마이며 때마다 사용할 금액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옥자 씨에게 여쭙고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선생님, 아쿠아리움은 할인해서 이만 원이에요.”

“그래, 좋아요.”

“선생님, 여행 가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할 일을 정하는 거 어떠세요?”

“그래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행 처음 가보니까.”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부산에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오르내릴 때 카드를 찍잖아요. 제 카드는 제가, 선생님 카드는 선생님이 직접 찍으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계산하는 것도 선생님 것은 직접 카드 꺼내서 계산하는 건 어떠세요?”

“그래야죠. 내가 계산해야죠.”

성옥자 씨가 여행하시면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길 바랐습니다. 할 일이 많은 여행이길 바랐습니다. 의논하여 작성한 일정표가 성옥자 씨의 것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 성옥자 씨가 성함을 쓰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성옥자 씨가 원하는 대로 ‘국화’를 쓰셨습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일정표이니 부산 여행하면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림까지 넣어서 내일 가져올게요.”

“그래요.”

부산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성옥자 씨가 담당합니다. 평소에도 담당하

시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더 그랬습니다. 성옥자 씨가 ‘내가 했다, 내가 한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둘레 사람에게 지지와 응원도 받았습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의 주인 노릇하고 여행을 구실로 둘레 사람과 관계하는 일, 여행이 주는 의미가 큼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소지현

부산 여행에서 성옥자 씨의 역할이 있어 좋아요. 여행 중에 성옥자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둘레 사람이 여행응원카드를 써주셨군요! 성옥자 씨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겠습니다. 여행이 관계를 돕는 좋은 구실이 되네요. 짧은 시간에도 많은 걸 의논했네요. 여행 일정표가 성옥자 씨의 것이길 바랐다니 고맙습니다. 소지현 학생의 여행이 아니라 성옥자 씨의 여행으로 도우려는 마음이겠지요. 성옥자 씨와 지역사회가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 소지현 학생이 이미 그렇게 돕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오광환

## 다이소부터 갈까?

성옥자 씨가 지난주부터 여행 가방을 조금씩 싸면서 문해숙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과 무엇을 더 채우면 좋을지 의논하셨습니다. 목록을 정리하였고 선물상자, 여행용 샴푸와 린스, 면티, 반바지, 검은색 나시, 챙모자를 사기로 했습니다. 쇼핑을 위해 장바구니도 챙기셨습니다.

“국화 선생님, 어디부터 갈까요?”

“다이소부터 갈까?”

성옥자 씨가 가장 먼저 구매한 물품은 부산 동생에게 줄 선물상자입니다. 동생을 주려고 본인이 다니시는 뜨개공방에서 가방을 미리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하려고 상자를 고르셨습니다.

“하나 더 사야 해. 제부 것도. 동생만 선물 주면 안 되지. 남자 양말이랑 손수건 살 거야.”

동생에게 줄 선물만 궁리하고 제부 선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다 여쭙지 않아도 성옥자 씨가 이렇게 다 살피십니다. 성옥자 씨가 제부에게 줄 선물 상자도 골랐습니다. 상자를 다 고르고 나서야 본인 것을 사자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샴푸고 어떤 게 린스야?”

“파란색이 샴푸고 갈색이 린스예요.”

“그럼 이걸로 사자.”

“선생님, 바디워시는 안 사세요?”

“사야지. 어떤 게 바디워시야?”

“이거랑 이게 바디워시예요.”

“그럼 이거 사자.”

두 팩이 들어있는 검은색 나시도 고르셨습니다. 여행하며 착용할 챙모자와 선글라스도 써보셨습니다. 거울을 보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살피셨습니다. 그 모습을 거울로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선글라스는 마음에 들어 사기로 했고, 챙모자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마트에 가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의 물건이니 계산도 성옥자 씨가 하셨습니다. 카드를 넣고, 물건을 집어 바코드를 찍고, 장바구니에 넣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셀프계산대를 이용해보셨던 터라 직접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마트로 이동해서 평소에 다니던 단골 옷가게에 갔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문자로 온 세일 소식도 미리 알고 갔습니다. 몇 벌을 입어보고 마음

에 드는 옷을 고르셨습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종류는 사장님이 오셔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시원해요?”

“네. 시원한 재질이에요.”

“밝은색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성옥자 씨를 기억하시고 밝은 옷이 잘 어울리셨다며 꽃이 그려진 하늘색반팔티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옷을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 골랐던 면티 한 장과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면티를 샀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제부에게 줄 양말과 손수건도 사러 갔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여쭙보며 찾아갔습니다. 성옥자 씨가 직원에게 여쭙보지 않았더라면 마트를 몇 바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려고 했던 손수건이 없어서 양말만 사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로 살까? 이걸로 살까?”

“이건 어때요?”

“여름인데 그건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로.”

“선생님, 이건 조금 얇은데 이건 어때요?”

“그래. 이걸로 사자.”

성옥자 씨는 추천하는 양말도 직접 만지며 궁리해보시고 정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선물을 샀습니다. 1층에 내려가 성옥자 씨가 마음에 드는 모자도 샀습니다.

“이제 국화 선생님도 예쁜 모자 생기셨으니 이거 쓰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셀프계산대에서 성옥자 씨가 직접 계산하셨습니다. 카트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만 거들어 드렸습니다. 준비해 둔 장바구니에 넣는 것도 성옥자 씨의 몫입니다. 쇼핑한 물건이 많아서 짐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이거 선생님이 들어도 괜찮아요?”

“둘 다 내가 들게.”

“하나는 제가 들게요.”

버스 출발시각이 아직 남아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짐 두 개를 본인 옆 자리에 두셨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동생과 통화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동생이 성옥자 씨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동생이 안내해준 부산 여행 일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동생 분이 국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일이 있으시대요. 근데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저희가 동생분이 있는 쪽으로 와 줄 수 있는지 부탁했어요.”

“그래? 우리가 갈까?”

“그렇까요?”

“가자! 가서 우리가 놀라게 해줄까?”

“좋아요!”

동생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웃으셨습니다. 쇼핑하느라

지쳐 보이셨는데 활력이 생기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도 올라갔습니다.

“저번에 진수가 누나 옷 사주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만나는데 장소가 백화점이라니 성옥자 씨가 기분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동생과 전화가 엇갈렸다는 얘기를 듣고 서운해하시던 성옥자 씨의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동생분께서 다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맞아. 같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성옥자 씨와 가족의 여행, 여유가 있을 때 가족이 함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을 준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해보자고 이야기하셨다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갈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거기에 뒤.”

성옥자 씨는 이미 부산 여행의 주인입니다. 여행을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성옥자 씨의 얼굴에 행복이 보입니다. 내 여행이기에, 내가 준비하고 있기에 그러신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소지현

동생과 통화연결이 어려웠던 숨은 사연, 동생과의 부산 일정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가 알 수 있게 잘 설명하니 얼굴에 미소가 번지셨겠어요.  
박선영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 직접 사게 도와줬다니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의 여행이니 직접 준비하셔야지요. 둘레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하거나 하면 좋을 일을 하시게 잘 도왔네요. 언니이니까 동생과 제부 잘 챙기셔야지요. 가게에서

가장 먼저 선물상자를 샀다니 성욱자 씨가 여행으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명하네요. 오광환

## 시내버스 탈 만해요

성욱자 씨는 평소에 박선영 선생님의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셨습니다. 부산 여행은 저와 동행하니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발급하셨습니다. 부산 가기 전에 연습이라 생각하고 이마트에서 집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탈 버스는 59번이에요.”

“그래요.”

성욱자 씨가 먼저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어디에 찍어요?”

“더 아래 노란색 박스에 찍으시면 돼요!”

“여기에 앉자.”

성욱자 씨가 카드를 계산대에 찍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버스 처음 타보네.”

“그러니까요. 탈 만하세요?”

“탈 만해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신 것처럼 뿌듯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려야 하는데 옆에 빨간색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하차 버튼을 직접 누르시고 내릴 때는 카드도 다시 찍으셨습니다.

“정류장에서 좀만 쉬었다 가자.”

성옥자 씨가 버스를 타기 전부터 긴장하셨는데 내리고 나니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내려서 직접 하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성옥자 씨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신 기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전이지만 언젠가 평범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소지현

여행 전 첫 버스를 타셨다니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가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몽클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 이용으로 성옥자 씨의 삶이 더 자연스럽고 평범해지길 기대합니다. 박선영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이용하고 갈수록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됨이 발전이라고 배웠지요. 탈 때는 긴장하셨지만, 타시니 편안해 보이고, 내려서는 자랑까지 하셨네요. 이 과정을 성옥자 씨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제안하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여행 의논⑥ 여기 괜찮네

성옥자 씨와 요트 투어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매해야 해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성옥자 씨의 일로 돕고 싶었고 사진을 보며 잘 선택하시게 돕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논할 때 노트북을 활용했는데 오늘은 성옥자 씨가 더 익숙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태블릿PC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선생님, 여기 누르시면 돼요. 눌러보실래요?”

성옥자 씨가 직접 화면을 눌러보며 살펴보셨습니다. 상세 정보에 관한 내용은 읽어드렸습니다.

“불꽃놀이 있는 거 좋네. 사진 찍는 거 좋네.”

사이트는 너무 많고 선택옵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성옥자 씨께서 더욱 더 잘 정하실 수 있도록 물었습니다.

“해 질 때 보는 게 좋으세요? 밤에 보는 게 좋으세요? 불꽃놀이는 밤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봐야지. 밤에 보자. 해 질 때는 방에서 쉬고.”

“저희가 5시 30분에서 6시에는 저녁 식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트는 언제 타러 가는 게 좋으세요?”

“밥 먹고 저녁에.”

“그러면 7시가 괜찮으세요?”

“그래. 7시에 가자.”

“요트 타는 곳은 숙소 근처인 광안리가 좋으세요? 해운대가 좋으세요?”

“숙소 근처가 좋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예매 사이트 다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성옥자 씨의 기준에 따라 후보가 2개로 좁혀졌습니다.

“여기로 할까?”

“네. 좋아요! 여기 선생님께서 원하시던 사진도 찍어 주고, 불꽃놀이도

하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꽃도 주네요!”

“그래? 그러면 여기 하자!”

“선생님, 예약하려면 전화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전화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해볼게.”

“이번 주 수요일 7시에 2명이 가능한지 말씀하시면 돼요.”

성옥자 씨의 휴대전화로 번호를 입력하는 건 도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매하려고요.”

성옥자 씨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당황하셨습니다. 옆에서 성옥자 씨를 응원하며 직접 말씀하시도록 거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두 명이요.”

“네. 두 분이요. 가능하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하며 당황하셔서 대답을 망설이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위축되어 보이셨는데 그런 성옥자 씨에게 끝까지 직접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잘 설명해 주신 덕에 표를 잘 예매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전화할 때 머리 새하얘져요. 선생님, 성함이랑 전화번호는 제가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괜찮아요.”

“성옥자 씨에게 문자가 갈 거예요! 그 문자를 가서 보여드리면 돼요.”

성옥자 씨의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요트를 탈 때 제가 아닌 성옥자 씨가 직접 표를 보여드리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행하며 성옥자 씨의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옥자 씨가 마지막으로 실습생에게 하신 말씀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다 사줄게.”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소지현

노트북에서 태블릿PC로! 경험을 통해 당사자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궁리한 소지현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의 여행이니 일정 하나하나를 성옥자 씨가 결정하시게 도와야지요. 주인 되게 잘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대회를 보면 소지현 선생님이 어떻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지 미리 궁리하고 준비한 티가 납니다. 성옥자 씨의 강점과 소지현 학생의 준비가 조화를 이루니 여행준비가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오광환

## 동생이랑 통화했어

여행하며 동생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습생이 동생과 전화한 내용을 성옥자 씨에게 설명해드렸지만 직접 통화하며 언니와 동생의 일이 되게 돕고 싶었습니다. 문해숙 선생님이 성옥자 씨와 동생의 일정을 살펴 직접 연락하시게 거들어 주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동생과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생이랑 통화했어. 돼지국밥도 먹고 회도 사준대.”

“그래요? 좋아요!”

성옥자 씨가 직접 통화하셨으니 동생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을 온전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성옥자 씨의 것이길 바랐는데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소지현

언니와 동생의 일로 돕고 싶었다니 고맙습니다. 옆에 있지 않았는데 성옥자 씨가 동생이랑 통화하실 때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광환

## 설레요

성옥자 씨가 실습생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둘레 사람과 만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가셨는데 부산 여행한다고 소문났다고 합니다. 여러 성도가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응원받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한 회원은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뜨개공방 선생님도 여행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성옥자 씨의 부산 여행을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옥자 씨께서 소식을 전해 주실 때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둘레 사람이 써 주신 응원카드에 적힌 글을 다시 읽어드렸는데 한참 웃으셨습니다. 내일 여행 떠나는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설레요.”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소지현

여행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응원을 받으셨네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둘레 사람과 관계하게 도우니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응원 받으며 여행 떠나시는 성옥자 씨, 얼마나 좋으실까요. 오광환

## 사진앨범이 괜찮아

부산 여행을 준비하며 응원해 주신 둘째 사람이 많습니다. 성옥자 씨가 감사인사 잘 전하시게 돕고 싶었습니다. 성옥자 씨와 여행 다녀와서 감사인사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번 여행에 많은 분이 여행지도 추천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지요? 목사님은 기차역까지 데려다주시기도 하잖아요. 여행 다녀와서 이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선생님, 어떤 분께 감사 인사드릴까요?”

“목사님, 한글학교 선생님, 믹비공방 선생님, 임 권사님, 뜨개공방 선생님, 권사님, 종이공예공방 선생님, 한글학교 반장님, 사서 선생님, 상담 선생님!”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하셨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을 만큼 감사인사 드릴 분이 많았습니다. 성옥자 씨와 의논하여 열두 분을 적었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성옥자 씨의 일정에 맞춰 자연스럽게 감사인사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하며 드릴 선물은 부산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네요. 열두 분에게 선물하며 감사인사 드리는 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응원받고 좋죠.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좋아.”

“선생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뽑는 건 어때요?”

“그래. 뽑게. 뽑아버려.”

“앨범 만들어서 선생님도 보시고 감사인사 드릴 때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이세요.”

“앨범이 괜찮아.”

여행하며 촬영해 오라는 분이 많아서 사진앨범 제작을 의논했습니다. 휴대전화보다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주선하면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일정을 마치고 사진관에 가서 성옥자 씨가 원하는 사진을 인화하기로 의논했습니다.

감사할 사람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정이 많아서 잘 베푸시니 그 덕이 자연스레 성옥자 씨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야깃거리가 많고 둘레 사람과의 소통도 풍성합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둘레 사람과의 이야깃거리가 더 많아지고 소통도 더 풍성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는 평소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행을 구실로 둘레 사람에게 응원 받는 모습을 보니 삶으로 쌓아온 덕을 되돌려 받으시는 듯해서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관계를 주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여행 전부터 감사를 준비하니 고맙습니다. 여행하며 선물도 사신다니, 가서 고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려면 가는 곳마다 많이 찍어야겠어요. 감사인사 드릴 분이 열두 분이나 된다니 놀랍습니다. 성옥자 씨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감사를 준비하며 알 수 있어 좋아요. 오광환

## 여행① 부산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어제 예약했어요.”

“예약하셨어요?”



“네 예약했어요.”

성옥자 씨가 식당 직원에게 예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습생이 부탁드리지 않아도 먼저 말씀하신 게 처음이었습니다. 준비과정부터 성옥자 씨의 일에게 도우니 여행하시면서도 자연스럽게 본인 일로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피클, 음료수를 가져오는 것도 성옥자 씨가 하셨습니다.

“내가 예약하길 잘 했다.”

식당을 나와서 성옥자 씨가 무릎에 통증을 느끼셔서 계획대로 국제시장과 찜질방을 가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지원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여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돌아다니는 내내 바쁘셨습니다. 곳곳을 눈에 담으며 여기는 이렇다고 저기는 저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하시면서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의 여행으로 도우니 성옥자 씨가 즐겁게 누리시네요. 박선영

성옥자 씨가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약하길 잘하셨다고 말씀하셨더니 성옥자 씨가 여행의 주인이네요. 여느 사람처럼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둘러보는 재미를 느끼셨나 봅니다. 무릎에 통증도 이겨낼 만큼 여행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영광환

## 여행② 다음에 같이 와도 좋겠어

여동생과 남동생이 성옥자 씨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성옥자 씨의 여행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여행 일정부터 하루 돌아다니신 소감까지 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숙소 좋다. 다음에 같이 와도 좋겠어.”

가족들에게 건네는 말에 다양한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 감정이 가족에게 온전히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가족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재밌다. 좋아. 기분 좋지. 여행하러 와서 기분 좋아. 소지현 학생이랑 오니깐 기분 좋아. 피자도 먹고, 시장도 가고, 바다도 가고. 부산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집에 안 가게 생겼네. 우리 하루 더 자고 가자.”

“선생님, 하루 더 있다가 가고 싶으세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성옥자 씨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소감을 다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더 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정을 생각해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서 또 즐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는 내일은 성옥자 씨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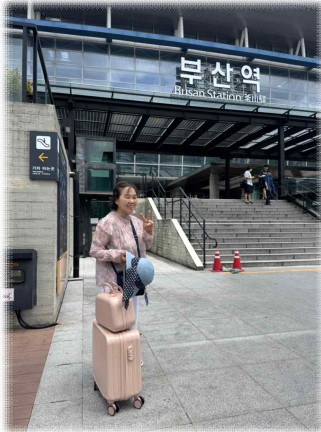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소지현

오후 11시가 되어서도 지치지 않으셨다니 여행이 즐거우셨나 봅니다. 하루 더 지내자고 하셨다니 얼마나 좋으셨을지 느껴집니다. 성옥자 씨를 여행의 주인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준비부터 여행까지 가족과 자주 연락하네요. 가족에게 같이 와도 좋겠다고 하셨다는 말씀도 몽클합니다. 여행이 주는 기쁨, 여행으로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을 성옥자 씨가 온전히 누리시게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여행③ 괜찮아 내가 끌고 갈게

성옥자 씨는 무릎 통증이 있어 오래 걷기 힘들어 하십니다. 성옥자 씨의 걷는 속도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실습생이 앞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여행을 성옥자 씨의 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커져 앞장서시게 도우려고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성옥자 씨에게 여쭙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끌게.”

무릎이 아파 잠시 쉬었던 시간을 제외하면 성옥자 씨 스스로 짐을 챙기셨습니다. 여느 사람이 여행하며 느끼는 기쁨을, 그 경험을 누리시길 바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끌게.”

안전상의 이유로 때때로 거들었지만 느리고 더디더라도 성옥자 씨가 하신다면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가 주인 노릇하게 임시로 신중히 최소한으로 거드니 여행이 특별하지 않네요. 여느 사람의 여행처럼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요. 성옥자 씨의 걸음에 맞춰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마다 궁리하고 실천하니 고맙고요. 박선영

캐리어 끄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셨군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소지현 선생님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지원하셨네요. 성옥자 씨를 어른으로 보고 세워 드리려는 뜻이 있었겠지요. 매순간 사회사업가답게 지원하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여행④ 지하철 재미있네

성옥자 씨가 동생을 만나러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셨습니다. 군산에서 시내버스는 이용하셨지만 지하철은 처음입니다. 금련산역에서 도착지인 서면역까지 아홉 정류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시내버스에서 카드를 찍는 게 익숙해지셔서 위치를 알려드리니 어려움 없이 개찰구로 지나갔습니다. 안전바에 걸려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가볍게 웃고 넘기셨습니다.

지하철에 타니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젊은 분이 자리를 비켜 주셔서 성옥자 씨가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는데 불편해 보여서 걱정했습니다. 옆 자리에서 잠든 분의 고개가 성옥자 씨 쪽으로 향해서인지, 양쪽에 체격이 큰 분들이 타셔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니 다른 자리가 나왔다고 옮기시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게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느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 매번 편하게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 그 불편함이 성옥자 씨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역을 거쳐 왔고 서면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못 찾겠어요.”

“모르겠어. 처음인 게.”

“선생님, 저도 여긴 처음이에요!”

“그래?”

“같이 찾아볼까요?”

‘처음’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시던 성옥자 씨가 그때는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느 사람도 처음 가는 곳이면 충분히 헤맬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니 헤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성옥자 씨가 처음 하는 일을 헤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지하철 어떠셨어요?”

“지하철 재미있네.”

성옥자 씨가 지하철에서 긴장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용하고 나니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내버스를 처음 탈 때도 그러셨는데 부산에서는 편하게 이용하셨습니다.

“안 해봤으니깐. 한 번 해봤으니깐.”

성옥자 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기십니다. 성옥자 씨가 지하철을 이용한 경험이 주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셨던 때처럼, 처음 지하철을 타고 내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신감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소지현

처음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어색하고 낯설고 긴장되기도 하지요. 앞서서 도우려 하지 않고 그 순간을 성옥자 씨가 누리시게 기다렸더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성옥자 씨의 경험, 성옥자 씨의 삶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광환

## 여행⑤ 고마워 언니야

오늘은 동생과 만납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 중에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올 때 동생에게 줄 선물을 챙기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문 앞에 꺼내두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앞뒤로 일정이 있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려고 미리 약속한 동생의 직장 근처로 갔습니다.

성옥자 씨와 동생이 만났습니다. 성옥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반갑게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동생도 성옥자 씨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짧게 안부를 나누고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이거 선크림인데 두 개 담겨 있는 거라 가져왔어. 이진 마스크팩인데 오늘 숙소에서 둘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나도 이거 선물이야. 가방 뜯 거 산 거야. 내가 싸게 해달라고 했어. 제부 양말도 샀어.”

동생이 성옥자 씨와 저에게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성옥자 씨도 동생과 제부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며 설명하셨습니다. 제부를 기다리는 동안 백화점을 구경했습니다. 성옥자 씨와 동생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제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처형은요?”

“잘 지냈죠.”

제부가 오셔서 자가용을 타고 용궁사로 이동했습니다. 용궁사는 여행지를 의논할 때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워서 제외한 곳이었는데 동생과 함께하니 더 의미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계단이 많았습니다. 제부와 동생이 성옥자 씨를 살피셨습니다.

“부축 안 해줘도 돼요?”

“응. 괜찮아.”

“옆에 잡고 가세요.”

“응.”

“언니 무슨 띠야?”

“뱀띠.”

뱀사진을 시작으로 성옥자 씨 사진, 자매 사진 등을 찍었습니다. 동전을 던져 소원도 빌었습니다. 용궁사 구경 마치고 계단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성옥자 씨가 더우실까 봐 시원한 물도 하나 샀습니다. 성옥자 씨를 잘 살피주셨습니다.

“처형, 여기서 좀 쉬고 가요.”

“언니 덕분에 낮에도 돌아다니네.”

성옥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라 느꼈습니다. 용궁사 구경을 마치고 해운대가 보이는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동생과 제부가 부산 이곳저곳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옥자 씨는 본인이 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도 서로 나눴습니다.

“언니야. 우리 그때 같이 살던 거 기억해?”

“기억하지.”

여행으로 다시 만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함께 했던 추억을 나누는 대화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옥자 씨가 평소 왕래하는 돌레 사람이 많은데 가족과의 관계는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야, 빵하고 음료 잘 먹을게. 언니가 사 줘서 더 맛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성옥자 씨가 공방 이야기, 가족 이야기, 교회 이야기 등을 이어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돌레 사람에게 응원받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여쭙보고 돌레 사람의 응원카드를 동생과 제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성옥자 씨는 목사님께서 데려다주신 이야기를 더하셨고 저는 돌레 사람이 추천해주신 여행지로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동생이 안심하는 표정이셨습니다.

“뺨이 많네. 보디가드가 많아.”

성옥자 씨께서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동생에게는 공방에서 산 가방을 드렸고, 제부에게는 이마트에서 직접 고른 양말을 드렸습니다.

“언니 마음이 느껴지네. 야무지게 잘했네. 정말 예쁘다. 고마워 언니야.

언니한테 보내줘야겠다. 선물상자가 진짜 성의있다.”

“이뻐서 기절하겠어요. 잘 신을게요. 하늘이 감동해서 오늘 날씨도 예쁘게 해줬네.”

동생이 선물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선물상자를 여러 번 열어보셨습니다. 동생과 제부의 반응에 성옥자 씨는 뿌듯해하셨습니다. 성옥자 씨의 입꼬리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선물 전달을 마치고 카페에서 횃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 오셔서 성옥자 씨를 지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잘 들어주셨고 궁금하신 것도 여쭙보셨습니다.

“옥자 언니가 선물 주는 것 보니까 잘 살 것 같아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매가 여행을 구실로 만나 서로의 삶을 공유하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부산 또 놀러와. 그때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래.”

“나중에 같이 제주도 가고, 같이 서울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자.”

“그래 가야지.”

헤어질 시간입니다. 성옥자 씨와 동생이 헤어지기 전에 서로를 꼭 안으셨습니다. 뜨거운 포옹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랠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쉬운데 선생님은 안 아쉬우세요?”

“안 아쉬워.”

앞으로 가족과 함께할 여행을 약속하셔서 아쉬움보다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성옥자 씨와 동생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오늘을 보냈듯이 다음 만남에는 오늘을 추억하며 그때를 보내실 겁니다. 성옥자 씨의 기대와 가족의 사랑이 만나 자연스레 소식 전하고 왕래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소지현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만 아는 이야기! “나중에 또 부산 놀러 와. 그때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동생이 초대했으니 또 놀러 가야겠어요. 함께 여행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며 몽클합니다. 평범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첫 여행을 잘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동생에게 선물을 전하고, 제부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하고, 언니로서 식사 대접 하고, 사는 이야기 나누고, 어릴 때를 추억하고... 여느 가족이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처럼 평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오광환

## 여행⑥ 요트

성옥자 | “어제 예약했어요.”

안내자 | “네. 예약자 성함 알려주시겠어요?”

실습생 | “소지현이요.”

숙소 직원이 예약자를 물을 때 성옥자 씨를 대신해서 답변했습니다. ‘성옥자’ 성함으로도 예약해서 직접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었는데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대신한 겁니다. 돌아보니 성옥자 씨는 본인의 성함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사회사업가가 판단하고 앞서 행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옥자 씨와 승강장으로 이동하는데 파도가 일렁여서 걷기가 쉽지 않았



습니다. 요트를 타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일어설 때 성욱자 씨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요트 직원이 그때마다 성욱자 씨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긴장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성욱자 씨께서 안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야경도 보고 불꽃놀이를 즐기고 사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어떠세요?”

“요트가 너무 추억이다. 너무 멋져”

긴장했지만 이 또한 처음이기에 그랬을 겁니다. 성욱자 씨께서 여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요트라고 하셨습니다. 성욱자 씨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처음 부산에서, 처음 광안대교를 지나며, 처음 요트를 타신 성욱자 씨. 처음이기에 기억에 남으신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소지현

성욱자 씨가 따라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여행으로 거듭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타 보는 버스, 기차, 지하철, 요트까지 여행으로 성욱자 씨의 삶이 풍성해지네요. 둘레 사람과 다녀온 소식 전하며 나눌 이야기가 많겠습니다. 박선영

요트에서 찍은 사진이 근사합니다. 성욱자 씨가 부산 여행을 잘 누리셨네요. 당사자가 여행의 주인 되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의 실제입니다. 준비부터 여행까지 성욱자 씨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성욱자 씨의 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여행⑦ 재미있게 놀다 간다

목사님, 뜨개공방 회원, 동생 부부가 국제시장에서 먹을 만한 음식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둘째 사람이 추천해줬으니 꼭 가보자고 성옥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가서 떡볶이랑 오뎅 먹자.”

“네, 좋아요!”

제가 옆에서 거들지 않아도 메뉴를 보고 혼자 주문하셨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식당 직원에게 건네고 계산하셨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부탁드릴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럴 일이 적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맛있는 곳을 어떻게 아셨대?”

“그러니까요. 다음에 볼 때, 맛있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추천받은 곳에서 먹으니 추천해주신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도 커집니다. 더 좋은 선물을 사야겠다고, 감사인사도 잘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길 잘했네. 맛있어.”

계획대로라면 국제시장은 첫날 오후에 오기로 했는데 무릎 통증이 있어서 미뤘습니다. 추천받았으니 가보기로 했는데 선물 살만한 곳이 많아서 더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식사 마치고 선물을 꼭 사고 싶다고 하셔서 기차표를 세 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간다.”

계획은 바뀌었지만 성옥자 씨가 가고 싶어 하시는 때를 살피며 함께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워하시는 성옥자 씨를 보면서 기차표를 미루는 건 어쩔지 제안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무리해서 다녀오지 않고 성옥자 씨의 ‘때’를 살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소지현

상황을 살피 기차 시간을 설명하고 제안했네요. 때를 살피 도우니 놀랍습니다. 때마다 궁리하고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첫날에 둘러보지 못한 곳에 돌레 사람이 추천해주신 장소가 많았네요. ‘먹기를 잘했다.’, ‘재미있게 놀다 간다.’라는 말씀이 스스로 잘 누리셨다는 증거네요. 때를 살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사회사업가, 소지현 선생님입니다. 오광환

## 여행⑧ 젤리 두 봉지 주세요

국제시장에서 여행기념품과 돌레 사람들에게 드릴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는 선물을 담은 장바구니도 집에서 챙겨 오셨습니다. 이틀 전에 국제시장 입구까지 왔는데 그때 살펴본 물품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어떤 선물을 살지 궁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꺄통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젤리인데 드셔보시겠어요?”

“음~ 이거 사자.”

“맛있으세요? 많이 안 달아요?”

“맛있어. 많이 안 달아. 사장님 이거 주세요!”

“한 봉지에 만 원이에요. 두 봉지 드릴까요?”

“네. 젤리 두 봉지 주세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하셔서 성옥자 씨가 구매하신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사장님이 성옥자 씨를 보며 서비스를 챙겨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가 지갑에서 이만 원을 꺼내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옥자 씨에게 주문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아도 직접 주문하셨습니다. 사는 사람이 성옥자 씨이니 서비스 주신다는 말씀도 성옥자 씨가 들으셔야 합니다. 성옥자 씨의 몫입니다. 저는



부족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거들어드렸습니다. 젤리를 사고 다른 선물을 사러 이동했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보이는 물품 중에 살만한 선물을 제안했는데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성옥자 씨가 손수건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생각해둔 선물이 있었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용 손수건 두 개와 여자용 손수건 일곱 개를 샀습니다. 성옥자 씨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디자인으로 섞어 샀습니다. 이번에도 성옥자 씨가 사장님에게 현금 드리며 직접 계산하셨습니다. 많이 샀는데 감사한 사람이 많으니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를 자주 만나고 지원하는 문해숙 선생님과 박선영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액세서리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둘러보시며 핑크색 비즈리본이 달린 머리끈 두 개를 고

르셨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시는 성옥자 씨에게 그 선물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 줘야지.”

“어떤 선생님이요?”

“우리 학생.”

“아~ 저요? 저는 괜찮아요!”

“애썼는데 사 줘야지.”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맛있는 거 사주신 게 선물이에요.”

성옥자 씨가 제 선물까지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괜찮다고 말 씀드리니 사주는 게 마음이 편하신 것 같다고 느껴서 초콜릿 하나를 골랐는데 성옥자 씨가 다른 액세서리 가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거 할래? 이거 살까?”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면 어떻게 제안하셔서 초록색 핀을 골랐습니다.

“몇 개 더 고르라니까 왜 하나만 골라?”

“선생님, 하나도 충분해요! 감사해요.”

“뭘 감사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때마다 성옥자 씨를 살피고 필요한 만큼 거들었으나 성옥자 씨가 저보다 어른이라고 여기시니 늘 대접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초록색 핀 하나가 성옥자 씨의 어른다움을 세워드리는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도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시다.

둘레 사람에게 선물할 젤리, 사탕, 손수건, 액세서리는 성옥자 씨가 포

장지를 사서 직접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릴 때 직접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아쉽지만 둘째 사람에게 여행했던 소식 잘 전하고 선물하실 생각에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의 주인 노릇하시게 잘 지원하고 싶었는데 이미 스스로 잘 누리고 계셨습니다. 성옥자 씨 덕분에 제가 부산 여행을 잘 누렸습니다. 성옥자 씨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소지현

선물 담을 장바구니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리 챙기셨네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필요한 것을 살펴 미리 준비하시는 성옥자 씨의 강점이 잘 드러납니다. 둘째 사람에게 드릴 선물을 의논해서 직접 고르고 사게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당하게 감사인사하실 성옥자 씨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인사로 관계가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박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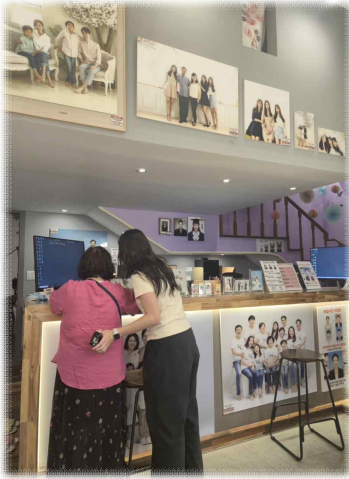
성옥자 씨가 둘째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싶으신지 스스로 잘 선택하셨네요. 장바구니를 미리 챙기셨다니 여행 전부터 의논하고 준비하니 본인 일로 여기셨음이 분명하네요. 소지현 선생님의 선물도 사주셨군요. 성옥자 씨의 선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겠습니다. 감사인사 선물 사는 것도 성옥자 씨의 일로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사진 뽑을 수 있나요?

여행하기 전에 감사인사를 의논했었습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뽑아 앨범을 만들고 둘째 사람에게 보여 드리며 그때를 추억하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사진관 직원에게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지 여쭙보셨습니다.

“사진 뽑을 수 있나요?”

“네. 여기 QR코드로 사진 보내주세요.”



성옥자 씨가 휴대폰을 직접 들고 계셨고 저는 옆에서 카메라 앱을 켜서 위치 잡는 것만 거들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운 일도 과정을 나누면 성옥자 씨의 일이 됩니다.

“선생님, 몇 장 뽑으실 거예요?”

“열 장 뽑을까?”

“그럴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보시겠어요?”

“그러자.”

성옥자 씨가 사진을 넘기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셨습니다. 사진 보며 여행을 추억하셨습니다. 그렇게 스무 장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성옥자 씨가 여쭙는 것부터 계산하는 것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사진 다 고르셨나요?”

“네, 골랐어요.”

“사이즈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이게 기본 사이즈이고 가장 저렴해요.”

“이걸로 해주세요.”

사회사업가의 목음으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 인지 살피고 필요한 만큼 거들며 당사자가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 일이다.’ 하는 일이 많아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소지현

소지현 선생님이 거들 일이 없었다는 게 반갑습니다. 온전한 성욕자 씨의 삶이라 반갑고요. 오광환

사진앨범 어디에 있어요?

여행하며 샀던 선물을 포장지에 예쁘게 싸서 둘레 사람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욕자 씨와 다이소에 갔습니다. 물품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하셔서 직원에게 위치를 여쭙보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사진앨범 어디에 있어요?”

“계단 옆 난관 쪽에 보시면 있어요.”

성욕자 씨가 앨범이 있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사진을 대보면서 원하는 크기의 앨범을 고르셨습니다. 포장 물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포장지도 고르시게 도와줍니다.

“어떤 거로 사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거로 고르세요.”

손수건과 젤리 크기에 맞춰 성욕자 씨가 마음에 드는 포장지를 사셨습니다. 사진 앨범, 포장지를 샀으니 포장만 하시면 감사인사 드릴 준비를 마칩니다. 끝까지 잘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소지현

감사인사 드릴 방법을 미리 의논했지요.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뽑아 보여드린다니 여행의 분위기를 둘레 사람이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사오신 선물까지 잘 포장해서 감사인사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광환

드려야지

감사인사를 의논했을 때 선물 드릴 분을 메모해줬습니다.

“선생님, 부산 여행 가서 산 선물을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권사님, 한글학교 선생님, 반장님, 목사님.”

성육자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록을 보며 떠올리게 도와줬습니다.

“뜨개공방 선생님은요?”

“드려야지.”

성육자 씨와 열두 분의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해숙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과 옆에서 거들며 성육자 씨가 선물을 포장하시게 도와줬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지 말씀해 주셨고 포장지에 직접 물품도 넣으셨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소지현

감사인사 드릴 둘째 사람이 많으니 메모를 보며 준비해야 하네요. 여행으로 성육자 씨가 만날 분이 열두 분이라니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여행이 둘째 사람과 가까워지는 구실이 되길 바랍니다. 오광환

상담 선생님께 감사와 소식

오늘은 상담 선생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성육자 씨가 상담 선생님께 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같이 부산 갔다 온 학생이에요.”

여행 이야기는 선생님과 상담 시간에 편히 나누셨습니다. 선생님께 부산에서 산 선물도 직접 드렸습니다. 성옥자 씨가 여행하며 생각하셨던 상담 선생님께 선물을 구실로 감사인사 잘 전하셨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소지현

상담하러 가신 김에 부산 여행 소식 전하고 선물하셨다니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의 삶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오광환

### 권사님께 감사와 소식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께 소식 전하고 선물 드리며 감사인사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어제 부산여행 잘 다녀왔어요.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지금 올라가도 돼요? 집에 계시죠?”

“응. 와도 돼.”



성옥자 씨가 앞장서서 권사님 댁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와는 두 번째 만남이라 맞이해주는 권사님의 인사가 더 반가웠습니다. 성옥자 씨가 권사님께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진 앨범 보면서 여행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사진 보니깐, 그래 보이네. 건강히 잘 다녀와서 다행이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소지현

앨범을 보며 여행 소식 전하니 성옥자 씨의 여행이 더 실감납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천받은 여행지도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니 감사가 분명하네요. 감사인사도 성옥자 씨의 몫으로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영 교회 권사님이 가까이 사시니 이웃으로도 자연스레 왕래하네요. 성옥자 씨의 여행으로 누리셨으니 그때의 분위기와 감정을 잘 표현하셨겠습니다. 여행을 구실로 응원 받고, 다녀와서 감사 전하니 정겹습니다. 오광환

## 뜨개공방 선생님께 감사와 소식

뜨개공방 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리는 날입니다. 성옥자 씨께서 먼저 공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느라 애썼어.”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께서 걱정된 목소리로 오느라 애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걱정하며 물으셨던 안부가 마지막이라 오늘은 더욱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뜨개공방 선생님을 만나 성옥자 씨께서 선물 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소지현 | “국화 선생님, 선생님께 이미 선물 드리셨어요?”

성옥자 | “네, 드렸어요. 사진도 보여줬어요.”

선생님 | “사진 다 봤어. 보니까 예쁘게 찍어줬네.”

소지현 |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아쿠아리움에서도 사진 많이 찍었어요!”

성옥자 씨께서 제가 오기 전에 여행하며 샀던 선물도 드리고 앨범도 보

여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뜨개공방 선생님께서 여행에 도움을 주신 부분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덧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선물 받아 놀랐고 감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쥘리를 다양하게 많이 사와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는 평소에도 감사를 잘 표현하셔서 어렵지 않게 인사 드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부산 여행 후기도 생생하게 잘 전해 주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옥자 씨께서 오전에는 한글학교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한글학교에서도 사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소지현 학생 너무 멋지대. 우리 귀엽다고. 사진 좋다고. 팩 한 거 있잖아.”

성옥자 씨가 사진 보며 이야기했다고 설명하시며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 보이는 성옥자 씨의 웃음소리가 뜨개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행을 구실로 돌려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니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여행으로 성옥자 씨가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던 뜨개공방 선생님도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웃음은 전염되나 봅니다. 선생님은 성옥자 씨에게 사진에서 본 여동생을 말씀하시며 가족 이야기도 여쭙보셨습니다. 뜨고 있는 목도리를 남동생에게 주려고 한다고 성옥자 씨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구실로 이야기거리가 다채로워짐을 느꼈습니다.

공방을 나오며 저는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성옥자 씨는 성옥자 씨의 몫으로 마음을 전하셨으니, 저는 저의 몫으로 감사한 마음을 짧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행지도 추천해주셔서 덕분에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사진 보니깐 재밌어 보이더라.”

뜨개공방 선생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다. 고생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따뜻한 돌레 사람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저는 권사님과 뜨개공방 선생님의 감사인사만 동행했습니다. 한글학교, 클로바 공방, 교회는 성옥자 씨가 일정에 맞춰 감사인사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거들지 않아도 돌레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도 주시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감사인사도 주인 노릇하십니다. 스스로 돌레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잘 나누시니 관계가 유지, 강화되고 사는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집니다.

일정을 마친 저녁에 성옥자 씨가 전화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정을 의논하고 성옥자 씨께서 여행하며 잃어버린 제 지갑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은 택배로 왔대요?”

“네, 집에 왔대요!”

“걱정돼서. 잘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다음에 여행 갈 때 조심해야 해요.”

“넵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옥자 씨가 어른으로 저를 걱정해주시고 살피주시니 감사

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소지현

뜨개공방 선생님이 여행지 추천해주셨지요. 성옥자 씨가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게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와 지역사회가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 소지현 학생이 그렇게 도왔으니 가능했지요. 선생님께 소지현 학생의 감사도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감사편지 부탁

한글학교 선생님과 목사님께 성옥자 씨가 감사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 감사의 몫도 있지만, 제가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미리 편지를 썼고 성옥자 씨에게 제가 쓴 편지를 전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었습니다.

“선생님, 한글학교 선생님과 목사님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부산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저는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저도 감사를 전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의 둘째 사람이니 제 편지를 대신해서 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전해 줄게요.”

성옥자 씨의 둘째 사람이니 실습생의 감사인사도 성옥자 씨의 몫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문해숙 선생님께서 편지에 써 있는 이름을 구별하는 방법을 성옥자 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해숙 | “선생님, 글씨 많은 건 한글학교 선생님이시고 글씨 적은 건 목사님이에요.”

성옥자 | “네.”

성옥자 씨께서 내일 한글학교와 교회에 가서 제 편지를 대신 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옥자 씨의 둘째 사람이니 성옥자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일로써 감사를 전하고자 성옥자 씨께서 전하는 감사 인사에 매번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전하지 못한 분께는 성옥자 씨의 감사와는 별개로 제 감사를 대신 전해드리길 부탁드렸습니다. 성옥자 씨께서는 당신의 일로써 충분히 감사 전하고 있기에 제 감사를 따로 드리는 것이 의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대신 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옥자 씨께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의 둘째 사람이니 성옥자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다니 고맙습니다. 감사인사를 잘 전하고 싶다는 소지현 선생님의 마음도 고맙습니다. 박선영

당사자가 감사한 일도 있지만, 사회사업가가 감사한 일도 있지요. 성옥자 씨의 둘째 사람이니 감사도 성옥자 씨의 일에게 돕고자 했다는 소지현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성옥자 씨가 자랑하면서 감사편지 전달하시겠습니다. 오광환

## 국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날에 성옥자 씨에게 인사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도 감사인사 드렸습니다. 성옥자 씨는 평소에 고정으로 다니는 일정으로 바쁘십니다. 클로버 공방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잠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 문해숙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께 미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일정을 정했습니다.

“국화 선생님,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국화에요!”

“오오, 고마워요.”

전날에 국화와 화병을 사서 성옥자 씨가 좋아하시는 분홍색 쇼핑백에 담아두었다가 드렸습니다. 성옥자 씨가 꽃을 좋아하시고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시니 미리 궁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안에 편지도 있어요. 편지 읽어드릴까요?”

“읽어 줘요.”

소리 내어 읽어드렸습니다.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응”이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부산 여행이 행복했다는 말엔 “그렇죠? 나도 함께해서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곤하셨을 텐데 편지 내용을 들으며 잠이 깨신 듯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드린 편지를 글로만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글보다 보기 편하셔서 앞면에는 성옥자 씨와 제 모습의 그림도 그렸습니다. 성옥자 씨께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잘 그린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던 문해숙 선생님께 쓴 편지도 건네드렸습니다.

“내 것까지요? 난 준비 못 했는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봤는데 아쉽고 감사해서요. 짧은 편지예요.”

“아이고 감동이네. 너무 애썼어요.”

선생님께서도 편지를 소리 내 읽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잘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두 분에게 편지를 드리니 마지막이란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커서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옥자 씨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부산 여행 가 줘서 고맙고 행복했어요. 추억이야.”

“저도 선생님이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소지현 학생이랑 함께해서 좋았어. 학교 가서 잘 지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실습 수료식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성옥자 씨는 클로바 공방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가셨습니다.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일 배요.”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소지현

성옥자 씨에게도 감사를 잘 전했네요. 선물도 성옥자 씨를 생각하며 ‘국화’와 편지를 준비했다니 고맙습니다. 눈물을 감추며 한 문장, 한 문장 읽었을 소지현 선생님을 생각하니 저도 몽클해집니다. 성옥자 씨를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성옥자 씨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사업가답게, 사회사업 방법으로 성옥자 씨를 지원한 소지현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오광환

# 김재선 씨 취미 찾기

한동걸

## 김재선 씨와 취미 찾기 소개

김재선 씨는 올해 35세 청년입니다. 2019년부터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니 아침도 분주하게 보냅니다. 종종 오후에 졸음이 몰려온다고 하시지만 직장생활이 할 만하다고 하십니다. 퇴근하면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가시는데 관장님과 수업하며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재선 씨는 여름에 취미를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은 본가와 교회에 가지만 평일은 주로 직장 출근하고 헬스장 갔다가 집으로 오는 일상을 보내니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나 즈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재선 씨는 미술과 관련한 취미를 희망하십니다. 집에서 펜으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공방이나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십니다.

천천히 김재선 씨의 희망과 계획과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두루 다니며 학원과 공방에서 상담받고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개설되는 수업에도 참여해보며 기회가 되면 등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취미 찾기를 통하여 학원에 다니신 경험이 있으니 찾아다니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김재선 씨가 갈 만한 한 곳, 김재선 씨가 함께할 만한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 김재선 씨와 이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 김재선 씨가 둘째 사람과 취미 찾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나아가시게 지원할 학생을 기다립니다.

김재선 씨 전담 사회사업가 최길성

## 집 소개

“안녕하세요. 김재선 씨!”

“안녕하세요. 동걸 학생.”

“방금 오셨어요? 김재선 씨 정말 더워 보이세요.”

“괜찮아요. 에어컨 틀면 금방 시원해져요.”

일을 마치고 오셔서 그런지 지쳐 보이셨지만 반갑게 인사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의 집은 방금 치운 것처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운동 후 귀가하시면 지치실 텐데 평소에도 꾸준히 정리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을 소개해주실 때 책상에 수십 가지 색의 필기구, 여러 가지 글과 그림이 그려진 스케치북을 보았습니다.

“김재선 씨, 여기 적힌 글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스케치북에 유명 가수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 보니 이름들이 다 달랐습니다. 김재선 씨의 섬세한 강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눈에 띄었던 건 LP플레이어입니다. 블루투스로 휴대폰이랑 연결해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래에 관심이 많으시니 나중에 노래도 같이 불러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짧게 집 소개해주셨습니다. 집주인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김재선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한동걸

단기사회사업 기간에 자주 드나들어야 하니 김재선 씨에게 집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김재선 씨의 집이니 본인이 소개해주셔야지요. 한동걸 선생님이 집

에 온다니 에어컨 틀어놓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생님이 왔으니 반가움이 크셨을 겁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집을 소개해주셨군요. 정리도 잘 되어 있었다니 평소에 김재선 씨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 소개를 들으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김재선 씨가 무엇에 관심 있으신지, 무엇이 강점인지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어머니께 인사

김재선 씨가 어머니를 소개해주시겠다고 전화하셨습니다.

“어, 여보세요? 재선이니?”

“어, 엄마. 일 끝났어.”

“그래? 몸은 괜찮고?”

“어, 오늘 좀 더웠는데 괜찮아 엄마.”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엄마,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한동걸 학생이 집에 왔어. 옆에 있으니깐 바꿔줄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번에 김재선 씨 취미 찾기를 함께하게 된 실습생 한동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선이 통해서 이미 소식 들었어요.”

“우리 재선이 이번 여름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내일 김재선 씨와 함께 가면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동걸 학생. 오면 언제쯤 될까요?”

“김재선 씨가 4시에 수업이 있다고 하셔서 끝나고 출발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동결 학생.”

2025년 7월 3일 목요일, 한동결

어머니께 전화로 먼저 인사했군요. 어머니께서 한동결 선생님의 자기소개서를 미리 읽으셨습니다. 면접 전에 김재선 씨가 먼저 읽고 소개하셨습니다. 면접 봤고 식사도 함께했다고 소식도 전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소식 전하셨으니 어머니도 반갑게 잘 맞이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길성

사회사업은 인사로 시작하지요. 김재선 씨의 제안으로 어머니께 미리 전화로 인사드리니 고맙습니다. 어떤 학생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광환

## 머슬맥휘트니스 관장님께 인사

김재선 씨가 관장님을 소개해주신다고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관장님 저예요.”

“네 재선 씨. 일은 끝났어요?”

“네. 끝나고 지금 왔어요.”

“옆에 동결 학생 왔어요. 전화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번에 김재선 씨 취미 찾기를 함께하게 된 실습생 한동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동결 학생. 재선 씨에게 소식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관장님, 제가 김재선 씨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편찮으실까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재선 씨와 함께 오는 거면 14시에서 15시 이후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김재선 씨와 함께 14시쯤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배요.”

관장님께 제가 온다고 미리 얘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재선 씨가 둘레 사람들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한동걸

김재선 씨가 관장님께도 한동걸 선생님의 자기소개서를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취미 찾기를 도울 학생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전화로 소개해주시고 만날 약속도 잡으니 감사하네요. 최길성

관장님께 인사하고 약속 정하니 고맙습니다. 둘레 사람에게 연락해서 소식 잘 전하시는 게 김재선 씨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점이 드러나네요. 옹광환

## 상담 질문 정리

김재선 씨와 카페에 갔습니다. 학원에서 상담할 때 학원 선생님에게 받을 것 같은 질문, 김재선 씨가 하시고 싶은 질문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씨, 학원 선생님께서 김재선 씨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음~”

“학원 선생님이 김재선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이름이랑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볼 거 같아요.”

“맞아요. 또 어떤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음~”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은지 궁리하면서 메모해 왔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김재선 씨가 메모지를 한 번 살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다시 배워보고 싶다고 말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답변은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 온 계기를 여쭙보셨을 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캐릭터, 풍경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답변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질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답변을 궁리하고 정리해 가면 김재선 씨가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선 씨와 질문을 상상하며 계속 적어보았습니다.

“김재선 씨, 학원에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학원에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걸 물어보실 거 같으세요?”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무엇을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음 제가 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은지 물어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음~ 아~ 수강료가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일정도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에 가고 싶거든요.”

“좋아요. 일 끝나고 오시는 시각도 정해져 있으니 그것도 같이 물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김재선 씨와 질문을 의논하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선 씨가 학원 선생님께 질문리스트를 보면서 본인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재선 씨, 이번엔 학원을 선택할 기준도 함께 정해봐요. 김재선 씨가 생각한 학원은 어떤 곳이에요?”

“음~”

“집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어떤 동이 좋을 것 같으세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수업 방식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들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고 따라해도 괜찮을지를 여쭙보신다는 김재선 씨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을 다시 꺼내는 게 김재선 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최길성 선생님이 궁리하시다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수업하면 선생님께서 김재선 씨에게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수가 같이 하는 수업보다 먼저 개인으로 하는 수업을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김재선 씨한테 집중하실 수 있고 속도도 맞춰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같아요.”

김재선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질문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미 찾기가 구실이 되어 둘레 사람과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게 중요함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김재선 씨가 퇴근하고 오셔서 줄리셨을 텐데 의논하면서 최대한 집중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함께하시니 더 열심히 거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동걸

의논하기에 앞서 한동걸 선생님에게 준비를 부탁했지요. 김재선 씨가 할 만한 질문, 학원 선생님이 할 만한 질문을 미리 잘 정리했습니다. 한동걸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기에 카페에서 한 시간 반이 넘게 구체적으로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김재선 씨와 긴 시간을 의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준비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한 만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취미 찾기에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학원 찾는 과정을 세분하면 김재선 씨가 자기 일로 여기고 할 만한 일이 많겠습니다. 김재선 씨와 잘 의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L자 파일

김재선 씨와 학원 상담을 의논했었습니다. 취미 찾기를 하면 여러 학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재선 씨가 만들어온 작품을 담아 상담할 때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하며 의논했습니다. 챙겨갈 때 L자

파일에 정리해두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여드리기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다이소에 갔습니다.

“김재선 씨, 이진 클럽 부분이 약할 거 같아서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도  
이걸로 하시겠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크고 보관하기도 편할 거 같아요.”

김재선 씨가 마음에 드는 L자 파일을 고르셨습니다. 김재선 씨의 취향  
과 멋이 잘 드러나는 파일이었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며 김재선 씨의 강  
점이 취미를 찾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동걸

다이소로 가면서 김재선 씨의 단골 가게들을 소개받았지요. 다이소도 자주  
가시는 곳이니 편안하게 찾아갔네요. 최길성

상담하러 가기 전에 할 일이 많네요. 김재선 씨의 작품들을 들고 가서 상담하신  
다니 고맙습니다. 취미 찾기 복지를 이루는데 김재선 씨의 강점이 잘 드러나게  
도우려는 뜻과 방법이 귀합니다. 오광환

## 일정 의논

김재선 씨와 일정표를 보며 앞으로의 일정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씨, 어제 얘기 나눴잖아요.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기억나요?”

“네. 어제 취미 찾기 얘기 나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논한 것을 토대로 한 달 동안 일정을 의논하  
여 계획해보려고 해요. 취미 찾는 것 말고도 추가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  
지 기억하시나요?”

“엄마랑 같이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김재선 씨, 이 일정표 보면서 여쭙보시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거 같아요.”

“그러게요. 벌써 1주가 지나갔네요.”

의논하며 만든 일정표에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선 씨랑 취미를 찾는 시간은 삼 주 정도 됩니다. 오늘 일정을 정리하며 김재선 씨와 함께 할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동걸

카페에 앉아서 김재선 씨와 일정을 의논했지요.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의논하고 여러 번 설명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선 씨도 한동걸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우셨을 겁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의 일이 되게 도우려면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지요. 직장 일정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네요. 일정표를 보며 벌써 아쉽다고 말씀하셨다니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게 잘 거들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어머니께 소식

어머니께 인사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김재선 씨가 어제 어머니와 통화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니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재선 씨, 어머니께 저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여기는 동결 학생이야. 이번에 멀리 진주에서 왔어. 한 달 동안 함께 할 거 같아.”

“안녕하세요. 동결 학생. 재선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기 전에 지원사도 잘 읽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김재선 씨를 지원하는 예비사회사업가로 잘 맞 이해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동결

어머니께서 한동결 선생님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요. 김재선 씨에게 잔소리하는 모습도 여느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라 더 웃음이 났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신 어머니, 정중하게 인사해 주신 한동결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에게 한동결 선생님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드렸군요. 김재선 씨가 직접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아들의 취미 찾기를 도움 선생님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읽고 오셨으니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칭찬해주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김재선 씨가 취미 찾기를 구실로 어머니와 자주 소식 전하고 왕래하시길 기대합니다. 오광환

## 어머니께 일정 소개

“김재선 씨, 저희 어제 질문리스트를 정리했었던 거 어머니께 소개해 드릴 수 있으실까요?”

“엄마, 여기에 학원 선생님이 할 만한 질문이랑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써놨어. 학원 기준도 동결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정리했어.”

“음~ 우리 재선이가 생각한 질문이 반영된 건가요?”

“네. 김재선 씨랑 의논하면서 질문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학원을 찾아가 보는 거죠?”

“네 어머니. 김재선 씨와 돌아다니면서 갈 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요.”

“좋은 거 같아요. 재선이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긴 한데 학원 위치는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면 재선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서요.”

“네. 김재선 씨와 궁리해보겠습니다.”

“학원은 하루에 많은 곳을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재선이가 힘들어도 동동걸 학생이 묻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잘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머니. 김재선 씨의 컨디션 잘 살피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선 씨에게 자주 여쭙보면서 다닐게요.”

어머니와 의논하니 아들을 걱정하는 여느 어머니의 모습 같았습니다. 김재선 씨의 취미 찾기를 어머니의 응원으로 시작하니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동걸

일정을 설명할 때 김재선 씨가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부족한 부분만 덧붙여 설명하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한동걸 선생님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돕고 싶은 마음도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어머니께 일정을 설명해드렸군요. ‘설명’이 주는 의미가 크네요. 김재선 씨가 갈 만한 거리, 건강까지 생각해서 찾아보라고 말씀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들의 일로 어머니 노릇하시네요. 오광환

어머니와 나들이 의논

“김재선 씨, 저희 셋째 주에는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같이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맞아요. 나들이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진 않았으나 어머니께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재선 씨의 설명에 어머니께서 집중하셨습니다.

“7월 18일에 나들이를 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다 정해진 건가요?”

“김재선 씨가 미술관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들이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일정을 의논하면 어떨지 김재선 씨와 이야기했었어요.”

“좋아요. 이왕이면 재선이가 관심 있는 곳으로 가면 좋죠. 여행은 군산 이랑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재선 씨와 먼저 의논하고 어머니 만나 뵙고 싶은데 7월 15일에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재선이랑 동결 학생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야죠.”

어머니께서 나들이 계획도 함께하자고 하시니 든든했습니다. 다음 만남은 어머니께서 김재선 씨 덕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기간에 김재선 씨와 어머니가 만나는 일이 잦으니 반갑습니다.

“이번 한 달이 재선이에게 유익하겠지만 동결 학생에게도 유익하면 좋겠어요. 팀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여름을 잘 보내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김재선 씨가 일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제 말에 경청해 주시고 의견도 잘 말씀해 주세요. 덕분에 저도 미리 잘 준비해서 김재선 씨를 만나고 있어요. 김재선 씨와 함께하며 더운 여름을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재선이가 말이 느리지만 잘 들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김재선 씨와 의논한 이야기를 잘 듣고 의견도 보태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잘 설명하신 덕입니다. 다음 주부터 김재선 씨가 다닐 만한 학원을 찾으려 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과정을 통해 저와 김재선 씨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동걸

김재선 씨가 소개할 수 있게 제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아들의 이야기가 귀 기울이셨을 겁니다. 나들이에 어머니도 함께하신다니 반갑습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와 어머니가 나들이 계획하여 가신다니 고맙습니다. 취미 찾기와 나들이가 아들과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좋은 구실이 되네요. 오광환

## 머슬맥히트니스 관장님께 소식

김재선 씨가 관장님을 소개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맞춰 김재선 씨와 관장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저랑 취미 찾기 함께 하게 된 동걸 학생이에요. 진주부터 군산까지 멀리에서 왔어요.”

“동걸 학생 반가워요. 김재선 씨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덕분에 지원사도 미리 잘 읽었어요.”

관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취미 찾기와 관련해 서 의논했는데 관장님께서 김재선 씨의 강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재선 씨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운동하러 꾸준히 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인사도 정말 잘해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볼 때마다 항상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관장님 덕분에 김재선 씨의 새로운 강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선 씨가 한 달의 일정과 학원에 가서 할 만한 질문을 관장님께 설명해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김재선 씨에게 허락을 구하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김재선 씨의 설명에 관장님께서 경청하셨습니다.

“이거 재선 씨랑 함께 준비하신 건가요?”

“네. 의논해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학원에 가서 상담할 때 질문리스트를 보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리스트를 보니까 마음이 몽클하네요.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칠 수도 있을 텐데 김재선 씨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아서 제가 기뻐요.”

“김재선 씨가 열심히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재선 씨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김재선 씨를 바라보시며 귀한 말씀을 해주셨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관장님과 나들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김재선 씨가 어머니랑 미술 관련해서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군산시립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생각보다 장소가 크지 않아서 볼 게 적

더라고요. 혹시 꼭 미술관이어야 될까요?”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실까요?”

“서천에 시큐리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풍경이 좋아서 어머니와 나들이로 가시는 거면 추천해요. 서천해양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가족과 네 번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가면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하하.”

관장님께서 시큐리움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니 이번 나들이에 동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과도 좋지만 김재선 씨가 취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찾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김재선 씨를 응원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재선 씨 곁에 관장님처럼 좋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장님의 응원과 격려가 김재선 씨에게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김재선 씨와 학원 찾으러 갑니다. 김재선 씨가 관장님처럼 좋은 한 분, 다닐 만한 한 곳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한동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관장님의 모습을 통해 당사자가 만날 만한 사람, 갈 만한 한 곳의 의미를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재선 씨와 함께할 만한 한 사람, 갈 만한 한 곳. 취미 찾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길성

관장님께서 김재선 씨의 여러 강점을 이야기하셨네요. 흘러들지 않고 하나하나 강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니 고맙습니다. 나들이 장소까지 추천해주셨다니 관장님께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의 삶으로, 김재선 씨의 둘째 사람과 이뤄가는 사회사업에 재미와 의미를 느끼는 한동걸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오광환

## 학원 목록 작성

김재선 씨와 갈 만한 학원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재선 씨, 내일부터 학원에 직접 다녀보기로 했지요? 김재선 씨가 정하신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의논한 내용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집이랑 가까우면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집이랑 가까운 학원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어요. 원데이클래스를 예약하거나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신청해보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집 근처에 있는 미술학원, 미술공방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스튜디오모링크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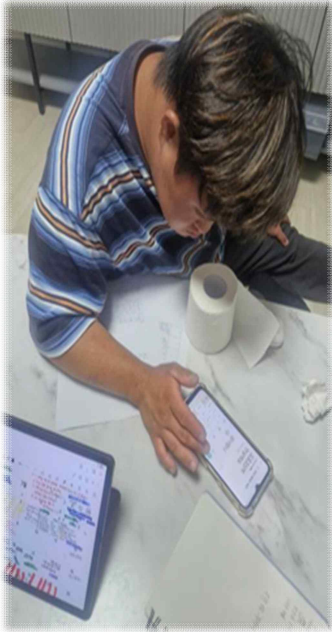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김재선 씨가 긴장하셨는지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옆에서 질문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김재선 씨가 리스트를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상담받으려고 전화했습니다.”

김재선 씨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말씀하시고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내일 원데이클래스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가능할까요?”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공방을 운영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공방 다시 시작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 네 곳에 더 연락했으나 김재선 씨가 갈 만한 학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학원은 장애인반을 만들어 따로 수업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니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김재선 씨는 특정 대상만을 위해 운영하는 수업이 아닌 여느 청년이 이용하는 수업

에 참여하시기로 의논했으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학원 선생님께 설명해드렸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며 수송동에 있는 흥익뉴엘미술학원을 소개해주셨고 연락처도 알려주셨습니다. 소개해주신 학원에 전화하니 미리 소개를 받았다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의논하여 수요일 세 시로 예약하고 다른 날짜에 방문할 곳도 다시 의논했습니다.

“김재선 씨,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송동에 공방이나 학원이 많으니 검색해보면 좋을 거 같은데 거리가 멀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수송동에 있는 학원을 찾아봐요.”

“네. 계속 찾아봐요.”

김재선 씨와 찾아보니 수송동에 있는 학원도 찾기가 만만치 않았습다.

“저희는 기존 원데이클래스의 예약이 딱 차서 힘들 거 같습니다.”

“성인반은 운영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검색하고 전화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니 김재선 씨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재선 씨, 전화하셔서 설명하시는 게 힘들면 저한테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볼게요.”

김재선 씨가 본인 일로 여기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고

마왔습니다. 김재선 씨의 강점인 성실과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 곳에 다시 전화하여 상담하다 보니 김재선 씨의 강점은 빛을 발했습니다. 몇몇 학원을 김재선 씨의 일정에 맞춰 예약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취미를 찾는 과정을 본인 일로 감당하시니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가 다닐 한 곳, 함께할 한 사람을 잘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한동걸

거절당하는 일도 김재선 씨가 감당하실 일입니다. 이 또한 김재선 씨의 경험입니다. 시도해보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김재선 씨를 여느 30대 청년처럼 도우려는 뜻이 귀합니다. 약자 전용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수단으로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검색하고, 상담할 만한 곳을 찾고, 전화하고, 예약까지 하셨다니 많은 일을 하시게 도와드네요. 김재선 씨가 어려워하실 때 질문리스트를 보여드리며 직접 이야기하시게 도와드니 고맙습니다. 준비하더라도 김재선 씨가 어려워하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김재선 씨가 동의하는 모양새에게 여쭙보고 대신하거나 심부름 노릇하며 거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광환

## 원데이클래스① 미미네 공방

미미네 공방은 집에서 버스를 타면 25분 정도 걸립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김재선 씨가 예약하였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오후 두 시에 예약한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오후 2시로 예약되셨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뵙겠습니다.”

김재선 씨와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원데이클래스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는 풍경이랑 캐릭터에 관심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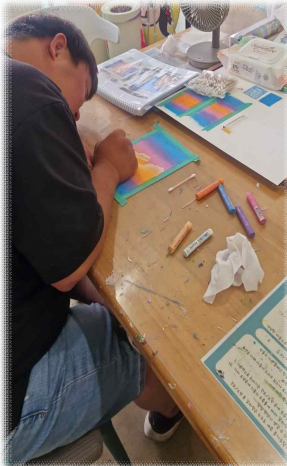
“그러시면 어떤 유형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유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재선 씨께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유화도 많이 하시고 도자기도 많이 하십니다. 초보자는 오일파스텔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김재선 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선생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일파스텔을 해보고 싶어요. 완성된 그림이 예쁘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림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풍경, 동물, 인형 등 종류가 많아요.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선 씨가 선생님이 주신 그림모음집을 보셨습니다. 한 장씩 넘기실 때마다 해볼 만한 게 많아서인지 선택하시는데 어려워 보였습니다.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김재선 씨,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풍경이랑 캐릭터 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둘 중에 어떤 거 그리고 싶으세요?”

“음~ 저는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풍경 쪽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김재선 씨가 여러 그림을 살폈습니다.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니 신중하게 고르셨던 거 같습니다.

“이거로 그려볼게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몇 번 시범을 보이시니 김재선 씨가 잘 따라 그리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흰색, 살구색, 주황색 순으로 색칠해볼게요. 천천히 하시고 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김재선 씨가 중간에 모르거나 실수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께 바로 여쭙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에 색칠을 잘 못 했는데 괜찮을까요? 여기는 면봉으로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하셨을까요?”

느리지만 꼼꼼하게 그리셨습니다. 집중해야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리기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김재선 씨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공방 선생님과 하실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수업하며 자주 웃으셨습니다. 만족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재선 씨의 첫 공방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김재선 씨, 오늘 공방 수업은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직접 체험하니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학원 찾으시는 기준을 위치, 비용, 수업 방식과 환경 등으로 정리했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1층이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계단 안 내려와도 되니까요.”

“그렇네요. 1층이면 계단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범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신 게 좋았어요. 쉽게 따라하면서 그릴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좋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방 안에 여러 가지 작품이 있고 깔끔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은 주 1회로 했을 때 월에 15만 원이네요. 내일은 다른 학원 가보시고 비교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내일 또 함께 열심히 찾아봐요.”

열심히 찾아보자는 김재선 씨의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여러 학원에 가보며 김재선 씨의 기준으로 선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김재선 씨의 일로 잘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한동걸

김재선 씨가 수업할 때 한동걸 선생님이 거들 일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온전히 김재선 씨와 선생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과 선생님의 몫으로 수업을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직접 예약하고 원데이클래스를 받으셨네요. 김재선 씨의 몫과 선생님의 몫으로 수업을 지원하셨다니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가 수업 받으셨으니 어떠셨는지도 물어보아야지요. 김재선 씨가 구체적으로 평가하니 감사하네요. 잘 정리해서 학원을 선택하시게 도와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원데이클래스② 홍익뉴엘미술학원

홍익뉴엘미술학원은 버스 타는 시간과 걷는 시간을 합하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학원 선생님께 추천받아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재선 씨가 질문리스트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학원에 도착해서 김재선 씨가 상담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상담이랑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김재선 씨 맞으시죠? 이야기 들었어요. 더우니까 음료수 가져다드릴게요.”

다른 학원 선생님의 소개로 예약했는데 기억하시고 성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김재선 씨는 상담받으며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은 두 분이 더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수업하지 못하는 날은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가 방문하면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리스트에 있던 질문 외에도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

선생님께서 잘 들으시고 답해주시니 김재선 씨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 가져온 그림을 보여드리니 세심하고 꼼꼼하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질문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아서인지 상담이 길어졌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재선 씨가 상담을 충분히 받았으니 집에 가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 상황을 보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피곤해서 그림 그릴 때 집중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다음 주에 와서 수업하며 그림 그리면 안 될까요?”

“김재선 씨, 어제 그림 그리실 때 집중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어렵다고 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더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려보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떤 게 옳은 선택일지 궁리하다가 김재선 씨의 일이나 김재선 씨와의 논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 다녀오셔서 피곤하셨겠으나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니 어제처럼 집중하셨습니다. 잘 여쭙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은 어떠셨는지 여쭙습니다. 갈 때는 어제 수업하신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돌아올 때는 오늘 수업하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직접 체험하고 기준을 세워 평가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곳을 더 다녀보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김재선 씨가 본인 일로 여기며 과정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잘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한동걸

오늘은 제가 동행하지 않았지요. 한동걸 선생님과 김재선 씨만 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일정 마치고 오신 김재선 씨가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동걸 선생님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짐작했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김재선 씨의 강점을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최길성

김재선 씨가 궁금하신 게 많았군요.

상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니 학원 선생님도 김재선 씨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셨나 봐요. 어제 보았던 김재선 씨의 강점을 세워드리며 제안하니 오늘도 수업하셨군요. 돌아오며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후기도 들려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수업하며 김재선 씨가 갈 만한 곳을 스스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광환

## 네 곳의 방문 상담

### 빛그림자 미술학원

김재선 씨와 카페에서 의논했습니다. 오늘은 예약 없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방문하여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송동에 도착하여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재선 씨가 학원 선생님께 인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반 상담하러 왔습니다.”

“아~ 혹시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시는 걸까요?”

김재선 씨는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상담받으러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재선 씨께서 선생님의 상담 태도가 시원시원하고 본인을 배려해주셔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수업받고 싶은 시간에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니 선생님께서 학원 두 곳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가야 할 곳을 정했습니다. 두루 다녀보며 얻은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이파이브 미술학원

두 번째 학원에 방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김재선 씨에게 수업을 설명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별로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가 입시 학원이다 보니 주변 시선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재선 씨는 속도가 느려 보이셔서 제가 다른 한 곳을 추천해드려 볼게요.”

학원 선생님은 교회에서 장애가 있는 분과 수업하신다는 작가님을 소개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는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의논 하여 허락을 구하고 학원 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김재선 씨의 연령대에 보통 수강생처럼 취미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원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를 생각해서 제안하신 것도 있으셨겠으나 서로 맞지 않으니 정중히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김재선 씨, 방금 가신 곳은 어떠셨나요?”

“별로예요. 그림도 잘 그리시는 것 같고 설명도 잘해주셨는데 다른 선생님을 추천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별로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다른 선생님을 추천했는데 교회 쪽 선생님을 추천해준 거요. 추천하면서 말씀하시는 태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후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무엇을 느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표현과 평가, 김재선 씨의 강점입니다.

#### 오후화실 미술학원

다른 학원으로 가는 길에서 학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동걸 학생. 저기 뒤에 학원 있어요.”

“그렇네요. 저기도 한번 가보실래요?”

“네. 저기도 한번 가볼래요. 또 다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계획하지 않았으나 김재선 씨가 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학원에 방문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관심 있어 하는 풍경화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디자인 분야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상담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들으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그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보면서 궁금했어요.”

“애니메이션은 한 장면을 여러 장면으로 그리는데 그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김재선 씨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해결한 듯이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재선 씨, 방금 다녀오신 곳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분야랑 상관없지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니까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리스트에 없던 것도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취미 찾기를 본인 일로 여기시는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 아트앤아트미술학원

마지막 학원에 갔습니다. 아트앤아트 미술학원은 전화로 상담할 때 반응이 좋지 않았던 곳입니다. 김재선 씨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저는 내심 걱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반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다르게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김재선 씨에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선생님이 편하게 상담하셨습니다.

“이 작품들이 김재선 씨가 직접 그리고 쓰신 거죠?”

“네. 이거 제가 직접 다 그리고 글자도 썼어요.”

“글자는 무슨 의미예요?”

“이건 이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써봤어요.”

선생님은 김재선 씨가 섬세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업 방식과 비용 등 김재선 씨가 궁금한 것은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듣고 답변 해주시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쭙보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곳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전화했던 거랑 다르게 되게 목소리가 차분하시고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갔다 온 곳 중에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다 좋은데 마지막에 다녀온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방식도 일대일 수업이고 비용도 저렴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오늘 김재선 씨와 네 곳에 다녀왔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니 김재선 씨가 더 다양한 선생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다녀온 학원을 김재선 씨와 잘 정리해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재선 씨가 갈 만한 한 곳, 함께할 만한 한 사람을 찾으시게 잘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한동걸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곳이나 방문해서 상담했네요. 학원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곳에 직접 가보신 경험이 다른 때에, 다른 복지를 이룰 때에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재선 씨도 기억하시겠죠. 다니면서 어땠는지 잘 표현해주신 김재선 씨에게 고맙습니다. 기준을 세웠으니 장단점을 따져서 김재선 씨가 스스로 선택하시게 거들면 좋겠습니다. 최길성

직장 마치고 네 곳에 가서 상담하고 오셨군요. 여느 사람이 취미를 찾을 때 예약하고 가기도 하지만 직접 학원에 가서 상담하기도 하지요. 여러 방법으로 학원을 찾고 상담하니 좋습니다. 김재선 씨가 상담하시게 지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반응에 한동걸 선생님도 느끼는 게 많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한동걸 선생님의 글처럼 김재선 씨가 갈 만한 한 곳, 함께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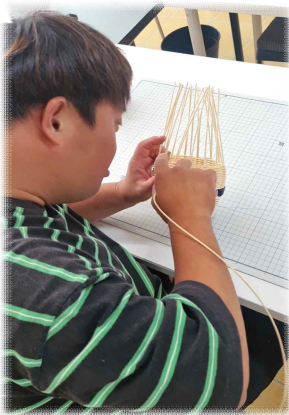
끝까지 김재선 씨의 몫으로, 김재선 씨가 감당하시게 잘 도우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원데이클래스③ 쏘쏘네손공장 공방

김재선 씨가 예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공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하니 질문리스트를 놓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대로 질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저에게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에 체험하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김재선 씨가 미술도구를 보관할 연필통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라탄공예라고 하는데 손으로 하나하나 꼬아서 만드니 집중이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김재선 씨가 라탄을 하나씩 번갈아 꼬며 연필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워하시니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잘 따라하셨고 요령을 찾으셨는지 금세 적응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드는 속도가 느린데 이해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김재선 씨는 느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속도가 뭐가 중요한가요? 재미있게 수업하고 가시면 그걸로 된 거죠.”

선생님께서 묻지 않으셨으나 김재선 씨는 가져온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작품을 보시고 작게 글씨를 쓴 걸 보니 꼼꼼하고 세심하다고 강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재선 씨와 선생님이 수업하셨습니다. 수업은 선생님과 수강생의 몫이니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업 중에 김재선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글라스 꾸미기 체험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공방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김재선 씨, 오늘 학원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어요. 드라마 잘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이번 주에 갈 만한 곳은 다 다녀봤는데 어디가 제일 좋으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고 정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갔던 학원을 같이 정리해보요.”

방문한 학원은 일곱 곳인데 기준에 맞는 학원은 세 곳입니다. 다음 주에 김재선 씨가 어머니와 만나는데 학원을 두고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의논하며 다닐 만한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한동걸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놓고 오셔서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해본다고 하셨다니 고맙습니다. 오히려 상담하고 수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평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재선 씨의 일로, 김재선 씨가 주인 노릇하게 도운 덕입니다. 최길성  
오늘은 라탄공예를 배우셨네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까지 다양하게 체험하시니 좋습니다. 질문지는 놓고 왔지만 작품은 들고

가셨으니 선생님도 김재선 씨의 강점을 잘 알아봐 주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가 보고 정하신다는 김재선 씨의 말씀이 반갑습니다. 김재선 씨의 일로 여기시니 고맙습니다. 오광환

## 큐티헤어 원장님께 인사와 소식

김재선 씨가 단골 미용실에 가는 날입니다. 원장님은 김재선 씨가 동네에서 종종 만나는 둘째 사람입니다. 머리카락 자르러 가는 김에 원장님께 인사시켜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김재선 씨가 나들이 갈 만한 장소도 여쭙보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씨, 어서 와요. 오늘 예약하셨죠?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취미 찾기 도와주게 된 한동걸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재선 씨와 취미 찾기를 함께하게 된 실습생 한동걸입니다.”

“아~ 실습생이세요? 저는 다른 담당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김재선 씨가 소개해주신 덕분에 인사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을 다녀오셔서 피곤하셨는지 김재선 씨가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즐겼습니다. 원장님께 나들이 장소를 여쭙보기로 했었으니 김재선 씨를 대신해서 여쭙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김재선 씨와 어머니께서 미술 나들이를 다녀오시기로 했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곳은 서천에 시큐리움인가? 거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헬스장 관장님도 시큐리움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원장님도 추천해주셨으니 김재선 씨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머리 정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서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나들이 장소 여쭙보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김재선 씨가 졸고 계시는데 깨워서 나들이 장소를 여쭙보게 돕는 게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김재선 씨가 일어나시면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감박하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들이 장소를 여쭙보는 게 김재선 씨의 일에게 잘 도우려 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재선 씨보다 앞서서 여쭙본 것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내일 김재선 씨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선 씨의 일로, 김재선 씨가 하시게 잘 기다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한동걸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찰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천을 돌아보며 성찰하니 고맙습니다. 사과해야겠다는 마음도요. 최길성

김재선 씨와 미용실 원장님이 나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우려는 목적이 있었지요. 직장 다녀오신 김재선 씨의 체력을 살펴 미리 여쭙는 것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필요했을 겁니다. 김재선 씨가 일어나셨지만 설명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요. 스스로 성찰하며 김재선 씨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를 사람으로 보고, 김재선 씨가 삶의 주인 되게 도우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네요. 성찰하는 사회사업가 한동걸, 고맙습니다. 오광환

## 어머니의 감기

이번 주에 김재선 씨와 어머니가 나들이 가시기로 했습니다. 나들이에 앞서 어머니와 만나 나들이를 의논하기로 해서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서 내일 만나는 게 어렵겠어요. 이번 주 나들이 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나들이 가시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아들과 둘이 첫 나들이를 함께하시려고 했던 마음만으로도 김재선 씨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저와 김재선 씨는 나들이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동행은 어려워도 오가는 길에 김재선 씨가 소식 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한동걸

아쉽지만 다음을 기억해요.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 갈 만한 때가 있겠지요. 그 때 어머니께서 오늘을 기억하고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들이 오가며 소식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최길성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김재선 씨가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지원하니 이런 일도 자연스럽네요. 나들이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다녀온 소식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군산 나들이 의논

김재선 씨와 학원을 한두 곳 정도 더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최길성 선생님이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돌아다니신 김재선 씨의 건강을 먼저 살펴보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들 중에 하루는 학원 찾는 것보다 가볍게 군산

돌면서 나들이하는 일정으로 바뀌보면 어떨지 김재선 씨와 의논했습니다.

“김재선 씨, 혹시 내일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내일 저번 주에 갔던 학원 한 번 더 가보면 좋겠어요.”

“최길성 선생님과 김재선 씨 컨디션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건강을 먼저 잘 살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바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학원에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괜찮아요. 제안이에요.”

“건강이요? 아~ 네. 좋아요. 미술관 가면 어디로 가죠?”

“찾아보니 군산대 전시회장, 이당미술관, 군산 근대미술관 이렇게 세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으셔도 하나를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김재선 씨의 일정이니까 그래도 한 곳 정도는 미리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전시회 가고 미술관도 가볼래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전시회랑 미술관 같이 다녀와요.”

“네.”

“저희 나들이 가기로 했던 계획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장님, 학원 선생님, 미용실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곳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정해보면 좋겠어요.”

헬스장 관장님과 미용실 원장님이 시큐리움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검색해보니 아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 같았습니다. 김재선 씨가 여느 청

년, 그 연령대에 맞게 나들이 가지길 바랐습니다. 추천받기는 했으나 시  
큐리움은 한 번 더 의논하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씨, 나들이 가지면 저녁은 여기서 드시면 어떠실까요? 돈가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맛집인 것 같아요.”

“저 돈가스 좋아하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돈가스 말고 드시고 싶은 음식도 있을까요?”

“저 순대국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 여기 군산순대국밥 맛있어  
보여요.”

김재선 씨와 의논하여 나들이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과 먹  
고 싶은 것이 분명하니 의논이 수월했습니다. 이번 나들이 계획이 언젠  
가 어머니와 가신다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재선 씨와 의논하니  
어머니와의 나들이도 충분히 잘 계획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점이 많은 김재선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한동걸

김재선 씨의 건강을 살펴서 이틀 중에 하루는 편안하게 군산에 있는 미술관 나  
들이 다녀오기로 했지요. 이런 이유를 잘 설명하고 다시 의논해주셔서 고맙습  
니다. 맛있는 식사하고 맛있는 작품 구경하며 편안하게 하루 놀다 오시면 좋겠  
습니다. 오광환

## 군산 나들이

김재선 씨와 군산대 미술관, 이당미술관, 근대미술관까지 세 곳을 다녀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면 흥미가 생기거나 해보고 싶은 분  
야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군산대 미술관

군산대 미술관은 운영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김재선 씨가 가기 전에 전화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지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재선 씨와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회 왔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김재선 씨가 그림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림에 생기가 있고 젊음도 느껴졌습니다.

“김재선 씨, 이거 이누야샤 아니에요?”

“어 그렇네요. 이누야샤 아세요?”

“그럼요. 김재선 씨가 이누야샤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재선 씨는 본인의 관심사로 대화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관심 있는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생각나서 이누야샤를 여쭙보았습니다. 같이 본 그림 하나의 제목이 ‘간직’이었습니다. 문득 김재선 씨가 이번 여름의 경험과 추억을 잘 간직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당미술관

이당미술관에 갔습니다. 들어가니 미술관 안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음료를 구매해야 미술 관람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여쭙

보시면 좋았겠으나 직원들이 바빠서 기다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선 씨에게 허락을 구하고 대신 여쭙보았습니다. 관람만 해도 괜찮다고 해서 김재선 씨와 둘러보았습니다.

“김재선 씨, 여기 작품들이 엄청 비싸네요.”

“그러게요. 엄청 비싸네요.”

“그래도 작품명을 보면 다 꽃 이름이네요. 김재선 씨는 꽃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꽃에 관심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꽃을 보면 예쁜 것 같아요.”

모든 작품에는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재선 씨가 작품들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김재선 씨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니 꽃이 핀 것 같았습니다.

### 군산근대미술관

군산근대미술관이 근처에 있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입장권이 필요해서 김재선 씨가 이용권을 살 수 있도록 거들었습니다. 들어가니 미술관보다는 사진관에 가까웠습니다. 사진에 예술을 담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김재선 씨, 여기는 미술관보다는 사진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김재선 씨가 작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김재선 씨는 여러 사진 중에 폭포, 낙엽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좋다는 말씀이 그림과 잘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김재선 씨가 폭포와 낙엽을 직접 그리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김재선 씨와 세 곳의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김재선 씨는 군산대미술관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김재선 씨에게 작은 소망을 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다녀온 소식도 돌려 사람에게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한동걸

미술을 좋아하시는 김재선 씨가 미술관 둘러보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으로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작품을 관람하는 게 즐거우셨다니 작품 관람 자체가 취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재선 씨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작품, 그 작품을 김재선 씨도 전시해 볼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작품을 관람할 때 본인만의 취향이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다녀보면 그 취향이 더 뚜렷해지겠습니다. 미술관 함께 찾고 작품도 관람하고 오셨다니 김재선 씨에게도, 한동걸 선생님에게도 오늘 하루는 휴가 같았겠습니다. 때마다 김재선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나들이도 김재선 씨의 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원데이클래스 예약

관심 있는 학원에 재방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재선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김재선 씨, 저번 주에 갔던 학원들 기억하세요?”

“몇 곳은 기억나는데 몇 곳은 기억이 안 나네요.”

김재선 씨가 기억하실 수 있게 학원별로 메모해둔 특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금세 떠올리시며 학원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내일 다녀왔던 학원 중에 하나 고르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았는데요.”

“홍익뉴엘미술관은 자주 가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어서 쉽게 갈 수 있겠다고 하셨고, 소금인형화실은 거리가 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셨다고 하셨었네요.”

“그러면 소금인형화실 다시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연습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여기 한번 가볼게요.”

김재선 씨의 의지가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김재선 씨가 바로 학원에 전화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원데이클래스 진행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혹시 김재선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께선 김재선 씨를 기억하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먼저 설명하시고 저에게 덧붙일 이야기를 부탁하셔서 선생님과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혹시 내일 원데이클래스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세요.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유채화에 관심이 있으니 아크릴 물감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지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의논하니 아크릴 물감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크릴 물감 수업으로 오후 2시 30분에 예약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수업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김재선 씨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수업을 예약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신 곳이라 앞으로 다니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도 김재선 씨를 기억하신다는 게 반가웠지만 외모와 복장을 잘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외모와 복장도 잘 살피려고 합니다. 김재선 씨가 갈 만한 한 곳, 함께할 만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곳이라 생각하니 더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한동걸

선생님께서 김재선 씨를 기억하셨네요. 전화로 상담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 순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김재선 씨도 학원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궁리하여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최길성

전화로 상담할 때 수업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학원 선생님이 추천 해주셔서 수업하니 오히려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네요. 김재선 씨가 한 번 더 가고 싶은 이유가 있겠지요. 한동걸 선생님의 복장, 김재선 씨의 복장을 잘 살펴 가겠다니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를 품위 있게, 김재선 씨의 강점이 드러나게 지원하려는 뜻이 귀합니다. 오광환

#### 원데이클래스④소금인형화실 공방

예약한 시각에 맞춰 김재선 씨와 학원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클래스 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선 씨 오셨네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수업은 아크릴 물감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휴대폰에 있는 캐릭터를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는 게 서툴렀지만 수업은 김재선 씨와 선생님의 몫이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그리시다가 실수하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른 분들을 봐주시다가 김재선 씨에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눈 부분 틀렸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여기죠? 나중에 흰색으로 덧칠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는 오전에 일하신다고 하셨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전에 환경미화 작업해요.”

“그럼 야외에서 하시는 거예요? 실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야외에서 해요.”

“더운데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집에 계실 때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림 그릴 때도 있고 글씨 쓸 때도 있어요.”

“아~ 저번 주에 보여줬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재선 씨와 선생님이 수업하며 일상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대화하고 수업하다 보니 그림을 다 그리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셨습니다.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김재선 씨,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다른 분을 가르치면서 저에게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그렇네요. 오늘 그림 잘 그리셨는데 어머니와 관장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보내볼게요.”

취미 찾기를 구실로 김재선 씨가 소식 전하시길 바랐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본인이 만든 작품을 촬영해 보내드리며 좋아하셨습니다.

김재선 씨는 학원마다 장단점이 분명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의논하여 스스로 잘 선택하실 수 있게 거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한동걸

사회사업가는 김재선 씨의 그림 실력보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시선이 가야 하지요. 김재선 씨가 실수하셨더라도 한동걸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지도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수업을 김재선 씨와 선생님의 몫으로 여기니 고맙고요. 최길성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김재선 씨가 선생님께 직접 여쭙고 배우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잘 그리고 싶은 김재선 씨의 의지가 눈에 띄네요. 한동걸 선생님이 하실 일이 없었다는 글이 반갑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소식도 전했다니 잘했네요. 김재선 씨가 어떤 학원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오광환

## 미술 나들이 의논

김재선 씨와 카페에서 미술 나들이를 의논했습니다.

“김재선 씨, 내일 비가 온다고 하네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희리산 트레킹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헬스장 관장님과 미용실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서천에 시큐리움이나 국립생태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두 곳 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 곳을 골라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물고기 보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동물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음~”

“여기 동물 중에 펭귄이랑 북극곰도 있네요.”

“그러면 국립생태원 가볼게요. 펭귄 좋아하거든요.”

“네. 국립생태원 가는 길에 미술관도 구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남궁안옥갤러리라고 풍경 그림 위주로 전시했다고 하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김재선 씨가 홍굴이해물짬뽕에서 탕수육까지 먹자고 하셨습니다. 점심은 김재선 씨께서 대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미술나들이를 갑니다.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김재선 씨도, 저도 아쉽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제안했고 가시려고 마음먹으셨던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나들이도 소식 전하기 좋은 구실입니다. 김재선 씨가 오가는 길에 돌려

사람에게 소식 전하며 연락하실 수 있도록 잘 거들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한동걸

김재선 씨의 삶은 단기사회사업이 끝나도 이어집니다. 어머니와 나들이 떠날 기회는 많을 거예요.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일의 나들이를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성

의논하며 김재선 씨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여쭙보니 스스로 잘 선택하시네요. 둘째 사람이 추천해주신 장소로 나들이를 계획하니 고맙습니다. 다녀와서 감사인사도 잘 전하시게 거들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미술 나들이

김재선 씨와 미술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김재선 씨, 준비 다 하셨어요?”

“네.”

나들이를 출발하며 김재선 씨가 어머니와 관장님께 잘 다녀오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재선 씨, 어제 국립생태원을 가기로 의논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요. 비 오기 전에 바다를 먼저 보고 가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비 오면 바다 잘 못 보죠.”

“바다 근처에 관장님과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시큐리움이 있어서 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비 와서 국립생태원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기대했던 푸른 바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김재선 씨, 바닷물이 없네요. 썰물 시간대인가 봐요.”

“그러게요.”

“좀 이따가 오후 4시나 5시가 밀물 시간대라고 하니 그때 와서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물이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와보기로 하고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가기로 했던 미술관 입구를 강아지들이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재선 씨와 의논했습니다.

“김재선 씨, 여기 무창포 미술관 있는데 여기는 어떠신가요? 여기 보시면 풍경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한번 가봐요.”

전화로 먼저 관람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무창포미술관에 갔습니다.

“김재선 씨, 지금 진행하는 테마는 ‘작은 정원’인가 봐요.”

“네. 좋아요.”

“엄청 디테일하네요. 김재선 씨도 나중에 이렇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김재선 씨는 미술관에서 부엉이 그림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자세히 그려서 인상 깊고 실제 같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의 취향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강점입니다.

미술관을 둘러보고 근처에 유명한 카페로 갔습니다. 쉬면서 둘레 사람에게 드릴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씨, 어떤 분에게 선물을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가족이랑 관장님이요.”

“네. 그리고 김재선 씨 큐티헤어 원장님 선물도 준비하면 어떨까요? 이번 나들이 장소도 추천해주셨으니까요.”

“네. 좋아요.”

“저희 갔었던 학원 선생님께도 작은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에게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음~ 모두 다요.”

“다녀오신 곳을 다 가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소금공방 선생님 선물을 사다 드리고 싶어요. 그림 그릴 때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좋아요. 선물로 드릴 빵을 한번 골라봐요.”

선물을 사서 나왔고 근처에 바다로 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물이 짙았습니다. 우연인지 비도 잠시 그쳤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김재선 씨, 저기 바다 너머에 하늘 풍경 이쁘지 않아요?”

“네. 이쁜 것 같아요.”

“나중엔 어머니랑 바다 보러 같이 오셔도 좋겠네요.”

“네. 엄마랑 바다 보면 좋겠네요.”



김재선 씨와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으로 다녀오지 못했지만 때마다 김재선 씨와 의논하며 나들이를 잘 누리시게 돕고자 했습니다. 2주 동안 오전은 일하러 가시고 오후는 취미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셨으니 오늘 하루가 김재선 씨에게 쉼이었기를 바랍니다. 양손 가득히 돌려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사셨으니 감사인사로 마음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한동걸

나들이 가는 김에 미술관도 들리니 좋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들이 마치니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전화하셨지요. 한동걸 선생님이 김재선 씨가 하실 수 있게 잘 거들어 준 덕분입니다. 최길성

비 오는 날에 떠나는 여행, 낭만 있고 즐거웠겠습니다. 무창포는 원래 가려던 곳보다 더 멀리 가야 했을 텐데 김재선 씨가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덕분에 미술관도 한 곳 더 들리고 선물도 샀고요. 사진을 보니 김재선 씨뿐만 아니라 한동걸 선생님도 여행을 잘 누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연락하셨다니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같이 여행하고 계셨겠습니다. 오광환

## 머슬맥히트니스 관장님께 감사

오늘은 둘레 사람에게 나들이 잘 다녀왔다고 감사인사 드리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관장님께 오늘 아침에 미리 연락드려 카페에서 만나도 괜찮으시진 여쭙었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김재선 씨가 관장님께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재선 씨, 이게 뭐예요?”

“나들이 가서 관장님께 드릴 타르트 사 왔어요. 나들이 장소 추천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재선 씨. 가족이랑 잘 먹을게요. 나들이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장소 추천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여기 시큐리움 가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북극곰이랑도 사진 찍었습니다.”

“표정 보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네요.”

“이때 재밌었어요. 고래 뼈 크기가 정말 컸어요.”

김재선 씨가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김재선 씨가 직접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음~ 여행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재선 씨도,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재선 씨와 함께하니까 재미있게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관장님께서 지난 주에 학원은 잘 다녀왔는지 여쭙보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학원을 다녀온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정리한 리스트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재선 씨와 둘러보고 수업 받은 학원을 따로 모아 정리해 놓은 목록입니다.”

관장님께서 자세히 보셨습니다.

관장님 | “재선 씨가 의견도 정리하시고, 특징도 자세히 정리하셨네요. 이러면 확실히 비교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때 수월하실 것 같네요.”

한동걸 | “네. 김재선 씨가 많은 곳을 가셔서 헛갈릴 수도 있으니 의견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장님 | “그러면 재선 씨가 가실 학원은 정해진 건가요?”

김재선 | “소금인형화실 공방으로 정했어요. 전화 상담할 때는 어렵겠다고 하셨는데 직접 가서 상담하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가격도 싸서 괜찮아요. 학원은 시내버스로 가는 거 몇 번 연습하면 갈 수 있어요.”

한동걸 | “덧붙여 설명해 드리면 내일 김재선 씨와 어머니가 의논해서서 최종적으로 학원을 한 번 더 살펴볼 것 같습니다.”

관장님 | “그래요. 재선 씨도 선생님도 학원 찾는다고 열심히 돌아다니셨다니 정말 고생하셨네요. ‘고생했다’라고 밖에 말을 못 해서 미안하네요.”

한동걸 |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학원을 찾는 과정이 김재선 씨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원을 찾아보겠다고 김재선 씨가 소식 전할 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으로 김재선 씨가 흘리는 땀을 닦으며 두루 지역을 다니실 수 있지 않았을

지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응원과 격려와 지지로 김재선 씨를 세워주신 관장님께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한동걸

인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니 고맙습니다. 사회사업은 감사로 완성되지요. 김재선 씨와 관장님이 취미 찾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길성

격려의 말씀이 더운 날에 김재선 씨와 한동걸 선생님이 땀 흘리며 보냈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겠습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법으로 사회사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큐티헤어 원장님께 감사

큐티헤어에 갔습니다.

“어머~ 재선 씨 여기에 어떤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들이 가면서 사 온 선물 드리러 왔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과자예요. 나들이 장소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미있게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줘야 하는데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재선 씨!”

원장님과 직원들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장소를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선물을 전달하셨습니다. 김재선 씨가 직접 표현하니 감사한 마음이 더욱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가 구실이 되어 소식 전하고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재선 씨가 앞으로도 단골 미용실 큐티헤어에서 좋

은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한동결

인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니 고맙습니다. 김재선 씨와 원장님이 취미 찾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길성

김재선 씨가 무엇이 감사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니 고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소식 왕래하게 주신하는 일이 사회사업가의 일이지요. 사회사업가답게 사회사업 해주신 한동결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오광 환

### 소금인형화실 공방 선생님께 감사

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선물 전하려고 학원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재선 씨,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여기 미술 나들이 하면서 사 왔어요. 저번 주에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와~ 고마워요. 재선 씨, 근데 이게 뭐예요?”

“타르트인데 제가 직접 골랐어요.”

선생님께서 선물 받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수업하며 김재선 씨와 선생님이 휴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여쭙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행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시큐리움이랑 바다랑 미술관 다녀왔어요.”

“음~ 그러면 미술관은 시큐리움 근처에서 다녀오신 거예요?”

김재선 씨가 저에게 설명을 부탁하셔서 거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미술관 두 곳이 닫혀있어서 보령에 무창포미술관 갔다 왔습니다. 미술관 둘러보고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재선 씨가 감사인사드릴 겸 선물도 사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직접 골라 사 오셨습니다.”

“오와~ 보령이면 엄청 멀리까지 가셨네요. 고생했겠네요. 고마워요. 재선 씨, 잘 먹을게요!”

김재선 씨와 의논하여 8월이나 9월쯤에 등록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실지는 어머니와 다시 의논해야겠지만 김재선 씨의 마음에는 드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김재선 씨와의 수업이 기대된다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한동걸

학원에 등록하기로 하셨군요! 여행지 추천을 구실 삼아 감사드렸다니 잘했네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학원에 다니겠다고 말씀도 드리니 자연스럽습니다. 얼른 오셔서 수업하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김재선 씨도 힘을 얻었겠어요. 선생님께도 구실 삼아 인사드리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환

## 어머니께 감사

김재선 씨와 어머니께 감사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실습을 마치기 전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잘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들이를 못 간 게 아쉽네요. 미안해요. 같이 가야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졌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가시겠다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김재선 씨에게 큰 힘이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정리한 학원리스트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김재선 씨에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 “그러면 재선이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 소금인형화실 공방인가요?”

김재선 | “여기 선생님이 처음 전화 상담할 때는 어렵겠다고 하셨는데 직접 가니까 친절하시고 좋았어.”

실습생 | “네.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비용도 저렴했고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김재선 | “버스 타고 가는 거 연습하면 갈 수 있어.”

어머니 | “그래도 지금은 날씨가 더우니까 9월까지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서늘해질 때, 가면 좋겠네요. 알겠지 재선아?”

김재선 | “네.”

어머니 | “동걸 학생,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잘 이뤘으면 좋겠네요. 재선이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어머니께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다며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저녁을 대접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함께 식사하며 시간 보냈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란 기간이 김재선 씨에게도, 저에게도, 둘레 사람에게도, 짧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쉬움이 남았다는 건 좋았다는 증거일 거라 믿습니다. 그 아쉬움이 있기에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김재선 씨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여러 구실로 지역사회의 더불어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 김재선 씨,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한동걸

어머니의 식사 제안이 고맙습니다. 한동걸 선생님과 저녁 식사한다는 소식에 김재선 씨의 누나들께서 맛집 찾아서 추천해주셨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김재선 씨, 한동걸 선생님께 잘 대접하고 싶으셨겠지요. 아들의 일로 어머니 노릇, 누나 노릇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의정심하여 도운 한동걸 선생님 덕분에 저도 잘 대접 받네요. 고맙습니다. 최길성

어머니께서 식사 대접해주셨군요. 나들이 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 한 달 동안 아들의 취미 찾기를 도와준 한동걸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 이런저런 마음이 섞여 식사 한 끼로 잘 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잘 이뤘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다. 한 달 동안 김재선 씨의 취미 찾기 과업으로 사회사업 잘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룬 오늘인 것 같네요. 사회사업가 한동걸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광환

# 나우현 씨 여행

임성훈

## 나우현 씨와 여행 소개

나우현 씨는 군산에 살고 있는 30세 청년입니다. 웃음으로 들레 사람과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인사하고 지내는 들레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취미로 베이킹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단골로 다니던 카페에서 사장님과 의논하여 공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이자 공방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새빛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여러 성도와 교제합니다. 나우현 씨의 삶을 궁금해하고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가까이 지냅니다.

나우현 씨의 아버지는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명절은 본가에 다녀오거나 가족과 시간 보냅니다. 여느 청년이 그렇듯 가족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때마다 의논하여 선물 사서 들고 가십니다.

나우현 씨는 이렇게 공방 수강생으로, 교회 성도로,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인 나우현 씨는 일상을 잘 보내시다가 하루아침에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산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시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도 청년 나우현 씨의 여행을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나우현 씨와 이를 두고 의논했습니다. 지난가을에 군산과 멀지 않은 김제로 여행 다녀오셨습니다. 낮선 잠자리와 식사, 여행지였지만 나우현 씨는 불편함을 뒤로하고 즐거움을 더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나우현 씨의 환한 미소가 그 증거였습니다.

가능하면 더욱 자주 여행하시게 돕고 싶습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과 즐거움을 구실로 둘째 사람과 궁리하여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우현 씨는 대화가 어렵지만 표정과 행동을 잘 살피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나우현 씨에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이뤄가는 일조차 사회사업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25년 뜨거운 여름에 나우현 씨와 낭만 있는 여행을 함께할 학생을 기다립니다.

나우현 씨 전담 사회사업가 김현승

## 나우현 씨와 인사

전담 직원인 김현승 선생님이 나우현 씨에게 실습생을 소개하셨습니다.  
“나우현 씨, 앞으로 한 달 동안 나우현 씨와 함께 할 임성훈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면접 때 뵈었지요? 저는 나우현 씨의 여행을 거들게 된 군산대학교 임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우현 씨께 인사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인사하니 고개를 들고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맞추는 게 나우현 씨의 인사하는 방법 같았습니다. 인사에 반응해주신 나우현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와 인사로 시작하니 고맙습니다. 김현승

출근해서 정식으로 나우현 씨에게 인사하셨군요. 사회사업은 인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지요. 대화는 어렵지만 때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나우현 씨가 여행의 주인 되게 거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광환

## 다시 여행

김현승 선생님이 나우현 씨가 여행과 관련해서 좋아하시거나 함께 해볼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우현 씨에게 여행을 잘 설명하며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은파호수공원에서 물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해가 진 바다는 아직 보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나우현 씨가 젊은 사람들이 가는 유명한 여수 밤바다를 구경하러 가보시면 어떨까 싶

어요.”

나우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와 이번 여름 여행을 두고 미리 의논했습니다. 합동연수에서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었고 임성훈 선생님이 직접 나우현 씨를 지원하게 되었지요. 알고 계시더라도 임성훈 선생님이 직접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승

김현승 선생님이 나우현 씨와 미리 의논했었고 합동연수에서 일정을 다듬었지요. 임성훈 선생님이 나우현 씨에게 다시 여행을 제안하고 설명하니 고맙습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셨더니 나우현 씨도 임성훈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다 듣고 계셨음이 분명하네요. 오광환

## 오늘의디저트 선생님께 인사와 소식

정은선 선생님은 나우현 씨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자 공방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나우현 씨의 일로 여쭙보면 편하게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나우현 씨의 여행을 구실로 잘 여쭙고 싶습니다.

“나우현 씨, 오늘의디저트에 가면 여행 소식 전하고 정은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나우현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현관문을 열며 마중해주셨습니다.

“우현 씨, 왔어요? 오늘따라 기운이 좋으시네?”

“가아.”

나우현 씨를 대신해서 김현승 선생님이 실습생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임성훈 선생님은 저번이 정식 인사가 아니었나요?”

“그때는 면접이었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려요. 나우현 씨의 여행을 돕게 된 임성훈 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우현 씨 덕분에 정은선 선생님께 인사드렸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임성훈

정은선 선생님과 인사로 시작하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의 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잘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승

사회사업은 인사로 시작하지요. 나우현 씨에게 설명하니 ‘정은선 선생님’이란 단어에 웃으며 반응하셨네요. 문 앞까지 나와 마중해주셨다니 선생님께서 평소 나우현 씨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알 수 있네요. 인사로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정은선 선생님과 여행 의논

나우현 씨와 의논했던 내용을 나우현 씨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나우현 씨, 여행지는 정했어요?”

“아직 나우현 씨와 정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여행지를 안정했어요? 계획을 천천히 하신다니 제가 더 마음이

더 급한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우현 씨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겹고 친근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떠오르는 여행지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경천애인마을이라고 완주에 있어요.”

“경천애인마을이요!”

“거기는 펜션인데 물놀이장도 있고 한옥으로 된 독채가 따로 있어요. 근처에 얇은 계곡도 있어서 우현 씨가 발 담그시기에 좋을 거예요. 취사도 구는 없어서 먹고 들어가거나 시내에서 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현 씨가 멀리 가지 못하시면 충남에 서천, 부여, 공주도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다닐 거면 완주나 부안이 나올 거예요.”

정은선 선생님이 나우현 씨가 갈 만한 곳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임성훈

정은선 선생님께 여쭙니 경험과 더불어 갈 만한 곳 안내해주셨지요. 평소에도 나우현 씨의 컨디션을 잘 살피주시는데 여행지도 추천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김현승

사회사업가가 나우현 씨의 여행을 계획해주는 게 아니라 나우현 씨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지요. 정은선 선생님께서 여행지를 추천해주셨군요. 나우현 씨의 컨디션과 걷는 방식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추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레 사람에게 추천받은 곳을 잘 메모했다가 나우현 씨와 일정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공방 수업 예약

나우현 씨와 나들이 가서 먹을 간식을 공방에서 만들면 어떨지 미리 의논했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니 제가 나우현 씨의 심부름 노릇하며 수업을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다음 주에 나들이 가서 드실 빵을 만들려고 해요. 추천해주실 만한 메뉴가 있을까요?”

“우현 씨가 저번에 르벡쿠키는 만들어보셨고 파운드케이크나 마들렌 한번 해볼까 봐요. 빵은 발효 시간이 길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나우현 씨가 만들 때 편하셨던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럼 마들렌을 굽는 걸로 하고 이왕이면 한두 가지 정도 맛별로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시쯤 오면 될까요?”

“세 시쯤에 오셔도 괜찮고 우현 씨 나들이 가신다니까 편한 시각에 맞춰서 제가 준비할게요.”

“그럼 나우현 씨 공방 수업은 세 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우현 씨가 수업으로 할 만한 것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나들이 가기 전에 만든다고 하니 수업 시간도 맞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들이 준비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가 수업을 직접 예약하기 어렵지요. 임성훈 선생님이 대신 하더라도 나우현 씨에게 잘 설명해드렸다니 고맙습니다. 수업하는 김에 나들이 간식 만들기로 했군요. 선생님께 설명하고 의논하니 고맙습니다. 나들이 가서 직접 만든 간식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나들이 의논

지난 만남에 정은선 선생님께서 여행지를 추천해주셨습니다. 태블릿 PC를 보며 나우현 씨와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장소 중에 나들이 갈 만한 장소를 정해보려고 해요. 완주에 경천애인마을이라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냇가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살펴보니 냇가와 주변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다녀오시기 좋을 것 같아요.”

나우현 씨가 화면에 집중하며 나들이 장소를 살폈습니다.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장소가 여기예요. 생각보다 물이 깊지 않아서 걸을 만한 곳이더라고요. 아마 강 하류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초가집으로 만든 한옥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나우현 씨가 화면에 집중하면서 웃으셨습니다.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오시면 어떨까요?”

“음!”

나우현 씨가 사진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가려는 장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니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나우현 씨와 잘 준비해서 나들이 잘 다녀오시게 도와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들이의 주인은 나우현씨이니 그렇게 지원해야 하지요. 김현승

선택이 확실한지 알 수는 없지만 나우현 씨를 사람으로 보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지요. 과정마다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는 태블릿PC나 노트북에 화면을 보여드리면 집중을 잘하십니다. 의논할 때 블릿PC를 활용하셨다니 나우현 씨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나우현 씨의 나들이를 잘 돕고 싶은 마음을 나우현 씨가 아실 겁니다. 오광환

## 다음 만남

정은선 선생님께서 여행지를 추천해주셨으니 나우현 씨가 소식을 잘 전하시게 돕고 싶었습니다.

“나우현 씨, 정은선 선생님 덕분에 완주로 나들이 여행지를 정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선생님께 완주로 여행 간다고 소식 전하면 어떨까요?”

나우현 씨가 소식 전하고 싶다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식 전하러 오늘의디저트에 가자고 말씀드리니 반응하셨습니다. 나우현 씨와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외출하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왔다고 연락드리니 카페로 오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소식 전하실 수 있도록 거들어드려도 될까요?”

“음!”

나우현 씨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소식 전하려 했으나 손님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의 사정으로 오늘은 소식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우현 씨에게 설명해 드리고 차만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았으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임성훈

때를 살펴야 하는데 오늘은 계획하지 않은 방문이라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할 날이 많으니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나우현 씨가 차 마시며 바람 쐬신 것만으로도 의미 있겠습니다. 김현승

약속하고 선생님을 뵈러 간 게 아니라서 감사한 마음을 바로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우현 씨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의 디저트를 다녀오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정리해서 감사드려도 좋겠습니다. 오광환

## 돈가스 가게

외출 일정이 있어서 나가는 김에 외식하고 오시면 어떨지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는 돈가스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우현 씨와 지곡 동옛날돈가스에 갔습니다. 나우현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시켰습니다. 나우현 씨가 돈가스가 나오니 포크를 잡으셨습니다.

“나우현 씨, 맛있게 드세요!”

“가야!”

나우현 씨가 돈가스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돈가스를 드시고 계실 때 나우현 씨에게 어떤 돈가스를 드시고 싶은지 여쭙지 못한 게 생각났습니

다. 나우현 씨에게 잘 여쭙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다시 외식하거나 여행할 때 함께 식사한다면 그때는 잘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임성훈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성찰하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하고 성찰하는 임성훈 선생님이 귀합니다. 김현승

나우현 씨가 돈가스 드시고 오셨군요. 여느 사람도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외식하지요. 나우현 씨의 컨디션을 살펴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하도록 의논하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환

## 미용실 실장님께 인사와 소식

여느 청년이 그렇듯 여행하기 전에 잘 꾸미시길 바랐습니다. 그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실 때가 되기도 했으니 좋은 시기입니다. 나우현 씨와 미용실에 동행했습니다.

“나우현 씨, 여행을 즐기기 위해 미용실을 가보시면 어떨까요?”

“음!”

“나우현 씨, 미용실에 가는 김에 저희 여수 여행 소식도 전하고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여쭙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나우현 씨와 미용실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우현 씨를 보신 실장님께서 웃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팔 사이로 손을 넣어 잡아주셨습니다. 나우현 씨를 잘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우현 씨가 다음 주에 여수 여행을 가세요. 여행가는 기분이 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잘라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수에 추천해주실 만한 음식점이 있는지 여쭙봤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장터국밥인가 있어요. 특이한 국밥을 팔았는데 전 거기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머리카락 다듬고, 다듬는 김에 실장님께 소식 전하고 맛집 추천도 받았습니 다. 여행은 꾸미기 좋고, 소식 전하기 좋은 구실입니다.

2025년 7월 8일, 임성훈

나우현 씨가 여행 가시기 전에 머리카락을 다듬으셨지요. 여느 사람이 여행 가기 전에 본인의 외모를 살피고 가꾸지요. 나우현 씨를 여느 사람처럼, 여느 청년으로 지원하려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승

여행에 앞서 여느 청년처럼 꾸미게 도우려는 뜻이 있었지요. 나우현 씨가 다니시는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고 오셨네요. 미용실 실장님께 여수 여행 소식 전하고 맛집도 추천받으셨네요. 미리 나우현 씨와 의논하여 대신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리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와 의논해서 여유가 된다면 실장님이 추천해주신 맛집에 다녀와도 좋겠습니다. 오광환

## 아버지께 인사와 소식

나우현 씨가 여행 소식을 구실로 아버지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연락

하는 김에 실습생도 소개하시기로 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김현승 선생님과 의논하여 아버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 “김현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바빠서 금방 끊어야 하는데 우현이에게 무슨 일 있어요?”

김현승 |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우현 씨가 여수로 여행을 떠나 시려고 해요. 이번 여행을 함께하는 실습생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가능하실까요?”

아버지 | “바쁘긴 한데 잠깐 바꿔주세요.”

임성훈 |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지 | “네. 우현이 아빠입니다.”

임성훈 |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 | “저희 우현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훈 | “네.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얼굴 만나 뵈고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우현 씨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사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을 잘 부탁하신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의 일로 아버지 노릇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임성훈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일상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소식 전하고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구실로 아버지와의 통화를 주선하고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승

나우현 씨를 지원하니 가족에게 인사드려야지요. 아버지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전화로 인사해 주셨네요. 잘 좀 부탁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아들의 일로

아버지 노릇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일정을 조정해서 뵈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렵다면 나들이와 여행 소식을 종종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여행 숙소 예약

정은선 선생님과 미용실 실장님이 여수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나우현 씨와 이동하는 거리를 궁리하여 숙소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태블릿PC를 보며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여행 숙소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음.”

“나우현 씨,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호텔이에요. 침대도 있고 숙소에서 도시가 보여요. 가격은 1박에 16만원이네요.”

“이곳 말고도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가야.”

“여기는 펜션인데 바다가 보이고 9만 9천이네요. 침대도 있고 침구류도 깔고 바닥에서 잘 수도 있네요. 정은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모사금해수욕장과 멀지만 실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여수광장국밥과는 가깝네요. 여수 밤바다도 창문으로 볼 수 있네요. 나우현 씨는 어떤 곳이 좋으세요?”

나우현 씨가 바다가 잘 보이는 펜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우현 씨는 휴대전화가 따로 없어 인터넷으로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숙소에 직접 전화해 예약하고 은행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법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나우현 씨, 저희 예약하려는 펜션은 계좌이체를 하려면 전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전화로 예약해도 괜찮을까요?”

“가아!”



나우현 씨와 의논하여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예약은 숙소비 이체를 마쳐야 확정된다고 합니다. 나우현 씨와의 의논하여 은행에 함께 갔습니다. 나우현 씨가 직접 이체하는 게 어려워 옆에서 거들고자 했습니다.

“나우현 씨, 김현승 선생님이 숙소비는 대신 이체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가아.”

나우현 씨가 직접 하시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우현 씨의 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여느 청년처럼 즐겁게 여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우현 씨의 일이고 삶이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의 여러 상황을 살펴서 숙소를 예약하기로 했지요. 나우현 씨에게 잘 설명하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선택하시게 돕는 과정이 귀합니다. 나우현 씨의 일로 거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승

숙소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미리 찾아보고 나우현 씨에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숙소를 정하는 일도 나우현 씨의 일로 거들고 싶어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하셨지요. 손가락으로 펜션을 가리키셨다니 임성훈 선생님이 준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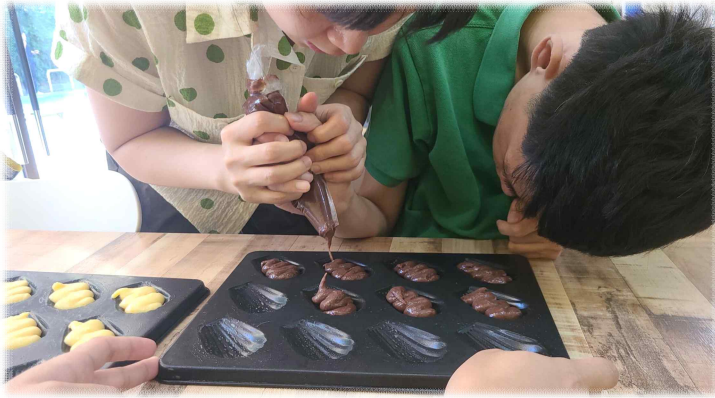
잘 설명하니 그러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과정마다 나우현 씨가 주인 되게 커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공방 수업으로 나들이 간식

나우현 씨가 공방 수업하러 가시는 날입니다. 완주 나들이에서 드실 간식을 수업하며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잘 아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정은선 선생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날이 너무 더워요. 나우현 씨도 더우신지 오늘따라 힘이 없으시네요? 우현 씨, 마들렌을 만들려면 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을 씻으셔야 돼요. 손 씻고 싶으시면 일어나실래요?”

“가야!”



나우현 씨가 일어나셔서 손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정은선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마들렌을 만드셨습니다.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수업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우현 씨가 직접 해보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드실 간식을 공방 수업에서 만드니 나들이 준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임성훈

공방 수업이 궁금했는데 선생님의 부탁에 나우현 씨가 잘 반응하시네요. 간식을 사서 갈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과과의 관계를 살펴 수업하며 직접 만들었다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와 선생님이 나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우려는 뜻이 귀합니다. 오광환

## 나들이와 여행 소식

마들렌을 다 만들고 포장하며 나우현 씨를 대신해서 정은선 선생님께 소식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현 씨 나들이는 어디로 가시기로 했어요?”

“나들이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완주경천애인마을로 가기로 했고, 1박 2일 여행은 여수로 가시기로 했어요.”

“우현 씨랑 경천애인마을로 가시기로 했어요? 잘됐다! 여수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숙소는 정했어요?”

“아직 갈 만한 곳은 정하지 않고 숙소만 정했어요. 여수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수는 사람이 많아서 우현 씨가 다니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우현 씨가 돌아다니실 수 있는 곳을 둘러보려고 해요.”

“여수니까 가서 바다도 보고 발에 물도 적시고 하면 좋은데 혹시 우현

씨 케이블카도 탈 수 있어요?”

“나우현 씨와 의논해서 타는 곳까지 가보고 어려워하시면 그냥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카 오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왕복 20분 정도 걸려요. 우현 씨가 오르막길을 가기 힘드실 테니 혹시나 동백섬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거기 완전 그늘도 하나 없는 곳이에요.”

정은선 선생님과 식사도 의논했습니다.

“우현 씨 혹시 회도 드실 수 있어요?”

“웬만한 음식은 안 가리고 드신다고 하는데회는 안 드셔본 것 같다고 해요. 한번 가서 회도 먹어볼까요?”

“여름이고 하니 우현 씨가 회는 안 드시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갯장어를 익혀 먹는 하모샤브샤브는 어떠세요? 여수 계장도 유명해요! 아침이야 간단하게 빵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은선 선생님께서 갈 만한 바다도 추천해주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가실 만한 해수욕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모시금해수욕장이 자박자박하니 우현 씨가 걷기 좋을 거예요.”

“방금 검색해보니까 만성리의 검은모래해변은 어떤가요?”

“어우~ 거긴 비추천해요. 우리 애들이랑 갔는데 맨발로 걷기에는 모래가 거칠더라고요. 남해의 해수욕장들이 모래가 거칠어서 우현 씨 생각하면 맨발로 다니긴 그렇고 뭐라도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울 텐데 우현 씨 생각해서 실내 구경거리는 어때요? 여수에 해양수산과학관이라고 우리 애들과 같이 가봤는데 볼만했어요.”

“정은선 선생님 덕분에 나우현 씨가 이번 완주 나들이부터 여수 여행코스까지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도 종종 가는 곳이라 제가 아는 곳만 알려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장소만 정리해도 1박 2일 일정이 딱 차겠습니다. 선생님과 여행을 두고 의논하니 벌써 돌아갈 시간입니다. 나우현 씨가 카페에서 나오니 정은선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셨습니다.

“더위 조심하고 즐거운 여행 잘 다녀와요!”

“고맙습니다.”

“가아!”

나우현 씨가 삼십 대의 여느 청년처럼 여행을 준비합니다. 정은선 선생님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니 일정을 계획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곳을 토대로 나우현 씨와 의논하여 여행 계획 잘 세우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에게 오늘의디저트가 여가에서 취미로, 취미에서 여행 과업까지 이어지네요. 이번 여행으로 관계의 바탕을 한층 더 쌓았으니 다음에 또 다른 일로 나아가는데 큰힘이 되겠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할 거라 믿습니다. 나우현 씨와 공방 선생님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승

선생님께서 여수 여행지도 추천해주셨네요. 나우현 씨가 갈 만한 곳으로 추천 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평소에 나우현 씨의 걷는 모습과 컨디션을 보고 살펴셨으니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실 수 있었겠지요. 나우현 씨가 나들이와 여행을 준비하며 정은선 선생님께 많은 것을 여쭙는 게 부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사자 쪽 관계가 빈약할수록 더욱 그렇게 도우려는 뜻이 있으니 선생님께 때마다

감사하고, 다녀와서 감사하며 의도와 목적을 잘 설명해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우현 씨에게 정은선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오광환

## 목사님께 인사와 소식

지난 주일에 나우현 씨가 목사님과 만나는 일정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우현 씨, 이번에 새빛교회 목사님께 저를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서 나우현 씨의 여행 소식도 전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좋을 것 같아요!”

나우현 씨와 새빛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전영진 목사님께서 나우현 씨를 맞이해주셨습니다.

“우현 씨 오셨어요? 날도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슬리퍼도 꺼내두었어요.”

목사님께서 나우현 씨가 슬리퍼를 신을 수 있도록 팔을 잡아주셨고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안내해주셨습니다.

“다들 편하게 앉아요. 여기 차린 건 없지만 드세요.”

나우현 씨가 온다고 하니 미리 바나나 우유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실습생이 나우현 씨를 대신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현 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번에 실습으로 나우현 씨의 여행을 지원하는 군산대 임성훈 학

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우현 씨와 의논한 대로 실습생이 대신하여 목사님께 여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가십니다.”

“단체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개인 여행을 떠나실 예정입니다.”

“단체로 가실 줄 알았는데 개인으로 가시는군요?”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내일은 완주경천애인마을로 나들이 가고 다음 주에는 여수로 가실 예정입니다.”

“여수요? 거기 노래로 유명해져서 관광지화 되었지요. 예전의 볼거리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포장마차가 많아졌어요. 날씨가 더운데 우현 씨 생각해서 아쿠아리움은 어때요? 여수 돌산이나 이런 데는 우현 씨가 가기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여행지로는 완주의 봉어섬도 있어요.”

“봉어섬이요?”

“봉어섬은 봄, 가을에 꽃밭을 심어 관리해서 매년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볼 수 있어요.”

“저기 군산 위로는 해저터널 지나서 충남 서산도 괜찮고, 대천에 해수욕장도 잘 되어있어요.”

나우현 씨가 여행한다니 목사님께서서 괜찮은 지역과 장소를 추천해주셨습니다. 나우현 씨를 대신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나우현 씨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나우현 씨가 실습생과 김현승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에 집중하시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우현 씨를 위해 기도해주신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종이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맛있는 것 먹고 잘 다녀오길 바라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잘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이니깐 받아두시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전영진 목사님께서 성도로서 살피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현승 선생님과 의논하여 용돈을 받았습니다. 여행지 추천, 축복기도, 용돈까지 나우현 씨가 찾아뵈겠다고 하니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궁리하고 준비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나우현 씨가 안전하게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녀와서 감사 잘 하시게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임성훈

목사님께서 용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나우현 씨는 용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다녀오실 만큼 여유가 되어서요. 목사님과 나우현 씨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용돈을 주신 이유가 성도의 여행을 축복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니 여러 번 거절 끝에 받았지요. 나우현 씨와 의논해서 목사님 생각하며 여행할 때 사용하시게 거들면 좋겠고, 목사님께 드릴 선물도 사오면 좋겠습니다. 김현승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초대해주셨군요. 목사님께서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승 선생님이 동행해서 용돈을 주실 때 여러 번

거절했다고 했지요. 성도로서 잘 섬기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받았다고 합니다. 나우현 씨에게도 잘 설명했다고 했지요. 용돈은 나우현 씨와 의논하여 여행을 잘 누리시는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녀와서 목사님께 감사인사 잘 드리길 바랍니다. 여행지 추천, 기도, 용돈으로 나우현 씨의 여행을 응원 해주신 목사님께 고맙습니다. 오광환

## 완주 나들이

나우현 씨와 완주에 가는 날입니다. 나들이 전에 일정을 다시 설명해드렸습니다.

“나우현 씨 저희 완주 나들이를 가는 날이에요. 제가 일정을 정리했는데 확인해주시겠어요?”

“가아!”

“오늘은 점심으로 시작해서 정은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완주경천애인 마을 주변에서 물에 발도 담가보고 경천저수지 드라이브도 하고 근처 카페에 갔다가 복귀 예정이에요!”

나우현 씨가 태블릿PC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관심 있어 하시니 고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저희 점심 먼저 먹으러 갈까요?”

“음!”

“그럼 제가 찾아본 메뉴가 몇 가지 메뉴를 보여드려 볼게요!”

중화요리, 백반, 칼국수 등 그 지역에 맛집 사진을 보여드리며 나우현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나우현 씨가 손가락으로 터치한 곳은 중식과 한식 가게였습니다. 중식 가게가 인기가 많아 보여서 설명해드리고 그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우현 씨와 원주로 출발했습니다. 평소보다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이셨는데 신발을 잘 신으시고 차 문을 더 잘 닫아주셨습니다. 나우현 씨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니 나들이 간다는 걸 스스로 잘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여 점심 먹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나우현 씨는 짬뽕밥을 선택하셨고 탕수육도 시키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가끔 무언가 답답하시면 큰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음식을 다 드실 때까지 큰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나들이를 충분히 즐기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은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경천애인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공사중이었습니다. 나우현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의논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가려고 했던 카페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경치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자연을 잘 누리시길 바랐습니다.

김현승 선생님과 셋이 다시 의논하여 근처에 계곡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계곡은 여름을 즐기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가!”

“나우현 씨, 여기 발 좀 담가보시면 진짜 좋아요. 한번 담가보세요.”

“으음!”

“아유 경치도 좋네요. 여기, 나우현 씨 저희 만들어오신 간식도 먹으면서 구경해봐요.”

공방에서 만든 간식을 꺼내드렸습니다. 나우현 씨가 간식 드시며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셨습니다.

“거어!”



나우현 씨가 김현승 선생님을 부르셨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며 이번 나들이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은선 선생님의 추천, 목사님의 기도, 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었습니다. 덕분에 나우현 씨가 여름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여행 마치고 감사 잘 전하시게 거들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임성훈

장소를 옮길 때마다 나우현 씨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하시던 임성훈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나우현 씨의 나들이니 당연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지요. 임성훈 선생님의 이런 정성이 나우현 씨를 나들이의 주인으로 세워드리네요. 김현승

가기로 한 곳이 마침 공사중이었네요. 나우현 씨도 아쉬우셨겠습니다. 멀리까지 갔으니 나우현 씨가 나들이를 잘 누리길 바라며 검색해보고 갈 만한 곳을 의논했네요. 중식으로 식사하고, 물에 발도 담그고, 챙겨간 간식도 드셨다니 여행을 잘 누리셨네요. 때마다 나우현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나우현 씨가 나들이의 주인 되게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여행 일정 의논

정은선 선생님과 목사님께 추천받은 장소를 토대로 갈 만한 곳을 정리했습니다. 일정표를 보여드리며 나우현 씨와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첫째 날 일정부터 설명해드려 볼게요. 점심은 이화식당으로 가려고 해요.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계장이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장 정식은 14,000원 정도 해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다음 장소는 목사님께 추천받은 아쿠아플라넷이고 1인에 36,400원 정도 나와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도 있고 구경할 거리도 많겠어요.”

나우현 씨가 태블릿PC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며 손가락으로 터치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스카이라워인데 여수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런 풍경이에요. 여기는 모사금해수욕장인데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곳이에요. 사진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우현 씨가 모사금해수욕장 사진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저녁은 미용실 사장님께 추천받은 여수광장국밥이에요. 여기는 독특하게도 바지락돼지국밥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 사진 보니까 더 신기하게 생겼어요. 맛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은 아침에 드실 빵을 식당 근처 빵집에서 구매하고, 기념품 가게 들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밤에 여수바다를 구경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우현 씨가 화면을 힘껏 터치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일정도 설명해드려 볼게요. 아침은 저녁에 사 온 빵으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기념품 가게에 들리고 돌아가거나, 주변에 더 둘러볼 게 있다면 둘러보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휴게소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아!”

설명하는 내내 실습생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셨습니다. 덕분에 정리한 일정을 잘 설명해드렸습니다. 나우현 씨에게 설명하고 쉬고를 반복하며 의논하니 50분이 넘었습니다. 나우현 씨의 여행이니 잘 아시길 바랐는데 이런 실습생의 마음을 나우현 씨가 잘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일정을 정리하니 둘레 사람에게 추천받은 곳이 많습니다. 둘레 사람과 함께 계획하니 일정이 풍성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와 50분을 의논하셨군요. 나우현 씨에게 설명하고, 집중하실 수 있게 기다리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기다리는 이 과정을 반복했다고 들었습니다.

다. 사회사업가가 해주면 편할 수도 있겠으나 나우현 씨의 여행이니 나우현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지요. 긴 시간을 의논하니 나우현 씨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으나 임성훈 선생님이 도우려는 마음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의정심하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옷가게

여느 청년이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하듯이 나우현 씨도 새 옷을 사기로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저희 오늘 롯데몰에 가기로 했었지요? 가서 멋진 옷 사 입고 여수 여행 가보시면 좋겠어요.”

나우현 씨와 롯데몰에 도착했습니다. 나우현 씨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셔츠도 보고, 티셔츠도 보며 옷을 구경하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힘을 다 쓰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게 거들고 옷을 가져다 보여드렸습니다.

“나우현 씨, 이건 어떠세요? 이 티셔츠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가아!”

“이 셔츠는 어때요? 여기 바람막이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름을 생각해서 기능성 티는 어때요?”

재질과 스타일 등을 살폈고 나우현 씨의 반응을 살펴 두 벌을 골라 결제하셨습니다. 여행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새로 산 옷을 잘 다려서 여행 가실 때 멋지게 입으시게 돕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가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여행을 잘 준비하시게 도와려고 했지요. 나우현 씨에게 일정을 미리 설명하고 의논하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가 가끔 가서 구경하고 옷 사는 롯데몰에 같이 가셨군요. 나우현 씨의 컨디션에 따라 이런저런 방법으로 옷을 살펴보게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 옷 입고 여행 가실 나우현 씨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납니다. 오광환

## 내일이에요?

나우현 씨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은선 선생님이 나우현 씨를 보고 나오셔서 카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바람 쐬 겸 차 한 잔 하시러 나왔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셔서 간식만 골라서 가기로 했습니다.

“나우현 씨, 여수 가면서 드실 간식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가리켜 간식 세 개를 고르셨습니다. 간식 사면서 정은선 선생님께 여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준비하신 여수 여행을 내일 떠나십니다.”

“정말요? 내일이에요?”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우현 씨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내일도 비가 온다니 걱정이네요. 우현 씨 머리 잘랐네요? 깔끔하니 이발도 이쁘게 하셨네!”

“ㅎㅎㅎ”

나우현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고개는 들지 못하셨지만 정은선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현 씨! 여행 조심히 잘 다녀와요!”

정은선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나우현 씨의 옆에 다가가 잘 다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선 선생님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할 일이 적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우현 씨가 여행 잘 다녀오실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임성훈

차마시러 간 김에 선생님께 여행 소식도 전했네요. 머리카락 다듬는 것도 알아 봐 주시니 감사하네요. 계획하지 않은 방문이었지만 선생님께서 여행 잘 다녀 올 수 있게 응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응원으로 여행 가는 날에는 컨디션이 좋아지시길 바라며 기대합니다. 오광환

## 여수 여행 첫째 날

나우현 씨가 여수로 여행 가는 날입니다.

“나우현 씨, 저희 준비했던 여수 여행 가는 날이에요. 50분 뒤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일정표에 변동이 생겼는데 확인해주시겠어요?”

나우현 씨에게 변경해야 하는 일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져가야 할 짐을 살펴 챙기셨습니다. 출발 전에 정은선 선생님, 정영진 목사님, 미용실 사장님께 여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우현 씨와 계장을 먹으러 이화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반찬이 나오자 나우현 씨가 웃으셨습니다. 정은선 선생님께 추천받아 온 곳인데 맞았 이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계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전영진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아쿠아플라넷에 도착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수달, 펭귄 등 여러 분위기가 섞인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수조 쪽에 손가락을 대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마침 공연이 있어서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즐기셨습니다. 나우현 씨만의 방법으로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졌습니다. 원래 일정이 스카이다워였는데 날씨에 변동이 생겨 나우현 씨와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날씨가 안 좋아서 스카이다워는 아쉽지만 못 갈 것 같아요.”

“거어!”

“올라가더라도 해무가 끼서 드넓은 바다를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비가 그치면 모사금해수욕장으로 가보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가아!”

저와 찾아보았던 스카이다워 대신에 정은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모사금해수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운 모래가 펼쳐지는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를 따라 저 멀리 남해도가 보였습니다.

“나우현 씨! 여기가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모사금해수욕장이  
예요!”

“흐히히”

나우현 씨가 크게 웃으시며 발이 땅에 떨어지게 뛰셨습니다. 나우현 씨  
마음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장소가 마음에 드세요? 제가 봤던  
모습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아 보이세요. 나우현 씨, 저희 여기까지 왔는  
데 바다에 발 한번 적셔보실래요?”

“음!”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나우현 씨는 물이 차가웠는데 놀라지 않  
으시고 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졌습

니다.

“해안가도 같이 걸어보실래요?”

“거어.”

해안가를 따라 한참 걷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발에 남아있는 모래를 털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나우현 씨, 숙소에서 짐 풀고 저녁 드시러 가지겠어요?”

“가야!”

나우현 씨가 손을 잡고 해안가에 머물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바다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이동했습니다.

여수광장국밥에 도착했습니다.

“세 분이세요? 편하신데 앉아주세요. 저희가 음식을 가져올 때 이분께서 똑배기에 닿으시면 뜨거울 수도 있으니 자리를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승 선생님이 나우현 씨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니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신경 써서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우현 씨는 바지락 돼지국밥과 서대회무침수육을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가게 직원이 나우현 씨가 걷을 때 불편해 보이는 물건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 맛집은 미용실 사장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식사비는 전영진 목사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나우현 씨의 여행을 돌레 사람과 함께 이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옆집에 빵가게가 있었습니다. 소금빵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다음 날 아침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나우현 씨, 내일 아침에 드실 빵으로 소금빵은 어떠세요?”

“음!”

“아까 소금빵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차가 빠르게 오가서 위험해 보이는 데 제가 대신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가야”

아침에 먹을 것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우현 씨와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에 계장은 어떠셨어요?”

“가야”

“나우현 씨, 여기 목사님이 추천해주신 아쿠아플라넷 어떠셨어요? 해마에, 물고기에, 물개에, 펭귄에, 엄청 신기하지 않았어요?”

“음!”

“모사금 해수욕장에서는 이렇게 밝게 웃으셨던 거 알아요?”

“꺼어!”

나우현 씨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쉬다가 해가 저서 나왔습니다. 여수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오징어잡이 배가 조명을 비추며 지나가고, 여수의 돌산대교와 거북선 대교에 불이 켜지며 색을 더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케이블카는 가족이나 연인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에 달린 작은 조명들도 이 야경과 하나가 되어 여수의 밤을 비춥니다.

“나우현 씨,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 조명하며, 이 분위기 하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음!”

“오늘 하루 제대로 즐기신 것 같아 뿌듯하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2025년 여름을 돌아보면 추억할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우현 씨 덕분에, 둘레 사람 덕분에 오늘 하루 잘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가 여행을 잘 누리셨지요.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임성훈 선생님이 힘 주어 거들어야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나우현 씨의 여행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승

여행 1일차! 나우현 씨의 하루가 짧았겠네요. 일정표를 정리하면 둘레 사람이 추천해주신 곳이 절반이 넘겠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이 계획하지 않고 나우현 씨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지원하니 고맙습니다. 사회사업가라면 이렇게 여행을 지원해야지요. 준비하면서 그러했듯이 여행하면서 도 때마다 나우현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려 노력하셨다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가 주인 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우현 씨를 사람으로 보고 지원하는 사회사업가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우현 씨도, 임성훈 선생님도 마지막 날까지 여행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광환

## 여수 여행 둘째 날

나우현 씨가 아침으로 바나나맛 우유와 소금빵을 드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숙소랑 가까운 여행지에 들리시면 어떨지 나우현 씨와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저희 어제 여수 밤바다를 비추어 준 하멜등대도 보러 가시면 어때요?”

“음!”

숙소에서 나와 하멜등대로 이동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계단을 난간에 손을 대고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연초록빛의 바다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 산란하며 윤슬을 보여줍니다. 나우현 씨가 길 끝에 보이는 여수의 밤을 비추던 새빨간 하멜등대를 바라보며 여수의 풍경을 눈에 담으셨습니다.

“나우현 씨, 그래도 여수까지 왔는데 나우현 씨가 맛집을 한 곳이라도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일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점심을 드실 예정이었는데 나우현 씨에게 여쭙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남진이네게장갈치명가에서 순살 갈치조림이 주변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점심은 여기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가야!”

나우현 씨가 음식점에 도착하여 순살갈치조림을 주문하여 드셨습니다. 맛있는지 여쭙보니 나우현 씨만의 목소리로 답변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사인사 선물가게를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여행을 계획할 때 장소 추천해주신 정은선 선생님과 전영진 목사님께 선물을 사서 감사인사 드리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이 근처에 기념품 가게에 가서 둘러보면 어떨까요?”

실습생이 먼저 기념품 가게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게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비틀거리며 걸으셔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우현 씨, 방금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니 함께 둘러보면서 돌아다니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에 사람이 많아 부딪히고 넘어지면 다칠 만한 물건들도 많아서 제가 대신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거어.”

“이번 여행에 감사한 마음이 전달될 만한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선물로 열쇠고리나 그림이 그려진 자석은 어떠세요? 간식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야!”

“디저트 카페를 하고 계신 정은선 선생님께는 간식보단 열쇠고리나 자

석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기념품 가게에서 자석 한번 사와 볼게  
요!”

정은선 선생님의 선물은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폭죽을 터트리는 그림  
이 그려진 자석을 구매했습니다.

“전영진 목사님은 자녀들과 나눠 먹기 좋은 간식을 사다 드리는 건 어떨  
까요? 기념품 가게 옆에 샌드베이커리 가게가 있어요. 샌드는 각개 포장  
되어 있어서 나누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영진 목사님의 선물은 샌드를 샀습니다. 이렇게 둘레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잘 샀습니다.

“나우현 씨, 이제 오늘의 디저트 정은선 선생님과 전영진 목사님께 드릴  
기념품도 다 구매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까요?”

“가아!”

“나우현 씨,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가아!”

나우현 씨가 여수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지  
만 방문했던 장소의 분위기와 음식 맛을 즐기셨던 나우현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우현 씨와 둘레 사람 덕분에 제가 여수 여행을 즐겁게  
잘 누린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임성훈

여행 일정을 의논하여 변경했지요. 나우현 씨에게 잘 설명하고 의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의 여행으로, 나우현 씨의 일로 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

신 임성훈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우현 씨가 여느 청년처럼 여행을 잘 누리셨습니다. 김현승

여행 2일차! 아침부터 분주했네요. 여행 마지막 날이니 그랬겠습니다. 나우현 씨가 좋아하시는 바다 근처 산책하고, 식사하고, 감사인사 선물도 사 오셨군요. 선물 사는 것도 여행 일정으로 계획하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 나름대로 여행을 즐기고 누리셨다는 말이 반갑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얼굴, 습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코, 시원한 바닷물에 두 발, 이마에 땀방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우현 씨가 온전히 누리셨을 거라 짐작하니 몽클합니다. 여행을 나우현 씨의 일로 세워주셔서, 나우현 씨의 둘레 사람의 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감사인사 의논

나우현 씨와 감사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나우현 씨,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잘 전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음?”

“저희가 갔던 장소를 다시 보니까 추천해 주신 분들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여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 어떨까요?”

“음!”

나우현 씨와 의논한 대로 감사인사를 잘 전하기로 했습니다. 나우현 씨의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임성훈

감사인사 드리면 어떻게 나우현 씨에게 설명하며 의논해주셔 고맙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는다고 했지요. 여행에 도움을 주신 둘레 사람

에게 감사 잘 전하시게 도와면 좋겠습니다. 오광환

## 감사편지 준비

여행지를 추천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로 의논했습니다. 방법은 편지를 쓰거나 만들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했던 순간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편지를 다 작성하고 나우현 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나우현 씨가 만족해하셨습니다. 나우현 씨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임성훈

감사편지도 인사드리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궁리하여 제안하고 준비하니 고맙습니다. 김현승

감사인사 드리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여행하는 사진을 넣어 편지로 만들었다니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이 미리 만들고 나우현 씨에게 보여드리며 설명했다니 고맙습니다. 감사인사도 나우현 씨의 일이 되게 도와려는 뜻이 귀합니다. 오광환

## 전영진 목사님께 감사

전영진 목사님은 여행 전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주시고, 여행하며 쓰라고 용돈도 챙겨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직접 만나 인사드리려고 했으나 한 주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직접 뵙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나우현 씨와 의논하여 문자로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우현 씨, 저번 주에 말씀드린 감사편지를 작성해봤어요. 교회 공사중이어서 당분간은 예배 시간 외에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작성한 편지를 메시지로 방금 보내드렸어요.”

“음!”

나우현 씨가 직접 전하지 못하시더라도 감사인사를 전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여행을 함께 이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임성훈

실습 기간에 직접 목사님을 뵙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편지로 미리 감사인사 전했더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 교회 가시는 날에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김현승

전영진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나우현 씨와 미리 의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의 일로 세우려는 뜻이었겠지요. 기도로, 용돈으로, 여행지 추천으로 나우현 씨의 여행을 응원해 주셨으니 감사 잘해야지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나우현 씨가 여행하는 사진을 넣은 편지를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와 목사님께서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정은선 선생님께 감사

나우현 씨와 오늘의디저트에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 “어머 이게 누구야,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임성훈 | “네! 나우현 씨가 여수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다.”

선생님 | “날씨는 괜찮았어요?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던데 길은 괜찮았어요?”

임성훈 | “여수로 갈 때는 많이 내렸는데 도착하니깐 그쳐서 실내만 돌아다니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선생님 | “비가 많이 내리는 거 보고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우현 씨는 여행 가서 밥 잘 먹고 오셨어요?”

나우현 | “가아!”

선생님 | “정말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습니다. 실습 기간에 함께 식사하며 이 정도로 잘 드시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나우현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우현 씨가 모사금해수육장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적해서 나우현 씨가 다녀 오시기 좋더라고요.”

선생님 | “추천해 드리길 잘했네요! 음식도 잘 먹고 오시고 여행 잘 다녀 오셨네요!”

임성훈 | “나우현 씨가 선생님 덕분에 여행을 잘 다녀오실 수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봤어요. 나우현 씨의 여행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 “이거 코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감동인데요.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다...”

선생님께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유쾌하신 선생님이 편지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시니 조금은 당황했지만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까지 마치니 사회사업이 주는 의미와 감동이 더 잘 전해집니다. 느껴집니다. 이게 사회사업이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임성훈

THANK YOU  
SO MUCH



Dear. 정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습생 임성훈입니다.

---

드디어 나우현 씨께서 여수의 1박2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모사금 해수욕장 덕분에 나우현 씨는

---

제가 여태봤던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셨습니다.

---

나우현 씨는 이제 파도소리가 들려오면 여수의 이날을 추억할 수

---

있게되었습니다.

---

정은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지 않으셨다면 오지 못했을 기회입니다.

---

나우현 씨의 여행을 이렇게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From. 나우현 씨 By. 임성훈 실습생



**YOU MADE MY DAY!**

---

나우현 씨가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은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정은선 선생님이 나들이와 여행에 도움을 많이 주셨지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니 고맙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나우현 씨를 대하는 태도, 나우현 씨의 일로 선생님께 정중히 여쭙고 부탁드렸던 모습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행 감사가 구실이 되어 다음에 또 여쭙고 부탁드리기 수월하겠어요.

김현승

정은선 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렸군요. 감사편지를 받으시고 말을 잊지 못하셨다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은선 선생님의 참여, 노력 수고, 도움 나눔, 배려 응원을 감사하고 얻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의 것으로, 나우현 씨의 돌레 사람과 여행 복지를 이루니 칭찬 감사 공이 나우현 씨와 정은선 선생님께 돌아가네요. 사회사업은 감사로 완성되고 감사 잘해야 지속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체가 여기에 있네요. 나우현 씨가 감사인사 할 수 있게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광환

## 나우현 씨께 감사

이번 주가 마지막 실습 기간입니다. 나우현 씨에게 인사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우현 씨, 저번에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이제야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 주에 실습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내일이예요. 그동안 나우현 씨 덕분에 많은 경험을 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이라는 기회로 나우현 씨를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거어.”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임성훈

나우현 씨에게 감사를 잘 전하셨군요. 나우현 씨에게도 이번 한 달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하루하루 나우현 씨를 어떻게 만나고 지원할지 궁리하고 준비하고

성찰하셨지요. 그 정성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김현승

인사부터 감사까지 정의정심하여 나우현 씨에게 이야기하니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가 평소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임성훈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고개를 드셨지요. 나우현 씨를 사람으로 보고, 여느 청년처럼 지원하려 했던 임성훈 선생님의 태도가 나우현 씨의 고개뿐만 아니라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 짐작합니다. 나우현 씨가 여행의 주인 되게 도우려는 뜻, 나우현 씨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우려는 뜻이 분명하다는 걸 나우현 씨도 느끼셨을 겁니다. 나우현 씨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광환

## 나눔8기

## 소지현 면접 후기

주일에배 후에 바로 만날 수 있다고 하셔서 성옥자 씨의 교회 주변 카페로 면접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면접은 1시였지만 지원사를 다시 읽고 긴장되는 마음을 풀고자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성옥자 씨 전담 사회사업가 박선영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도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성옥자 씨 활동지원사 전길순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성옥자 씨를 뵈고 바로 인사드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만난 성옥자 씨가 약간 당황하신 듯 보였지만 그럴 새도 없이 메뉴를 고르고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옥자 씨와 이른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께서 성옥자 씨에게 본인 소개를 저에게 해주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옥자 씨는 성함과 가족관계를 소개해주셨고 옆에 계시는 박선영 선생님도 소개해주셨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성옥자 씨가 소개해주신 걸로 본인 소개를 마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성옥자 씨가 전담 직원을 소개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성옥자 씨에게, 선생님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해숙 선생님도 소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성옥자 씨를 지원하며 꾸준히 만나니 문해숙 선생님께도 정성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성옥자 씨께서 자연스레 면접하며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부산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두 번 가봤습니다!”

“누구랑 갔어요?”

“저 두 번 다 친구랑 갔습니다!”

“부산에서 어디 가 봤어요?”

“저 해운대 갔어요!”

“먹는 거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 있어요?”

박선영 선생님께서 소지현 학생과 함께 여행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도 얘기를 못할 수 있다며 성옥자 씨가 걱정하셨다고 덧붙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취향까지 헤아려 주셨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인지 마음으로 ‘싫어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성옥자 씨와 함께 밥을 먹는다면 다 맛있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싫어하는 거 없어요! 다 잘 먹어요!”

제 답변에 성옥자 씨가 안심하신 듯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더 자연스러워졌고 성옥자 씨도 긴장이 풀어지신 게 느껴졌습니다.

박선영 선생님께서 성옥자 씨가 준비하신 질문은 끝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성옥자 씨는 지금껏 저처럼 어린 사람과 만날 기회가 적었다고 하셨고 그렇기에 이번 단기사회사업이 특별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원사를 보니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과 무엇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재학하고서는 아동청소년 시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기에 제 나이대만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정말 가까운 외할머니가 있으신데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고 지금도 본가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를 일처럼 해왔다고 한다면 할머니와는 한평생 일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오히려 일상으로 함께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부산 여행을 가게 되면 숙소에서 같이 자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성옥자 씨만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할머니랑 한 침대에서도 자고 그럽니다.”

제 말을 듣고 성옥자 씨, 박선영 선생님, 전길순 선생님께서 짐을 털으신 듯 좋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전길순 선생님은 성옥자 씨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복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성옥자 씨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제 음식 취향과 잠자리를 걱정해 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성옥자 씨가 원하신다면 어떨 때는 손녀처럼, 어떨 때는 딸처럼, 어떨 때는 친구처럼 편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살갑게 대하고 편하게 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옥자 씨와 잠시 둘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시던 가족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면접 처음에 성옥자 씨가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셨는데 이때도 가족 이야기를 해주시는 성옥자 씨의

목소리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더 그러하셨습니다. 형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함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서울에 사신다고 하였고, 한 분은 부산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형제 이야기를 하시는 성옥자 씨의 표정은 좋아 보이셨습니다.

이번에 가는 부산 여행 이외에도 가족 여행을 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였고 저와 가는 부산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산 여행 이후에도 이어질 성옥자 씨의 여행의 시작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을 구실 삼아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시고, 더 자주 가족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성옥자 씨는 정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 이후에도 성옥자 씨와의 인연이 끊기질 않길 바랍니다. 면접이 끝나고 성옥자 씨가 저에게 주시려고 직접 만드신 술빵과 음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성옥자 씨는 배려심이 넘치고, 섬세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합격한다면 실습 시작하는 날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성옥자 씨는 꽃이 그려진 분홍색 블라우스와 꽃이 그려진 남색 롱스커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산 여행 갈 때 저도 예쁜 옷을 입고 가워서 함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성옥자 씨를 만나고 나니 이번 단기사회사업의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성옥자 씨를 잘 돕고 싶습니다.

## 한동걸 면접 후기

면접을 계기로 전북 군산에 처음 왔습니다. 진주와 비슷하면서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해주었습니다. 더숨99지원센터에 도착하여 오광환 선생님, 최길성 선생님과 인사했습니다. 기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드렸는데 반갑게 인사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식사하며 면접하기로 해서 차에 탔습니다. 김재선 씨도 집 앞에서 타셨습니다. 김재선 씨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김재선 씨를 처음 뵈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다. 김재선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동걸 학생, 돈가스 좋아하나요?”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치즈돈가스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다음에 군산에 돈가스 잘하는 집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오~ 좋아요. 다음에 꼭 소개해주세요.”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으며 김재선 씨가 최길성 선생님과 오광환 선생님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밥을 다 먹으니 김재선 씨가 먼 길 왔다며 돈가스를 사 주셨습니다. 먼저 말 걸어주시고 점심까지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김재선 씨가 저에게 궁금한 걸 물으셨습니다.

“동걸 학생이 자주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저는 웬만한 노래 다 듣는데 요즘은 통기타를 치고 있어서 가수 버즈의 노래를 즐겨 들어요!”

“저도 버즈 노래 중에 가시를 좋아해요.”

“말하는 속도가 느린데 제가 말하는 속도를 맞춰줄 수 있나요?”

“저도 밥 먹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아까 돈가스 먹을 때 먼저 다 드시고 김재선 씨가 저를 기다려주셨잖아요? 저 또한 김재선 씨가 말하는 속도를 기다려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모르면 또 물어볼게요.”

김재선 씨가 준비한 질문을 다 하시고 최길성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선 씨와 한동걸 학생의 의견이 달라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당황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김재선 씨의 의견을 존중하며 갈등은 피하려고 노력할 거 같습니다. 또한 김재선 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거 같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김재선 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살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씨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존중만 하는 게 오히려 김재선 씨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차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사람 살아가는 사회, 인간적인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합동연수에서 많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김재선 씨가 잠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면접 중에서도 졸지 않고 집중하시려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지원사를 수십 번 읽어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잘 해보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았고 그래서 김재선 씨의 취미 찾기를 잘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미 찾기를 통해 김재선 씨의 새로

운 둘레 사람과의 관계 형성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겠으나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수많은 시도 뒤에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단기사회 사업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며 배워가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소중하고 값진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성훈 면접 후기

단기사회사업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나우현 씨가 단골로 가시는 오늘의디저트 카페에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16시 30분에 뵙기로 했고 지원사를 다시 살펴보며 저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현승 선생님께서 카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나우현 씨를 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동하면서 나우현 씨가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사장님께서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좋아하시는 음료를 기억하고 주문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우현 씨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면접은 김현승 선생님이 나우현 씨와 먼저 의논하고 오셔서 나우현 씨 대신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25세이며, 만으로는 24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 나우현 씨를 보며 김현승 선생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

“나우현 씨를 앞으로 지원할 분을 정하는 일이니 잘 들어보세요.”

나우현 씨는 대답과 함께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우현 씨가 집중하실 때 고개를 드신다고 느꼈습니다.

“취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맛집 찾기, 자전거 여행, 요리입니다. 자전거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본인의 강점을 나우현 씨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청을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험 중에 이번 단기사회사업에서 활용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기록과 정리 같은 요약물 많이 해봐서 그 점을 해보고 싶어요.”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지금의 지역사회가 잃어버린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사에서 말하는 ‘어른답다, 사람답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돕고 싶나요?”

“어른답다는 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이들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답다는 말은 보통 사람처럼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셨던 복지요결을 읽어보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컨디션의 변화가 있어 입주자와 의논하여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때를 보내시겠습니까?”

“계획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고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벌어지는 일상에서 종종 못하는 일이 생기듯이 나우현 씨의 일상 중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 같습니다.”

나우현 씨와 김현승 선생님이 준비하신 면접 질문은 마무리하셨습니다.

직접 나우현 씨를 뵙고 표현을 확인할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우현 씨의 의사 표현이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나우현 씨의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보며 혹여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상황에 따라 표현의 의미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번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발걸음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나우현 씨와 둘레 사람에게 먼저는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우현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나우현 씨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가치 있기 위해선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우현 씨가 어느 사람처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거들며, 경험을 통해 이날을 추억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합동연수

- 일정: 2025년 6월 30일(월) ~ 7월 2일(목)
- 장소: 군포청소년수련원
- 참여기관: 더숨99지원센터, 군산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센터, 다운빌, 말아톤주간이용센터, 월평빌라, 푸른들, 하람, 하사랑주간이용센터, 한터, 흰마실
- 세부 일정

시간	6/30(월)	7/1(화)	7/2(수)
07:00-08:00	참가자 접수 12:00-	아침 식사와 산책	
08:00-10:00		복지요결 강독 및 사례발표 II	복지요결 강독 및 사례발표 IV
10:00-12:00			프로그램 워크숍 II (기관별 발표)
12:00-13:00		점심 식사	
13:00-17:00	복지요결 강독 및 사례발표 I	복지요결 강독 및 사례발표 III	-
17:00-19:00	저녁 식사 및 산책		
19:30-22:00	비전워크숍 (시설과 학생의 희망 나눔)	프로그램 워크숍 I (팀 운영 기획)	
		공연·파티 (복지예술단)	

### - 일정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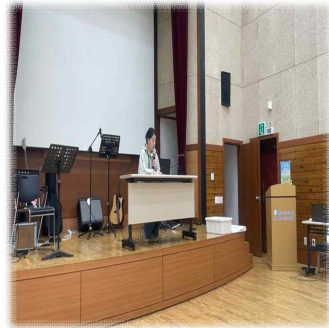
① 프로그램워크숍: 실무자는 관련 문헌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의 기안문서나 기획서나 보고서, 참고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합니다. 학생은 이번엔 자신이 맡기로 한 사업 또는 맡아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을 기획합니다. 문헌과 사례를 연구하여 기획안을 만듭니다. 사업 실행 계획을

정교하게 구체화합니다. 사업별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실행 계획을 마인드맵이나 달력 형식으로 자세히 기술합니다. 각자 맡은 사업의 실행 계획을 전지에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실무자와 동료들이 잘 반응해 줍니다. 질문하거나 생각을 보태 주고 응원해 줍니다. 이렇게 동료의 사업 계획을 들으면서 배우고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생각을 다듬거나 구체화합니다.

② 비전워크숍 : 기관에서는 실습지도자가 주요 목표를 설명합니다. 학생은 졸업 후 사회사업 인생이나 남은 학창시절에 이루고 싶은 꿈을 한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실습 기관의 개인 목표 한두 가지를 발표하되 어떻게 이를 생각인지 구상을 설명하고, 기관과 동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이 안아 주며 응원 축하합니다. 나눈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기관에 붙여 놓습니다. 때때로 살펴 응원 축하해 줍니다.



복지요청 강독회



더숨99자원센터 사례 나눔 / 전유나 팀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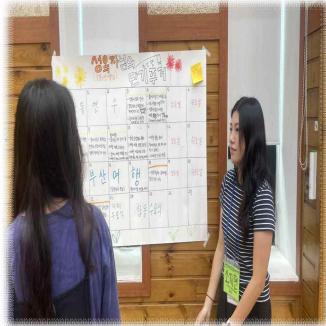
다운빌 사례 나눔 / 임영아 사무국장님



월명빌라 사례 나눔 / 임우석 팀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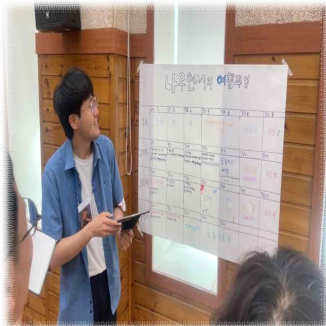
비전&강점워크샵



성옥자 씨 여행 발표 / 소지현 실습생



김재선 씨 취미 찾기 발표 / 한동걸 실습생



나우현 씨 여행 발표 / 임성훈 실습생

## 한동걸 후기

### 첫째 날

단기사회사업 1일 차, 군포 청소년수련원에서 합동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원의 시설과 계곡 소리를 들으니 중, 고등학교 때 했던 수련원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도착하고 선생님을 따라 짐을 풀고 나중에 있을 공연을 위해 악기 세팅을 마쳤습니다.

한덕연 선생님께 '복지요결'에 대해 배웠습니다. 복지요결 내용 중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사회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다움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저 사람이기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을 배우며 사람다움이란 뭘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다움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학교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약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거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요결 강독회를 통해 어떤 말인지 이해되었습니다. 약자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이해가 되는 듯싶지만, 실천 현장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록하며 제가 이해한 점, 이해가 조금 어려운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임성훈 선생님과 복지요결에 관해 공부했던 내용들을 서로 의논하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사회 사업에서 복지예술단에 기타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강독을 시작하기 전에 복지 예술단 노래를 연주하며 한 뜻 노래가 풍성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깐 쉬는 시간에 소지현 선생님, 임성훈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하며 뜻을 함께 나누게 된다 생각하니 기쁩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비전 워크숍, 기관별 사업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졸업 전 이루고 싶은 것, 졸업 후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이번 실습으로 얻고 싶은 것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을, 소지현 선생님은 글쓰기에 대한 자문을, 임성훈 선생님은 열정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시면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이후 김재선 씨 취미 찾기에 대한 일정을 최길성 선생님과 의논하며 달력을 구상해나갔습니다. 궁금한 것과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였습니다. 최길성 선생님께서도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달력을 구상해나갔습니다. 달력을 만들어가며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취미를 찾아준다는 게 책임성이 크게 느껴지고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자꾸 생각이 났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 오광환 선생님께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길성 선생님께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라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선씨의 ‘취미를 찾아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취미를 찾는 것도 좋지만, 취미를 찾아주는 과정을 함께하며 돌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과정이 김재선 씨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러나 고민이 많아졌던 합동 연수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벤치에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소화도 할 겸 숙소 주변을 산책하니 아침 햇살이 반겨줍니다. 아침이지만 햇살이 뜨겁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것처럼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합동연수 2일차입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복지요결을 공부했습니다. 시선, 생태, 사회사업 방법, 철학, 주안점 등등 어제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사회사업을 잘하려다 보니 더 열심히 들으며 이해한 바를 이번 단기사회 사업에서 재선 씨의 사례에 적용해 보려는 생각을 계속한 거 같습니다. 내용들이 계속 비슷한 의미들이지만 다른 의미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내용들을 곱씹으며 어떤 의미인지 헤아려봅니다.

오전에 임영아 선생님의 다운빌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매일 바르게 사회사업 하고자 홍보하며 매일 바르게 사회사업 하고자 공부하며 입주자의 사람살이가 조금 더 소박해지고 평범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기에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며 내일 더 발전할 입주자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시설 사회사업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시도라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공부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저 또한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전유나 선생님의 더숨99지원센터 사례를 들었습니다. 더숨

99지원센터는 과거에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가 활발했으나 점점 개별 화 즉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당사자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사례에 적용하며 공부해보니 이해가 쉽게 되는 거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복지예술단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복지예술단원으로 참여하여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즐겼습니다. MC용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사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응원을 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공연을 통해 노래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복지요결에서 배운 ‘더불어 사는 삶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기관 선생님들과 함께 치킨, 피자를 먹었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낮에는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수다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녁을 먹기 전, 만들고 있었던 달력을 다시 만들러 갔습니다. 달력을 만들면서 궁금한 건 최길성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달력을 다 완성한 후, 다음 날에 있을 달력 발표를 대비해 미리 연습해 보았습니다. 연습하며 보완할 점, 추가하면 좋을 점 등을 선생님께 도움받았습니다.

소지현 선생님, 임성훈 선생님, 최길성 선생님, 오광환 선생님, 김현승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전유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후 임성훈 선생님, 소지현 선생님과 따로 모여 추가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보완하면 좋을 점들을 주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복지요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할 일도 많지만, 이렇게 함께 고민할 동료가 있

으니 기쁩니다.

### 셋째 날

새 지저귀는 소리와 산뜻한 공기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그리워질 합동 연수 마지막 날입니다. 복지요결에서 사회사업 방법, 언행과 품위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회사업 방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였습니다.

첫째 날에 배웠던 ‘사람다운 삶’에 대해 다시 내용을 상기하며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당사자와 함께 묻고 의논하며 부탁하는 것이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한덕연 선생님께서는 실습생들에게는 ‘복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내가 말하는 언행과 품위가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생각하며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 배웠던 사회사업 철학에 있던 개념인 ‘평범하게 합니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평범하지 않게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우석 선생님의 월평빌라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사회사업을 참여한다는 것이 당사자, 기관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기관끼리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하며 기관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피드백과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철암도서관 김동찬 선생님께서 일정들을 살펴봐 주시며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의 이유로 프로그램 워크숍은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한 분, 한 분께 피드백과 조언을 받고 싶었던 아쉬움이 있었

습니다. 합동수료식 때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합동연수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젠 직접 몸소 실천하며 배워보겠습니다. 합동수료식 때 시설 사회사업팀 동료 모두가 성장한 모습으로 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지현 후기

### 첫째 날

합동연수는 충남 청양군에 위치하는 군포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기 좋고, 주위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합동연수 장소까지는 더숨99지원센터, 군산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센터 선생님 그리고 같은 실습생인 동료들과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몇 번 들었던 합동연수였기에 드디어 제가 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긴장감이 섞인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 단기사회사업 '이제 시작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동연수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을 도와 함께 합동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뻐고 뿌듯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긴장감, 걱정의 감정은 온데간데없이 마냥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도착해 준비하는 과정이 낯설고 긴장되는 마음을 한껏 진정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주변의 둘레길을 걸으며 동료들, 실무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할 단기사회사업의 과업, 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무자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작 전이라 더욱 긴장되는 마음이 실무자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니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웠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둘레길 중턱에서 포옹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복지순례 때 한 번 뵈었던 선생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고, 처음 뵈는 선생님과도 처음 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선생님들께 응원을 한껏 받을 수 있어 넘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입주자 지원에 앞서 복지요결을 공부하며 사회사업의 근본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배움을 메모해두었습니다.

다운빌의 임영아 선생님께서 생생한 사례, 이야기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배움도 많았고, 인상이 깊은 부분도 많았고, 감동도 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당사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세우고, 살도록 돕고자 한 것들이었습니다. 입주자들과 이웃들은 기관, 시설이 아닌 ‘집’으로 인식하고,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오롯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람살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돕게 주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설’이라는 명칭에서 주는 것(사회적 정의).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라는 사전적 정의가 가지는 그 의미 넘어선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은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이 아닌 ‘입주자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인식하고자 하고, 인식하게끔 하는 것까지. 사례집에 기술되어 있던 몇 줄의 문장을 위한 사회사업가 선생님들, 입주자, 주변 이웃분들의 노력이 온전히 느껴지는 듯 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비전워크숍 함께했습니다. 오광환 선생님께서 더숨99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및 목표, 미션/비전, 시설사회사업, 전담 사회사업가와 입주자의 이야기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복지요결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에 녹아 있었고, 단기사회사업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 잘 알게 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동료들은 졸업 후 사회사업 인생이나 남은 학창 시절에 이루고 싶은 꿈 한두 가지, 실습 기간의 개인 목표 한두 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및 정리를 하고, 실무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의지와 열정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사업워크숍 함께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과 함께 성육자 씨의 여행 과업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성육자 씨는 워낙 둘레 사람들과의 관계망도 두터워 보이시고, 공방 4개, 교회, 노래교실, 한글학교를 다니고 계셨기에 스케줄이 짝짝 차 있으셔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색깔을 더 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사회사업을 배우러 온 학생으로서 제가 맡은 과업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잘 묻고 의논하는 등 구체적인 사회사업 방법에 대해 궁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한편으론 첫 단기사회사업이고, 합동연수의 첫날에 복지요결을 공부하며 마음이 앞서 제 욕심과 열정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에 쓴 말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제가 아닌 당사자를 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한덕연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새겼습니다. '사회사업가의 계획 수단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기에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과정 안에서 당사자가 주인 되게 혹은 주인 노릇 하게끔 돕고,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일요. 제가 여행 과업을 맡았지만 여행을 가기 위한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육자 씨가 자주적으로 여행을 계획하시고, 여행을 자주적으로 다니시고 둘레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묻고 의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합동연수 1일차는 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동료들을 만나 기뻐했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에서 함께 할 임성훈 선생님, 한동걸 선

생님과 나는 대화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지지할 것 같은 이 관계가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또, 합동연수에서 만난 장애인복지순례단모임의 강석범 오빠와 김민서 언니도 너무나 반가웠고, 덕분에 긴장되는 시간 속에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둘째 날

인상 깊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단기사회사업 하며 여러 번 보기 위해 따로 메모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다운빌의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함께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더숨99지원센터의 사례 발표도 들었습니다. 입주자의 여러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맞춰 변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주인 노릇하고, 주인 되게 함’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성육자 씨의 과업 지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상상해봅니다.

복지예술단으로 MC용 선생님의 공연 및 파티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부르는 복지인의 노래, MC용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노래, 오광환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노래, 응원의 포스트잇 메시지까지 너무나 신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이 시간을 즐기다 보니 2시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걸 체감하지 못할 만큼 폭 빠졌습니다. 합동연수 기간에 긴 시간, 공부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면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돌아와서도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노랫말을 흥얼거렸습니다.

프로그램워크숍 준비했습니다. 동료들, 실무자 선생님들과 밤까지 열

정을 불태웠습니다. 당사자를 잘 돕고 싶었고, 잘 지원하고 싶었기에 계획 단계부터 잘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

복지요결 강독회 참여했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시설 사회사업과 관련해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사회사업적 대응, 기술적 대응, 영성적 대응, 복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복장에 대한 공부를 하며 괜히 더 신발에 흙먼지가 묻진 않았는지 보고, 옷매무새를 다졌습니다. 집에서 챙겨 온 옷을 상상했습니다. 여름옷 중 카라가 있는 상의는 다 챙겼습니다. 셔츠도 챙겼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좋은 옷을 챙겼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평빌라 사례 나눔 들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당사자의 삶이 변했고, 지역사회가 변했고, 기관이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습생이 이번 여름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단기사회사업으로 이뤄갈 일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프로그램워크숍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나누고, 피드백 받고, 동료분들께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너무나 많은 응원을 받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합동연수를 시작 전 들었던 걱정, 긴장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렸습니다.

## 중간 평가회

- 날짜: 2025년 7월 14일(월) 10:00 ~ 12:00
- 장소: 행복나눔공작소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0:00~10:30	소지현 학생 발표와 슈퍼비전
10:30~11:00	임성훈 학생 발표와 슈퍼비전
11:00~11:30	한동걸 학생 발표와 슈퍼비전
11:30~12:00	중간평가 전체 슈퍼비전

### - 내용

정합성 평가: 사회사업 근본, 기관의 정책에 들어맞는지 평가합니다. 사회사업 실재가 여기에 들어맞아야 사회사업 바르게 한다, 바르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는 바 사회사업 근본과 정책에 비추어 바르게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좋아하고 남들이 칭찬한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 정합성의 증거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그래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기록이 있어야 바르게 잘했는지 평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례 나눔: 자기 사업에서 잘된 사례를 한 가지씩 나눕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식, 기록, 사진이나 영상, 보고서, 참고 문헌, 공부노트 같은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보여 줍니다. 동료들은 잘 듣고 적극 반응해 줍니다. 그 일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작은 성과과

도 민감하게 알아줍니다. 그 꿈과 열정, 노력 수고, 성장 발전을 알아줍니다.

② 배움 나눔: 보았거나 들었거나 체험하여 얻은 지식 기술 지혜, 발전 숙련 심화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배움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실제로 적용하여 체득한 것, 자기 이야기가 있는 배움을 위주로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③ 희망 나눔: 남은 일정을 입주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어떻게 지원하고 싶은지 나눕니다. 추억 사례 배움 강점을 살려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평가회에서 새롭게 그려지거나 다듬어지는 희망 구상도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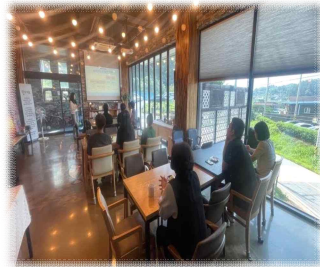
소지현 실습생 발표



한동걸 실습생 발표



임성훈 실습생 발표



슈퍼비전

## 종결 평가회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6:00~17:30
- 장소: 행복나눔공작소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6:00~16:20	발표자(1) 사례 배움 희망 추억 나눔 참여 슈퍼바이저 응원 지지 격려의 말씀
16:20~16:40	발표자(2) 사례 배움 희망 추억 나눔 참여 슈퍼바이저 응원 지지 격려의 말씀
16:40~17:00	발표자(3) 사례 배움 희망 추억 나눔 참여 슈퍼바이저 응원 지지 격려의 말씀
17:00~17:10	실습수료증 전달
17:10~17:30	포옹인사와 단체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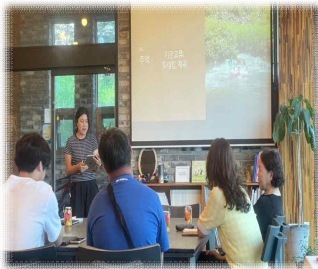
- 내용: 당사자와 함께하는 종결 평가회

① 사례 나눔: 자기 사업에서 잘된 사례 한 가지씩 원고를 준비하여 20분가량 발표합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식, 기록, 사진이나 영상, 보고서, 참고 문헌, 공부 노트 따위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보여 줍니다. 모둠의 동료들은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읽었거나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을 보태어 맞장구쳐 줍니다. 그 사례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공감 칭찬 강화해 줍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에 비추어 정합성의 작은 단서라도 민감하게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발표자를 안아 줍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참~귀하다고. 나도 그렇게 해 보고 싶다고...

② 배움 나눔·희망 나눔: 이번 활동을 선택하고 준비할 때부터 실행하고 마칠 때까지 얻은 배움을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보았거나 들었거나 체험하여 얻은 지식 기술 지혜, 절차탁마해 온 지식 기술 지혜, 발전 속련 심화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배움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실제로 적용하여 체득한 것, 자기 이야기가 있는 배움을 위주로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준비해 온 이야기가 있지만, 앞서 추억 사례 배움을 공유하면서 생긴 욕구 희망 구상까지 보태어 이야기하면 더 좋습니다. 남은 학창 시절을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졸업 후에 사회사업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응원합니다. 안아 주며 축복합니다.

③ 추억 나눔: 동료들과 함께하며 즐거웠던 일, 그리워지는 그 우애와 낭만을 추억합니다. 이곳에서 누린 아름다운 풍경 정취를 회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겹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잘 즐기고 누렸다고, 추억 한두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이 맞장구치거나 보태 줍니다.



소지현 실습생 발표



한동걸 실습생 발표



임성훈 실습생 발표



서영수 센터장님 격려의 말씀



박상희 사무국장님 수료증 전달



김재선 씨 선물 전달



나눔8기 임성훈 한동걸 소지현

## 시설 단기사회사업 합동수료회

- 날짜: 2025년 7월 24일(목) ~ 25일(금)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 참여기관: 군산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센터, 더숨99지원센터, 다운빌, 말아톤주간이용센터, 푸른들, 하람, 하사랑주간이용센터
- 세부 일정

시간	7/24(목)	7/25(금)
07:00~08:00	참가자 접수 (13:00부터)	아침 인사와 식사
08:00~12:00		배움 나눔·희망 나눔
13:00~14:00	인사와 소개·개회	폐회·전신식사
14:00~18:00	과업 실천 사례나눔 (6개 시설/ 11명 실습생)	
18:00~19:00	저녁 식사	
19:00~22:00	시설단기사회사업 수료식	

- 내용

① 사례 나눔: 실습생은 자기 사업에서 잘된 사례 한 가지씩 원고를 준비하여 20분가량 발표합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시, 기록, 사진이나 영상, 보고서, 참고문헌, 공부 노트 따위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보여줍니다. 동료들은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읽었거나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을 보태어 맞장구쳐 줍니다. 그 사례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공감 칭찬 강화해 줍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에 비추어 정합성의 작은 단서라도 민감하게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② 시설 단기사회사업 수료식: 팀대표 실무자(슈퍼바이저)가 활동 개요와 주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소개할 때 필요하면 담당 학생이 보충 설명하게 해도 좋겠습니다. 팀 대표 실무자가 수료사를 낭독합니다. 팀별로 학생 개인 수료사를 낭독합니다.

③ 배움과 희망 나눔: 이번 활동을 선택하고 준비할 때부터 실행하고 마칠 때까지 얻은 배움을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보았거나 들었거나 체험하여 얻은 지식 기술 지혜, 절차탁마해 온 지식 기술 지혜, 발전 숙련 심화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배움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실제로 적용하여 체득한 것, 자기 이야기가 있는 배움을 위주로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학창 시절을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졸업 후에 사회사업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응원합니다. 안아주며 축복합니다.



소지현 실습생 발표



한동걸 실습생 발표



임성훈 실습생 발표



박선영 선생님과 소지현 실습생



최길성 선생님과 한동걸 실습생



김현승 선생님과 임성훈 실습생

## 토요활동① 군산 은파호수공원

7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만나 은파호수공원을 한 바퀴 걷기로 했습니다. 은파호수공원은 한 바퀴 도는 산책로의 길이가 약 9km 되는 규모의 공원입니다. 다음 주 노는 날, 기관교류의 트래킹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쉴 수도 있었던 날이었지만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현승 선생님, 오광환 선생님, 최길성 선생님, 소지현 학생, 임성훈 학생, 한동걸 학생이 함께했습니다.

실무자 선생님과 학생 1:1로 짝지어 나눔을 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호수, 초록색 나무들의 경치를 보며 함께 걸었습니다. 학생들은 단기사회사업에 대한 소망, 기대, 목표를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고민과 학교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공유했습니다.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넘치도록 아끼지 않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잠시 쉬어가면서 오광환 선생님께서 챙겨주신 물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가방에 무겁게 물 가져와 주신 오광환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약 20분마다 1:1 매칭을 바꾸며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훌쩍 시간이 지나가 어느새 2시간을 걸어 약 7-8키로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기보다는 실습 첫 주를 보내며 마음 속에 고민했던 것들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에너지가 충전됐던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함께 은파호수공원 앞 막국수 식당에 가서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고, 배고팠던 배를 채웠습니다. 운동하고 먹은 밥이 너무나 달고 맛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막국수와 고기를 해치웠습니다.

원래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함께 걸으며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 오광환 선생님, 김현승 선생님, 최길성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준 임성훈, 한동걸 동료에게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소지현

## 토요활동② 기관교류: 충북 괴산 달천 트래킹과 쌍곡계곡

함께한 기관 : 더숨99지원센터, 군산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 다운빌, 하사랑주간이용센터, 말아톤주간이용센터

기관교류를 위해 충남 괴산에 갔습니다. 오늘은 함께 트래킹과 계곡 물놀이 할 하기로 했습니다. 말아톤주간이용센터, 하사랑주간이용센터, 더숨 99지원센터, 군산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 다운빌 총 다섯 기관의 학생들과 실무자가 함께했습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다운빌 실무자 선생님들과 실습생분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주 만에 본 터라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엔 남성우 실습생분께서 군대 조교 출신으로 준비운동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트래킹 전 안전하게 몸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주신 주먹밥, 물, 음료수와 쿨링패치를 나눠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주먹밥 직접 만들며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은 약 10.8키로를 걷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말아톤주간이용센터 김진수 팀장님께서 아이스크림 사 주셨습니다. 평별 아래 함께 걷다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참 답니다. 걸으면서

그리고 중간 쉬면서 주먹밥 먹고, 물과 음료수 마셨습니다. 참 꿀맛이었 습니다. 조금 남은 물도 동료들과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들과는 지난 시간을 추억하고, 실무자 선생님들과 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조언 들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던 타 기 관의 동료들과는 지난 이야기와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이 건 잘 실천했다고 자랑도 하고, 성찰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일지도 봐 주셨다고 합니다. 제 일지 쓰느라 바쁘던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그렇 기에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특히, 다운빌의 강석범 실습생과 오랜 이야 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궁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 니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이 궁금했고 기대됐고 응원했습니다.

남성우 실습생과도 같은 시기에, 같은 곳으로 가는 부산 여행 계획도 나눴 습니다. 그렇게 또 부산에서 보면 모른 척 인사하자며 서로를 응원했습니 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기사회사업, 동행하고 있는 듯 느껴졌 습니다.



거리로는 긴 거리였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 주 주말에 은파 호수공원에서 걷기 연습을 했던 덕이었을까요? 동료들과 함께 에너지 나눴던 덕이었을까요? 충전된 에너지로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

꼭 물놀이에 그 에너지 다 쓰기로 했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임영아 선생님께서 미리 계곡에 가서서 저희를 위해 쉴 자리와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짙은 햇빛 아래 메말랐던 목을 준비해 주신 시원한 물로 적셨습니다. 허기진 배를 김밥과 컵라면으로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움직일 힘도 다시 생기니, 계곡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계곡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기관 선생님들과 동료끼리 신나는 물놀이 했습니다. 기관별로 간단한 팀 게임도 했습니다. 최진수 선생님과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물에서 나오니 말아톤주간이용센터에서 준비해 주신 수박과 방울토마토, 임영아 선생님께서 사다 주신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또 최진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덕분에 물놀이로 허기졌던 배를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뒷정리하고 기관끼리 서로 마무리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기관교류 때, 동료끼리 더 많은 이야기 들려줄 것을 약속하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지현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다거북수프'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게임을 마칠 때마다, 시간이 40분씩 지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게임 할 때, 기관에

얼른 도착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기관에 도착 후, 짐을 풀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은 전유나 선생님께서 사주신 얼큰한 짬뽕과 푸짐한 탕수육 먹고 기관교류를 마쳤습니다.

합동 연수 때 이후 두 번째 만났습니다. 구슬땀 흘리며 걷는 동안 동료들 그리고 실무자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몸도 적셨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기관별 실무자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있으니 다음 기관 교류가 기대되었습니다. 기관 교류를 통해 응원과 지지 받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운전해 주신 오광환 선생님, 전유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 준비해 주신 다운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중간 만남의 광장에서 아이스크림 사주신 최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리 점심이랑 설 곳 준비해 주시고 옥수수 사다 주신 임영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수박과 방울토마토 준비해 주신 말아톤주간이용센터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준비해 주신 최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녁 대접해 주신 전유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소지현, 한동걸

### 토요활동③ 기관교류: 대전 추동 호숫가어린이도서관

함께한 기관 : 더숨99지원센터, 하사랑주간이용센터, 김제사회복지관, 추동사회사업팀

오늘은 추동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선생님을 통해 호숫가마을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추동팀 선생님들, 하사랑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최선웅 선생님께서는 “어 기타 찼던 학생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동 연수에서의 모습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각했던 도서관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종이학 접듯 접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쓴 종이들, 여러 책, 그리고 난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선풍기 아래에서 여기저기 퍼져 이야기 나누며 책을 읽는 모습, 겨울에는 난로에 모여 고구마를 먹으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김제사회복지관 팀이 도착하기 전, 추동살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최길성 선생님께서 호숫가마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잔잔함이 느껴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그 공간에 오니 그 잔잔함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도서관 앞 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옹기종기 모여 책 읽는 모습, 아이들이 공을 차고 뛰어노는 모습, 여느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놀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추동에 살던 청년이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뒤로 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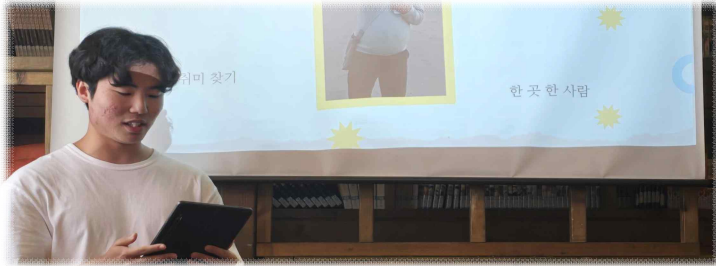
오광환 선생님과 함께 노래 부르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에어컨, 초행길 노래 들으며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원의 느낌을 받는 거 같았습니다. 오광환 선생님의 노래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용 선생님의 추동 소개 들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돕는 일이 사회사업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을 사회사업은 마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 계속 궁금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도서관의 사진과 지금의 도서관.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 도서관들을 만들어가는 모습,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하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담겨 있지 않은, 정말 많은 손길이 닿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도서관 내부를 계속 둘러보며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추동팀의 이지안 김규민 학생 발표 들었습니다. 발표 들으며 연극, 야영회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호숫가 마을 단기사회 사업에 임하는 그 마음. 배워갔습니다.

더숨99지원센터 사례 발표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10분. 10분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긴장되었습니다. 발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여러 더숨

99 선생님과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 발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든든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사랑주공간이용센터 정세진 선생님 사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장구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생동감 있게 들려오니, 당사자와 선생님의 모습이 더 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식당 가서 돈가스 먹었습니다. 선생님, 동료들과 둘러앉아 복지 요걸 내용들을 공부하며 어려웠던 점들은 없었는지, 복지관과 시설에서의 사회사업은 어떤 점이 다른 지 등등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합동연수 때, 일정표를 새벽 1시 이후에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성훈 선생님과 소지현 선생님과 합동 연수 때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제사회복지관 단기사회사업 이야기, 청주엔 간장삼겹살이 유명하다 등등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트래킹을 하며 김민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표 때, 못다 한 내용들을 김민서 선생님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서 선생님께선 아직 사회사업을 진행하기 전이어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실습하는 실습생으로서, 단기 사회사업 동료로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김재선 씨 취미 찾기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 말에 집중하고 경청해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 보며 사회사업 잘하려고 하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신 만큼, 저 또한 많이 이야기 나누며, 그동안의 저의 모습들을 다시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년 실습하셨던 나눔 7기 변주영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분을 보니 마치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변주영 선생님 오신다는 말씀에 살짝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하며 많은 도움 얻었기에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지를 읽고 있으시다는 말씀, 응원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트래킹 하고 난 후, 실습생 나주성 선생님 발표 들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리허설까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분들이 함께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동료애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발표 끝난 후, 수박 먹으며 다른 실습생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제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선 실습생은 작년에 추동 활동을 하셔서 그 활동에 대해 여쭙봤습니다. 나무를 베는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최선웅 선생님과 김선 선생님 모습들을 보니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추동팀 이지안 김규민 선생님과도 대화 나눠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동료로서 응원의 마음을 보냈습

니다.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습생분들과 기관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며 마무리했습니다.



호숫가 마을 도서관. 있는 내내 책을 펼치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곳을 직접 찾아가니 신기했습니다. 마을 사회사업은 누가 돕고 누가 도움 받는지 보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꾸며나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함께할 구실을 제공합니다. 복지요결에서 배운 ‘공생’이 생각났습니다.

최선웅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디데이’는 원래 전쟁 용어이기에, ‘당일’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과 ‘사람’이 함께 쓰일 경우 적절하지 않은 점 등, 표현에 대해 주의해야 시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 단기사회사업하며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표현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 당사자에게 더욱더 신중하게 표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떠나간 나룻배는 다시 돌아오기 마련. 시작이 있으면 끝도 언젠가 오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끝에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잘 재구성해서 사회사업 끝맺음 잘하고 싶습니다.  
가는 길, 운전해 주신 오광환 선생님, 전유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박  
제공해 주신 김제사회복지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  
신 김제사회복지관, 더숨99지원센터, 하사랑주간이용센터, 추동호숫  
가어린이도서관 실습생들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발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더숨99지원센터 선생님들, 동료들 감사합니다. 김제사회복  
지관, 추동팀 사회사업 단기사회 사업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한동걸

## 소지현 수료사

지난 2월에 복지순례하며 사회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숨99지원센터에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울림을 주었고, 그 울림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곳이 참 좋았습니다. 돌아가서도 그 마음이 오래 남아서 단기사회사업 모집 글이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렸지만 지원할 때는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쉽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으로 지원해라.”

이 말은 사회사업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질을 따지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자질이 당사자에게 있다면 그 자체로 더 빛나는 일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기사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만날 때마다 “오느라 애썼어요, 고생했어요.”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그 인사. 항상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집에 초대해 주셨을 땐 직접 만든 반찬이며 감자, 빵, 주스까지 아낌없이, 원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산 여행에서 국화 선생님과 손을 꼭 잡고 걸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다 사줄게.”라고 말씀하시던 그 다정함이 참 따뜻했습니다. “학생이랑 오니깐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지으셨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날엔 제 손을 어루만지며 “같이 여행 가서

행복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그 눈빛이, 제게는 상장보다 더 값지고, 메달보다 더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국화 선생님을 돕고자 했지만 되돌아보면 제가 더 많이 따뜻함을 받았고, 더 많이 챙김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서로의 존재로 위로받고 웃을 수 있었던 진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부산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무조건 국화 선생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이 오래도록 남을 추억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눈물이 났습니다. ‘잘 도와줘야 한다.’ 이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ですよ. 예전처럼 제 모습이 아쉬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함께 했기에, 함께였기에 헤어짐이 아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국화 선생님과 함께한 부산 여행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일상 속에서도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습 중에 우연히 들렀던 병원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라며 따뜻하게 말해주시던 의사 선생님,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시던 약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기사회사업 첫 주에 길을 헤매던 저에게 버스를 태워주신 기사님께 “복 받으세요.” 인사를 드리자 “그 대신 선행 다섯 개 하세요.”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마지막 주엔 정류장에서 버스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어르신들의 핸드폰에 지도 앱을 깔아드렸습니다. 그

분께서 “복 받을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드리느라 타려던 버스를 놓치고 다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우연히 기관 앞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도착한 목적지.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정겨운 사람살이를 느꼈고, 그래서 더욱 사회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웃과 인정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선명하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난치며 웃던 사이라서, 평소에 서로 낮간지러워서 고마울까? 고마울지도? 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이니 꼭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일에도 제 일인 것처럼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든든했습니다. 함께여서 든든했고, 위로되었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실무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했다.” 그리고 때로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칭찬과 응원, 조언과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모든 순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그 마음, 언제나 전화해요. 라는 말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선생님이 믿어 주신 덕에, 단기사회사업 동안 하고 싶거나 하고자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 경험으로써 얻는 배움이 컸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번 여름 한 달은 저에게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군산에서 다시 한번 소중한 기억을 새겼습니다. 여름에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북마크처럼 단기사회사업의 추억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한 달간 매일 일지를 쓰고, 밤늦게까지 내일을 준비했던 날들, 무더운 날에도 성욕자 씨와 군산 이곳저곳 다니고, 부산 여행 갔던 날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더섬에서의 하루하루가 벌써 그립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분명히 제 삶의 한 문장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사회사업은 마라톤과 같다.”

이번 단기사회사업이 단거리 달리기였다면 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언젠가 더 단단해져서 마라톤의 출발선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날이 오겠지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예비사회사업가 소지현

## 소지현 수료증(박선영 선생님)

지현 학생을 처음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성옥자 씨와 면접 연습을 위해 일찍 도착했던 날, 카페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현 학생. 성품 좋고 착한 학생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원서 글에서 이미 느껴졌던 ‘당사자의 삶을 함께 하겠다’라는 진심이, 그날 지현 학생의 면접 과정에서도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성옥자 씨가 복이 많으시니 착한 학생을 만날 거라는 예상대로 지현 학생을 만나 든든했습니다.

성옥자 씨는 첫 만남부터 지현 학생을 이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무더운 날, 이마트 쇼핑을 마치고 생애 첫 버스 이용을 돕겠다는 지현 학생에게 “날씨가 뜨거우니 버스 타는 거 고려해 보세요.”라고 제안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런 직원에게 “아닙니다. 버스 타는 거 지원해드리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 그 짧은 말속에 깃든 의지와 표정에서 성옥자 씨의 여행뿐 아니라 삶을 두고 돕고 싶어 하는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현 학생의 그 뜻이 성옥자 씨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 잘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사자를 존중하고 또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거들어 주는 사람, 그리고 당사자의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응원 격려 지지하는, 지현 학생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옥자 씨의 여행에 대한 기대는 지현 학생이 함께하며 더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매 순간 진지하게 피드백을 듣고 바로 실천으로 보여주던 모습은 지현 학생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지현 학생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책하지 말아요’라고 또, ‘지금 못한 것은 그때 그 일에서 실천하면 된

다'라고 다시 말해 주고 싶습니다. 성옥자 씨의 따뜻한 배려 앞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어느 날은 자신이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었지요. 지현 학생의 성찰과 다짐의 눈물! 저에게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대신하지 않도록, 대신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심해지고, 소외되고, 잊히기에 당사자의 삶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고,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사회사업의 근본을 다시 새기는 기회를 주어 고맙습니다.

소지현 학생은 성옥자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도왔습니다. 성의 정심하였습니다. 들레사람에게 여행 소식 전하고, 의논하며 성옥자 씨의 여행 준비가 잘 되길 바란 지현 학생의 바람대로 여행 다녀온 성옥자 씨의 이야기에서 지현 학생의 노력이 바람이 이루어졌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공부로 얻는 지식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웠다고 모두가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현 학생은 배우고, 깨우치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리지 못해 늘 아쉬웠습니다. 지현 학생이 더 많이 배우고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지현 학생은 이미 많은 것을 품고 갑니다. 사람에게 대한 존중, 실천하는 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요.

실습이 끝나는 오늘, 지현이 남긴 눈물과 자주 했던 말 “좋아요. 좋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오래도록 기억할 거 같아요. 사회사업가로서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 그 눈물, 그리고 성옥자 씨를 주인으로 세워주신 “좋아요. 좋습니다!”가 주는 묘한 힘을 기억하겠습니다.

지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품은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줄 사회사업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현 학생이 걸어갈 사회사업의 길 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희망과 존중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지현 학생과 함께해서 넘치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애써주어 고맙고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소지현 예비사회사업가에게 박선영 드림

## 한동걸 수료사

월평빌라에서 일하는 정진호 선생님을 통해 시설 단기사회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사진 속 당사자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어쩔 저리 행복하실까?”라는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월평빌라 단기사회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박효진 선생님께 사회사업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쭙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사회사업가는 사람 사이 관계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월평빌라에서의 실습이 어려워졌지만 임우석 선생님께서 시설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소개해주셨고 더숨99지원센터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연수에서 복지요결을 공부했습니다. 복지요결 내용을 보며 ‘내가 배운 대로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김재선 씨를 잘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사회사업 잘해보고 싶어서 이전에 더숨99지원센터 단기사회사업으로 실천한 사례, 다른 기관의 사례, 현재 사회사업가 선생님들의 지원일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동료끼리 밤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도 하며, 잘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입주자를 지원하고, 밤에는 성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가끔은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실천 방향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해 줄 동료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은 김재선 씨의 강점입니다. 그런 김재선 씨를 보며 저 또한 성실하게 단기사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재선 씨가 일을 마치고 연락하는 12시에서 13시 사이가 매일 기다려졌습니다. 무더위에서 함께 구슬땀 흘리며 “한 곳 더 가봐요.”라고 말씀하시던 김재선 씨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보람차게 사회사업 할 수 있었습니다. 일 끝났다고 먼저 연락하시던 김재선 씨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애쓰며 때로는 의지했던 동료 소지현 선생님과 임성훈 선생님을 만난 건 큰 축복입니다. 두 동료는 아낌없이 나누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뒤처진다고 느껴져 앞을 보면 동료들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습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선 늘 정성껏 답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먼저 다가와 물어봐 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태도를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을 잘 해낼 수 있던 것도 선생님 덕분에였습니다. 최길성 선생님을 만난 건 큰 축복이고 행운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듣는 것,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당사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레 사람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당사자의 숨은 강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청하니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듣기 어려운 상황이면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묻고 잘 의논하고 잘 부탁해도, 잘 듣지 못하면 좋은 사회사업가가 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몸소 실천하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학원에 방문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시원한 음료수를 내어주셨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났습니다. 지역사회를 두루 다니며 정겨운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몸소 느꼈습니다. 따뜻한 한 분과 한 곳이 있기에, 함께할 이웃이 있기에 살만하고 따뜻한 세상이라고 느꼈습니다.

김재선 씨의 취미 찾기는 취미 찾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돌아보며 장애 당사자분들이 다녀간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사회가 김재선 씨를 반갑게 맞이해주실 수 있던 계기는 장애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며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취미 찾기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 느꼈습니다. 김재선 씨와 함께한 이 과정은 앞으로 또 다른 장애 당사자분들이 이 공간을 찾았을 때 더 따뜻하게 맞이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미 찾기 과업이 누군가의 취미 찾기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습하며 김재선 씨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진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사진 속 당사자분의 표정이 왜 그토록 행복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사회 사업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배 사회사업가 선생님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며, 언젠가 저도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남은 대학 기간 사회사업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당사자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면 사회사업가로서 얼마나 뿌듯할지 기대됩니다. 그 방향 속, 다양하게 사회사업 배워보고 싶습니다.

니다. 남은 학창 시절 동안은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사업 진행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단기사회사업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벌써 끝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2025년의 여름은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짧은 실습 기간, 어디에도 담지 못할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실습 기간의 배움을 잊지 않고 계속 배우며 부딪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예비사회사업가 한동걸

## 한동걸 수료증(최길성 선생님)

면접 때 기억나는지요? 한동걸 학생이 김재선 씨의 말씀에 경청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듣지 못했을 때는 김재선 씨께 다시 여쭙보았습니다. 이런 학생의 태도에 김재선 씨가 쉽게 마음을 여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선 씨는 함께할 학생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학생이 한동걸 학생이어서 기쁘셨을 겁니다. 그런 한동걸 학생을 보며 단기사회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걱정이 온전히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한동걸 학생은 합동연수에서 밤늦게까지 궁리하며 일정을 다듬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도 동료들과 자리를 옮겨 또 다듬었습니다.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고 싶고, 김재선 씨 삶을 잘 돕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 모습이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요.

군산에 돌아와서는 돌레 사람에게 인사하고 김재선 씨와 본격적으로 취미를 찾았습니다. 김재선 씨의 일상이 있으니 함께할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김재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경보 문자가 많이 오더군요. 날씨와 상관 없이 김재선 씨와 열심히 땀 흘리며 군산 이곳저곳을 발바닥 닳도록 다녔지요. 더우니 김재선 씨와 의논하여 쉬엄쉬엄해도 된다고 말해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사회사업은 발을 통해오고 발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간 한동걸 학생은 발로 일하는 사회사업가였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김재선 씨와 지역사회로 나가 직접 발로 뛰니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

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그 시간이 한동결 학생에게 큰 경험이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땀을 흘려주길 바라요. 한동결 학생이 땀 흘린 만큼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김재선 씨의 취미 찾기를 구실로 헬스장 관장님, 미용실 원장님, 여러 학원 선생님, 어머님과 만났습니다. 김재선 씨의 일로 돌레 사람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김재선 씨가 취미 찾기 복지 이루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김재선 씨와 돌레 사람 관계의 사이사이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관계가 켜켜이 쌓여가고 결국에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결 학생이 한 달 동안 한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일이 언제 어떻게 김재선 씨의 삶에, 더 나아가 장애 당사자분들의 삶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김재선 씨도 학생과 함께한 시간을 마음속에 고맙게 간직하실 겁니다.

한동결 학생은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정직한 마음, 성실함이 큰 무기입니다. 김재선 씨와 의논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성실히 준비했고, 돌아와서는 항상 성찰로 나아갔습니다. 처음 김재선 씨와 단둘이 공방 다녀온 날이 기억납니다. 공방 다녀오신 김재선 씨가 웃으시며 “내가 질문 많이 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게 시설 사회사업의 발전인데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김재선 씨가 주인 노릇 하시게 잘 돕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동결 학생이 끝내 멋지게 해냈네요.

한 달이란 시간, 동결 학생을 잘 돕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사업 재미있게 하길 바랍니다. 수료식 때 모습을 보니 저의 바람이 이뤄진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정말 애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동결 학생의 사회사업 인생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한동결 예비사회사업가에게 최길성 드림

## 임성훈 수료사

나우현 씨와 면접하며 처음 뵈었을 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들어 드려야 할지, 스스로 언행을 어떻게 살펴야 할지, 이 모든 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일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군포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한 2박 3일의 합동 연수에서 한덕연 선생님과 복지요절을 강독하며 사회사업을 배웠습니다. 각 기관의 지원 사례를 들으며 실제 실천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전 워크숍과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한 달간에 단기사회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니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나우현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때의 초점은 나우현 씨의 행동과 표현이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정말 원해서 결정하신 표현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함께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그때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나우현 씨를 사람으로 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세워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고 나우현 씨가 선택하시거나 알 수 있게 세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나우현 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우현 씨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우현 씨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나우현 씨의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여행을 구실로 더불어 살게 도우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우니 나우현 씨가 자

기 삶의 주인으로, 이번 단기사회사업의 과업인 여행에 주인 되게 거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우현 씨를 여행의 주인으로 세워 드리시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회사업 실천 방법을 체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조언하고 응원해 주신 김현승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해낼 수 있었고, 선생님 덕분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단기사회사업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업을 이루기까지 조언으로서 입주자와 저희를 비춰주신 선생님들께도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 출근을 도와주셨던 김현승 선생님과 최길성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출근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신 전유나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매일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시며 따뜻한 말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박선영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여 대접해 주신 김미영, 김민희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매번 나우현 씨와 의논하며 어려워할 때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핵심을 짚어서 사회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오광환 선생님과 전유나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저녁 나눔에 나우현 씨를 도운 이야기에 덧붙여 설명해주시며 잘한 점을 더 세워주셨던 김현승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준 실습 동료 한동걸 선생님과 소지현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나우현 씨와의 여행을 응원하며 커피 쿠폰을 보내주신 전유나 선생님과  
오광환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실습 기간에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신진희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실습생들 일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댓글까지 남겨주  
신 황태규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기관교류와 합동수료식에서 응원해 주시고 간식 대접해 주신 다운빌 임  
영아 사무국장님, 최승호 선생님, 이승학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합동연수부터 합동수료식까지 동료로서 배움을 나누고 응원해 준 모든  
실습 선생님들께 고맙습니다.

수료사에 다 담지 못했지만 저를 귀한 사람으로 보고, 다양한 일에서 다양  
한 것으로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 수료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실습을 잘 마칠 수 있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실습 이후에도 이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이 따  
뜻함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예비사회사업가 임성훈

## 임성훈 수료증(김현승 선생님)

군산대학교에서 홍보를 마치니 더숨99지원센터 단기사회사업에 지원하고 싶다는 임성훈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해진 이미 정한 실습기관을 바뀌가면서까지 지원하려 하시나요?”  
“최길성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이렇게도 실천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의 마음이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은 활동 시작 전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나우현 씨를 잘 도울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고 안내하니 놀랐던 임성훈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더욱 자세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다시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나우현 씨를 잘 돕고 싶다는 임성훈 선생님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자 나우현 씨의 일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리며 나우현 씨를 세워드리는 모습에 고마웠습니다. 특히 여행을 계획하고 소개하기 위해 만든 발표 자료 두 장으로 나우현 씨에게 40분을 넘게 설명하는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리지 않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앞세웠다면 그게 더 빠르고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성훈 선생님은 이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의논하는 걸 놓치면 반성하며 성찰했고 나우현 씨에게 사과드리며 다시 설명해드렸습니다. 임성훈 선생님은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는 게, 나우현 씨가 여행의 주인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더없이 잘 알고 실천했습니다.

### 1. 사람다움

1)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복지요결」

### 3. 약자일수록

약자일수록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어린아이나 지적 약자, 자폐증이나 치매증이 있는 사람, 정신 질환이나 술 중독증이 있는 사람, 귀 어둡거나 어눌한 사람, 전신마비 상태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지요결」

나우현 씨와 의논한 내용을 토대로 둘째 사람과 의논할 수 있게 주선하고 돕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인사 잘 드리니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신 공방 선생님의 모습은 잊지 못할 한 장면입니다.

나우현 씨가 여행의 주인 되게 돕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나우현 씨가 원하는 일인지, 잘 돕고 있는지 매 순간 궁리하고 성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가 어려운 입주자를 도우니 다른 동료도 입주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부러울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나우현 씨를 지원하는 사회사업가로서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린 덕분에 울여름 나우현 씨가 자기 여행으로 잘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나우현 씨의 미소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성훈 선생님이 누군가의 삶을 돕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좋아합니다.”

임성훈 선생님이 지원사에 쓴 문장입니다. 임성훈 선생님의 실천은 시작과 끝이 같았습니다. 이 글처럼 활동하는 내내 나우현 씨를 여행의 주인공 되게 도울 수 있는지 궁리하고 실천했던 임성훈 선생님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임성훈 선생님, 나우현 씨와 저희가 여름에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니 1,000km 넘었더군요. 사회사업은 발로 이루고, 사회사업가는 발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지요. 덕분에 나우현 씨와 돌레 사람이 여행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수 있었습니다.

임성훈 예비사회사업가님, 지난 한 달간 애쓰셨습니다. 귀하고 의미 있는 실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임성훈 예비사회사업가에게 김현승 드림

## 온라인 보고서

### 성옥자 씨 여행

성옥자 씨에게 여행은 바람이자 꿈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여행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여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계획하며 성옥자 씨가 일상으로 만나는 둘레 사람에게 여행지를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받지 못하더라도 여행을 구실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행응원카드를 부탁드렸고 직접 써 주시며 여행을, 성옥자 씨를 응원해주셨습니다. 부산 동생 부부와의 연락이 닿아 여행 가서 만나셨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고, 식사하고, 여행지 구경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도 품으셨습니다.

단기사회사업으로 도운 여행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성옥자 씨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소지현 실습생이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성옥자 씨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았습니다.

소지현 실습생이 사회사업 방법으로, 사회사업가답게 이룬 덕분입니다.

### 김재선 씨 취미 찾기

김재선 씨는 잠시 멈추었던 취미를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활동은 김재선 씨가 좋아하는 미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취미처를 찾으며 다양한 곳에 다녀보시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공방과 학원에 일일 체험을 예약하여 다녀오셨습니다. 상담할 만한 곳을 예약해 찾아가고, 동네에 보이는 학원에 들러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다녀온 곳, 다닐 만한 곳을 직접 평가하며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미술나들이를 구

실로 어머니와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다음으로 미뤘으나 소식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헬스장 관장님, 미용실 원장님께 나들이 갈 만한 장소를 추천받았습니다.

단기사회사업으로 도운 취미 찾기와 나들이가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김재선 씨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한동걸 실습생이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김재선 씨와 둘레 사람이 취미 찾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았습니다.

한동걸 실습생이 사회사업 방법으로, 사회사업가답게 이룬 덕분입니다.

#### 나우현 씨 여행

나우현 씨가 여느 청년처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랐습니다. 나우현 씨만의 표현 방법이 있지만 의도를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우현 씨를 사람답게 돕기 위해 애씁니다. 여행을 도울 때도 충분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려 애썼습니다. 김현승 선생님과 임성훈 실습생이 나우현 씨가 '주인 되게' 잘 돕고자 했습니다. 여느 사람에 비해 관계하는 둘레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그 관계를 붙잡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디저트 카페 사장님이자 공방 선생님, 목사님께 여행 소식을 알리고 여행지를 추천받아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덕분에 낭만이 가득하다는 여수 여행을 여느 청년처럼 잘 다녀오셨습니다.

단기사회사업으로 도운 여행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나우현 씨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임성훈 실습생이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우현 씨와 둘레 사람이 여행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았습니다.

임성훈 실습생이 사회사업 방법으로, 사회사업가답게 이룬 덕분입니다.

## 선행학습 자료

- 「복지요결」 <http://www.welfare.or.kr/social-work-essence.htm>
- 「장애개념」 <http://www.welfare.or.kr/disability.htm>
- 「내가 여행하는 이유」 <https://cafe.daum.net/ilove392766/kPm7/5>
- 「월평빌라 이야기2」 <https://cafe.daum.net/ilove392766/kPm7>
- 「마라톤 갑니다」 <https://cafe.daum.net/coolwelfare/OX67/227>
- 「속골 작은집 사람들」 <https://cafe.daum.net/coolwelfare/OX67/172>
- 더숨99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일지 <https://cafe.daum.net/ksnanum>  
정흥 씨 단키주거, 이영철 씨 여가, 한창훈 씨 여가, 진소망 양 여가, 정병선 씨 여행, 정선옥 씨와 정영진 군 여행, 강태양 군 여행, 정건우 씨 여행, 박종훈 씨 취미 찾기, 전세움 양 취미 찾기, 이영철 씨 취미 찾기
- 성옥자·김재선·나우현 씨 개인별 지원 계획서, 중간점검서, 평가서, 보물지도 욕구사정 결과자료, 지원일지(2016~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세상 웹사이트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866번 글, '2025년 단기사회사업 나눔8기 온라인 보고서', 오광환 발췌

## 어디보다 어떻게

2025년 나눔8기 단기사회사업 기록

---

작성 소지현 한동걸 임성훈  
인쇄 2026년 3월  
발간 더숨99지원센터  
편집 오광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71  
전화 063-464-9944  
이메일 ksnum@hanmail.net